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發表4周年記念
統一問題學術會議
(1986. 1. 30)

統一對話 86-1-6

民 族 和 合 斗 統 一

1986. 2.

國 土 統 一 院
(南北對話事務局)

차 례

1 . 概 要	3
2 . 長 官 人 事	7
3 . 第 1 主 題 : 南 北 對 話 의 中 間 評 價	13
4 . 第 2 主 題 : 南 北 對 話 의 環 境	59
5 . 綜 合 討 論	115

1. 概 要

1. 概 要

- 大主題：民族和合斗 統一
- 日 時：1986.1.30 (木) 10:00 ~ 17:00
- 場 所：南北對話事務局 會談場
- 主 管：國土統一院 南北對話事務局
- 主題 및 發表者

區 分	主 題 名	發 表 者	討 論 者
第 1 主題	南北對話의 中間 評價	安 秉 俊 (延世大教授)	姜在倫 (東國大教授) 李相禹 (西江大教授) 鄭洪鎮 (松苑獎學會理事長) 宋榮大 (赤十字會談代表)
第 2 主題	南北對話의 環境	申 正 鉉 (慶熙大教授)	金 應 (外大教授) 李洪九 (서울大教授) 鄭千九 (仁川大教授) 金達述 (前赤十字會談代表)
綜合討論		司會：金 應	發表者 및 討論者 全員

2. 長官人事

2. 長 官 人 事

오늘의 學術會議 主題發表者와 討論者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를 빛내 주신 貴賓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公私多忙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枉臨하여 주신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全斗煥大統領께서 1982年 1月 22日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을 闡明하신 이후 當院에서는 이 歴史的인 날을 記念하는 同時에 各界의 專門家들을 모시고 統一問題의 政策討論을 活性化 시켜보자는 趣旨에서 이미 두번에 걸쳐 훌륭한 學術세미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本人은 오늘의 이 세번째 모임이 時期的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意味를 賦與하는 매우 重要한 行事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 民族이 必야흐로 國土分斷 40年을 보내고 새로운 時代를 맞이하여 過去 어느때보다도 南北關係와 統一問題에 깊은 關心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와「엔겔스」가 合作하여 1848年에 그 有名한 「코뮤니스트 메니웨스트」를 創刊하여 共產主義 思想이 發達하는 基礎를 마련한 다음 多樣한 理念鬭爭이 國際的인 規模로 展開되어 왔지만, 「마르크스」의 豫言과는 달리 지금 世界到處에서 共產主義의 쇠퇴를 目擊하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國力이 계속 伸張되면서, 앞으로 2年後에는 서울올림픽 大會를 主催하게 될 우리民族은 그 어느 때보다 成熟된 位置에서 그리고 보다 希望的인 觀點에서 南北關係와 統一問題를 凝視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最近의 國際環境과 周邊國家들의 動向에서도 南北關係의 平和的 發

展을 고무하고, 誘導하는 肯定的인 要因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感知하게 됩니다.

이러한 內外與件 속에서 우리 政府는 지난 해에 이룩한 南北離散家族 故鄉 訪問團의 相互交流等 對話의 成果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南北對話에서 보다 實質的 進展을 가져오기 위하여 積極的인 努力을 펴 나갈 計劃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最近 北韓側의 態度를 보면 그들이 진정으로 우리측과 對話를 통해서 南北間의 懸案問題를 解決해 나갈 意思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疑問을 提起하고 있습니다.

이미 報道된 바와같이 北韓側은 지난해처럼 올해에도 공연히 우리 側의 年例的인 軍事訓練을 問題삼고, 이미 雙方間에 合意한 날짜에 會談을 열 수 없다는 一方的인 通告를 해 옴으로써, 다시 한번 內外를 失望시키고 있습니다.

北韓側이 經濟會談과 赤十字會談, 그리고 國會會談 豫備接觸等 諸般 會談 日程에 合意한 다음 엉뚱하게도 우리 側의 慣例的인 軍事訓練이 마치 對話 앞에 고의적으로 緊張과 不信을 造成하는 것처럼 中傷, 誹謗하면서 會談 開催를 拒否하는 것은 全的으로 不當한 것입니다.

南北間에 存在하는 緊張과 不信은 40年이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 形成된 고질적인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歴史的으로 볼 때 이것은 전적으로 北韓側이 공공연히 追求해 온 對南 革命路線과 軍事路線에 그 原因이 있는 것입니다.

北韓側이 軍事訓練을 秘密裡에 實施하고, 重武裝 軍隊를 非武裝地帶 일 대에 전방 配置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側을 威脅하는 北으로부터의 敵對 路線이 그대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南北關係가 制度的으로 改善되지 않는

條件에서 우리側이 만일의 不幸한 事態를 豫防하고 우리의 生存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決意를 보여주는 한편, 適切한 自衛態勢를 講究해 나가는 것은 당연하며 그 누구도 이를 나무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南北韓이 서로를 信賴함으로써 雙方의 軍事訓練이 終局的으로 無意味하게 될 정도의 참다운 平和定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全斗煥大統領께서 지난 1月 16日 行하신 今年度 國政演說에서 南北關係에 관해 言及하시고 『既存의 對話를 持續해 나감은 勿論 北韓側의 眞實한 姿勢가 保障되는 한 어떤 分野를 莫論하고 對話의 章을 기꺼이 열어 나갈 것』이라고 宣言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現實主義的 觀點에서 南北關係를 냉철히 바라본다면, 大規模 軍事訓練을 비롯하여 雙方間의 懸案問題들은 그 自體가 모두 協商의 對象이 될지언정 對話의 前提條件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本人은 생각합니다.

現存하는 南北間의 緊張과 相互不信關係는 軍事演習이 原因이 되어 造成된 것이기보다 다른 原因, 卽 北韓의 赤化統一路線과 도발적인 軍事路線等等 때문에 우리側으로서는 結果적으로 그에 對備하는 軍事演習이 必要하게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事理를 가린다면 이러한 防衛目的의 大規模 軍事演習을 不可避하게 만든 그 根本原因과 그에 聯關된 問題들을 解消하는 努力이 必要할 것이며, 南北會談은 바로 이러한 目的에 寄與할 수 있는 平和的인 手段으로 十分 活用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작금의 北韓側 態度는 모처럼 무르익어가는 對話의 분위기를 고의로 흐트리게 하며 새로운 緊張과 不信을 조장하는 處事로서 심히 유감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本人은 1983年度의 그 엄청난 「량군事件」에도 不拘하고 平和에 대한 온

겨레의 간절한 念願을 받들어 새로운 南北對話의 契機를 마련하게 된 우리側의 아량과 誠意있는 努力에 대하여 北韓側은 한번쯤 가슴속 깊이 느끼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53年 7月 27日 板門店에서 드디어 署名된 韓國休戰協定の 協商過程을 보아도 共產側이 休戰交渉을 提議한 이후 大小 500여회의 會議가 開催된 바 있고, 休戰協定이 서명되는 數日前까지도 戰線에서는 치열한 戰鬥가 계속되었던 事實을 省察할 때 南北韓間에 어떤 問題나 意見에 差異가 있다고 해서 이미 合意된 結果를 外面하고, 一方的인 決定으로 會談을 中斷한다는 姿勢는 問題를 解決하겠다는 確固한 意志와 誠意가 없다는 것을 代辯하는 處事이며, 今年 봄에 豫定된 經濟會談, 赤十字會談, 그리고 國會會談 豫備接觸 中斷에서 금번 나타난 北韓의 對話姿勢는 하루빨리 是正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本人은 이 機會에 北韓側이 지난 70年代처럼 우리의 對話 앞에 不必要한 障礙를 造成하려는 行動을 더이상 되풀이 하지 말고 合意된 날 짜에 會談場에 나와 보다 誠實한 姿勢로 對話에 臨해 주기를 促求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本人은 오늘의 이 모임이 最近에 造成된 主·客觀的 情勢를 正確히 評價한 基礎위에 南北關係와 統一問題의 現實的 座標를 提示함으로써 當院의 政策研究와 바람직한 國論統一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期待하면서 여러분들의 積極的인 參與와 協調를 부탁드립니다.

感謝합니다.

1986年 1月 30日

國土統一院長官 朴 東 鎮

3. 第 1 主題：南北對話의 中間評價

- 主 題 發 表 : 安 秉 俊 (延世大 教授)
- 司 會 및 討 論 : 李 相 禹 (西江大 教授)
- 討 論 : 姜 在 倫 (東國大 教授)
- 鄭 洪 鎮 (松 苑 장 학 회
理 事 長)
- 宋 榮 大 (赤 十 字 會 談
代 表)

3. 第 1 主題：南北對話의 中間評價

一. 南北協商時代의 序幕?

1985 年度의 南北韓間에는 과거 어느때보다도 많은 對話와 接觸이 있었다. 차제에 이때까지의 對話經驗에 대한 中間評價를 해 보고 이번 對話의 배경, 경과, 그동안 兩側이 추구했던 目的과 戰略 및 對話 結果 그리고 그 問題點 및 展望을 한번 심사숙고해 볼 必要가 있다.

1984 年末에 시작된 이번의 南北對話는 적어도 그 외형적인 면에서 南北 協商時代의 序幕이 열리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지금까지 다섯차례의 經濟會談, 세차례의 적십자회담, 고향방문 및 예술단을 위한 세차례의 赤十字 實務接觸, 두차례의 國會會談豫備接觸, 그리고 두차례의 體育會談이 있었다.

여기서 나타난 北韓의 態度는 종전의 것보다 자못 다른면이 있었고 대화의 통로 자체도 多邊化했으며 歷史上 처음으로 실질적인 결과도 산출되었다. 이러한 대화의 第一段階를 마무리짓는 이때 南北兩側은 보다 現實적인 시각에서 앞으로의 協商에 대처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성격의 대화를 분석하는데는 보다 概觀적인 考察을 해 볼 必要가 있다. 이 글에서 하나의 일관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곧 1985 年度의 南北對話는 韓半島에서 새로운 南北協商時代가 지속할 것인지 혹은 과거의 斷絶經驗을 답습할 것인지 하는 전환점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1986 年初 現在의 狀況에서 판단할 때 北韓은 당분간 對話 그 자체는 계속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는 내지 않을 것 같이 보인다.

이렇게 극히 일반적인 명제를 염두에 두고 現行 대화에 대하여 몇가지 특색을 다음과 같이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1985 年度の 南北對話는 國際環境, 北韓의 內情 및 韓國의 內情이 자극하여 始作되었다고 하겠다. 「랑軍事態」로 말미암아 실추된 국제적인 위신을 만회하려고 努力하고 있을 때 北韓은 이른바 「三者會談」을 제안했다. 그러나 韓國과 美國은 이에 단호한 거부를 나타냈다. 이때 中共은 北韓에게 南北對話의 必要性을 강조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狀況에서 韓國이 1984 年 9 월에 北韓이 제시했던 수재물자를 받아들인 것이 계기가 되어 적십자실무접촉이 개시되었고 마침내 北韓側은 韓國側이 제안했던 경제 및 적십자회담에 應하여 이번 對話가 本格化되었다.

北韓은 美國 및 日本과의 接觸 및 交流를 위해서도 韓國과 대화가 必要했다. 더우기 경제회담을 받아들인 데는 北韓內에 어려운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것이 必要했다. 동시에 金正日은 對南政策에서 「통이 큰」 업적을 넘으로써 權力的 승계에 보탬이 되려고 努力했을 것이다. 한편, 韓國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新民黨이 제 1 야당으로 크게 浮上한 뒤 北韓側이 國會會談을 요구한 것은 韓國內의 政治情勢를 이용하려는 속셈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또 IOC 가 주관하는 體育會談에 應한 것은 국제여론을 의식하여 취해진 행동이다.

둘째, 現行 對話는 多邊化하고 있는데, 韓國은 경제 및 적십자회담을 중시하면서 거기서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려고 하는데 반하여 北韓은 국회 및 體育會談을 중시하면서 거기서 自己側이 韓國側보다 더욱 統一 指向的이라는 정치선전을 기도하고 있다. 韓國은 가능한 限 北韓의 제안을 수용하여 實質問題解決을 기도하고 있는데 反하여 北韓은 「防禦的 統一戰線」을 시도하고 있다.

세째, 兩側이 다 회담 그 자체는 계속하려고 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

다. 北側은 對話를 통하여 종전에 일관되게 추구해 왔던 미군철수, 「三者會談」, 西方과의 經濟交流 및 金正日에 의한 권력승계의 正統化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韓國은 對話를 통하여 다소 緊張을 緩和하며 戰爭을 抑止하고 信賴를 回復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그렇게 함으로써 現 政治體制에 對한 지지와 正統性을 증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南北對話는 종전의 것과 다른 면을 보이고 있다. 우선 그 빈도가 많고, 작으나마 성과를 보였으며 兩側이 어느 정도로 상호간에 適應하므로써 對話의 형식에 있어서는 서로 수용하여 그 자체의 타성을 발전시켰다. 무엇보다도 특기할 일은 國民들이 北韓에 對하여 보다 正確한 인식을 갖게 되었고 北韓代表團에 대하여 의견한 자세를 보여 주었다.

네째, 앞으로 對話가 바람직한 성과를 가져올 것인지는 北韓의 態度에 달렸다. 구체적으로 北韓이 對話를 함으로써 利益을 본다고 인식할 때 실질적인 성과를 낼 것이다. 그러나 現狀況에서 北韓은 基本戰略은 바꾸지 않고 전술만 다소 유연하게 採擇하고 있다.

窮極的으로 現在의 不安定한 對話狀態를 克服하고 보다 지속적으로 제도화한 南北對話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兩側間에 고위급의 정치적 타협이 성공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1985 年度의 南北對話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정치협상 (頂上會談을 包含한)에 대한 예비적이며 탐색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接觸 및 會談을 통하여 兩側은 상대방의 입장과 態度에 대하여 더욱 現實的인 이해를 가질 수 있었다는 데 그 意義가 있다.

二. 對話의 背景과 主要爭點

금번의 對話는 세번째 성립되었고 1984年 10 月の 수재물자인수에서 비롯했다. 그 主爭點은 兩側의 立場에서 분명해지고 있다. 韓國側이 物資交流와 통신재개, 종전에 합의되었던 5개항에 걸친 적십자회담의 의제에 根據하여 이산가족의 재회 및 재결합, 국회회담에서는 統一憲法制定을 위한 기구와 統一基盤造成에 必要한 사항, 그리고 體育會談에서는 北韓地域에서의 몇가지 종목의 예선을 주장했다. 이에 對하여 北側은 「經濟協力」과 「經濟協調共同委員會」 구성을 우선적으로 강조했고, 적십자회담에서는 「自由來往」이 모든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핵심이라 주장했으며, 국회회담에서는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 문제를 협의하며 體育會談에서는 올림픽을 南北韓이 동등하게 공동주최하자고 우기고 있다. 이 양입장을 비교할 때 韓國側은 아직도 機能主義 또는 實用主義的인 特徵을 보이고 있으며 北側은 包括主義 또는 政治的인 色彩를 짙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돌이켜 보건대 南北間에는 지금까지 세차례의 對話가 실시되었다. 그 첫번의 것은 1971 ~ 75 年에 실현되었던 美·中共 和解가 자극하여 韓國이 主導하여 성립되었다. 이 때도 赤十字會談이 먼저 시작되었고 그 뒤에 南北調節委員會가 구성되어 정치적인 협상이 이루어져 對話의 基調를 결정했던 것이다. 赤十字會談은 7次에 걸쳐 열렸던 이때 兩側은 5개항의 의제에 합의했다. 이 5개항은 곧 (1) 南北間에 흩어져 있는 이산가족들의 주소와 생사를 確認하는 것, (2) 그들간의 자유로운 訪問과 상봉을 실현하는 문제, (3) 그들간의 서신거래를 실현하는 것, (4) 그들간의 재결합을 마련하는 것,

(5) 기타 인도적인 문제 등이다.

한편 정치협상은 이른바 「7.4 南北共同聲明」을 조인케 했다. 바로 이 문서에 自主, 平和統一, 民族大團結이란 三大原則이 包含되었고 南北韓은 外세의 干涉없이 통일을 성취하여 서로 비방하지 않기로 약속했던 것이다. 그러나 韓國에서 1972年 10月에 「維新體制」가 確立된 뒤에 北韓은 이 第1次 對話를 점차 중단하고 말았다.

두번째의 對話는 1979~80年에 재개되었는데 이때는 우리 體制內的 政治變化가 동기가 되었다. 특히 朴大統領이 시해된 뒤에 北韓은 갑자기 南北間에 총리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우리側이 應하여 1980年에 第10次에 걸쳐 실무접촉이 관문점에서 있었다. 그러나 同年 8月の 全斗煥將軍이 大韓民國大統領에 당선되자 北韓은 이 접촉마저 일방적으로 중단해 버렸던 것이다.

한편 그해 10月에 北韓의 第6次勞動黨大會에서 金日成은 이른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란 것을 제안했다. 그후 北韓은 이것을 통한 통일이 실현되기 위하여는 미군철수, 韓國政府의 「民主化」 및 反共法律의 撤廢와 같은 전제조건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그러지 않을 경우 韓國과 대화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北韓은 1981年1月 및 6月에 全大統領이 제안했던 南北最高責任者의 상호방문 또는 회담을 거절했고 1982年 1月에 제시했던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도 외면해 왔던 것이다.¹⁾ 그러던중

1) 南北韓의 統一政策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Byung-joon Ahn, "Unification of Korea : Reality and Policy,"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1, no.1(March 1982), pp.71 - 88 參照

1983年10月の「랑군만행」을 前後하여 北韓은 이른바 「三者會談」을 제안했으며 이 案은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1984年の 여름부터 나타났던 몇가지 다행스러운 사건이 제3차의 대화를 可能케 했다. 同年 8月の 한 기자회견에서 全大統領은 北韓의 경제난을 감안하여 무상원조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그 다음달에 韓國에는 심한 폭우가 내려 많은 이재민이 생겼는데 北韓은 이들에게 쌀, 세멘트, 의류 및 약품등 수재물자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것을 韓國이 받아들여기로 했으니 그 인도를 위하여 南北赤十字代表가 접촉하여 실무를 협의했고 歷史上 처음으로 南北間에 물자교환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계기로 韓國은 南北經濟會談의 開催와 赤十字會談의 재개를 요구했던 것이다. 이 결과 최초의 경제회담이 同年 11월에 개최되었고 第8次 赤十字會談을 1985年1월에 서울에서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北韓은 11월에 소련시민 한명이 판문점에서 越南했을 때 생겼던 총격사건을 빙자하여 회담을 연기했고 1985年1月에는 「팀·스피리트」를 빙자하여 또 한번 회담을 연기했다가 5월에야 경제회담 및 적십자회담의 재개에 應했던 것이다.

1985年 2月の 國會議員選舉가 끝난 뒤 4월에 北韓은 상기 경제 및 적십자회담이 재개되기도 전에 南北國會會談을 갖자고 제안했다. 한편 韓國과의 협상은 외면해 오다가 IOC가 주관한 體育會談에 대하여 北韓은 肯定的인 反應을 보여 10월에 「로잔느」에서 體育會談이 열렸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4개의 對話가 성립했는데 경제 및 적십자회담에서는 共同利益의 영역에 약간의 합의가 이루어 졌으나 國會 및 體育會談에서는 심각한 異見이 노출되고 있다. 이제 각 회담의 경과

에 대하여 簡略히 살펴 보자.

1. 經濟會談 : 「경제협력」 對 物자교류

1984年11월에 시작된 이 회담은 1985年 5月, 6月, 9月 및 11월에 걸쳐 다섯차례 열렸는데 경제교류를 목적으로 南北韓政府의 次官級이 對坐한데 큰 의의가 있다. 여기서 北側은 처음에는 「경제합작」을 강조하다가 그 다음에는 「經濟協力」으로 改名했고 부총리급의 경제협조공동위원회 구성을 주장하여 실제로는 정치적인 협상을 기도해 왔다. 이와 대조적으로 처음부터 韓國側은 물자교류와 통신개통을 통한 경제교류 및 협력을 강조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하여 北側의 주장도 「先制讓步」를 통하여 대부분 수용해 왔다. 이렇게 되자 北側은 第1次會談에서 교류가 可能하다고 했던 공통품목이나 京義線開通을 회피하면서 공동위원회에 대한 合意書를 실무접촉으로 넘기자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

이것은 사실상 경제교류의 실현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지연시키는데 불과하다. 그 이유는 교류가 갖고 올 「機會費用」에 대하여 자신이 없으며 교류가 실현될 때 자기들의 열세가 명백해 질 뿐 아니라 韓國의 對中共 및 對其他共產國家 交易이 활성화될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北韓이 원하는 國會會談이 成事되기 전에 경제회담에서 성과를 내면 그것은 韓國側에 有利하게 된다고 그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第3次會談에서 韓國側이 北側의 제안을 大幅 수용한 合意書를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1年동안 끈 뒤에도 北韓은 아무런 合意도 하지 않고 있다.

第1次會談에서 兩側은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였다. 韓國側이 물자교류를 선행시키고 그 다음에 경제협력도 可能하다고 했

을 때 北側은 이 두과제를 함께 토의하기를 원하면서 공동어로 및 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兩側은 무연탄, 철강, 섬유류, 곡물 및 어류 등의 품목이 교환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을 뿐 아니라 京義線의 개통이 必要하다는 것도 인정했다. 따라서 이 최초의 만남은 국내외에 자못 커다란 기대를 자아냈다.

그러나 第2次會談에서 이러한 기대는 부서지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北側의 態度가 돌변 한데서 비롯했다. 第1次會談의 정신에 부응하여 韓國側은 이때 北韓에서 豊富한 무연탄 30萬屯을 즉시 사겠으며 동시에 京義線의 復舊를 위하여 실무접촉을 가질 것과 물자교역을 위하여 韓國은 인천과 포항을, 北韓은 남포와 원산을 개항하자고 제의했다. 이것을 北側은 모두 외면하고 그대신 「南北經濟協調共同委員會」를 부총리급에서 구성할 것을 제의했다. 이 결과 두시간 동안의 회담은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第3次會談은 韓國國會가 예비접촉을 갖자는 서신을 보냈고 第9次 赤十字會談이 서울에서 열린 뒤 개최되었다. 여기서 韓國側은 北側의 기대와 달리 「南北間 物資交易 및 經濟協力推進과 南北經濟協力共同委員會 設置에 관한 合意書(案)」을 제시했던 것이다. 이에 北側은 당황한 나머지 「北南經濟協調共同委員會 구성에 관한 合意書」를 제의했을 뿐 기초발언문을 도중에 끝냈다. 그러던 중 밖에서 들어온 「메모」를 보고 부총리급의 공동위 설치에 대하여 原則적인 동의를 표시했다. 그러나 무연탄 구매와 京義線復舊問題는 共同委員會가 구성되면 그 분과위원회에서 토의하자고 하면서 구체적인 합의를 여전히 회피했던 것이다.

第4次會談에서 韓國側은 상기 합의서안을 더욱 구체화했고 이에 따라 거래,

결제 방법 및 분과위원회의 數 등에 대하여 의견을 좁히자고 促求했다. 北側은 이러한 사항은 실무접촉에 넘기자고 했으며 韓國側이 제안했던 무연탄과 철강재간의 바터交流도 회피했고 심지어 京義線連結과 같은 것은 『남북간의 냉엄한 현실이 그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까지 말했다. 분명히 그들은 회담을 지연시키고 있었고 구체적인 합의를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었다.

경제회담이 개시된지 꼭 1년이 된 11월에 개최되었던 第5次會談에서 韓國側은 合意書 名稱, 事業推進原則, 對象品目, 去來方式 및 결제은행, 經濟協力對象, 共同委員會機能 및 分科委員會 數 등 7개항에 대한 의견조정을 시도했다. 이에 대하여 北側은 名稱에서 경제협력을 상품교역 앞에 명시할 것과 합의서에다가 統一3原則을 第1條에 명시할 것, 交流品目은 명시하지 말 것, 문서에 국호나 위임사항을 쓰지 말 것 등을 내세웠다. 이러한 異見을 좁히기 위하여 오후 회담을 하자고 韓國側의 제의도 그들은 거부했고, 12月中에 第6次會談을 하자고 하자 그들은 1986年1月22일에 하자고 했던 것이다.

以上에서 北韓은 5차의 회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지연해 왔고 국회회담에 비접촉과 「팀·스피리트」를 의식하여 정치적인 입장을 경제회담에 투사해 왔던 것이다. 즉, 政治協商에 앞서 경제교류의 성사를 그들은 원치 않는 것이다.

2. 赤十字會談 : 5個項 對 「自由來往」

1985年5월에 第8次會談이 서울에서 열렸고 그뒤 第9次會談은 8월에 平壤에서, 第10次會談은 12월에서 다시 서울에서 열렸다. 第8次會談

에서부터 韓國側은 1970年代에 이미 합의한 바 있는 의제 5개항을 토대로 이산가족의 재회를 실현시키는데 역점을 두어 왔는데 北側은 「自由來往」이 「중핵적」이고 「선결적」으로 실시되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기타회담과는 달리 第8次會談에서 兩側은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의 교환에 합의하여 이것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第9次會談부터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다만 兩側이 내놓은 합의서의 형식에는 약간의 상호 적응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12年만에 재개되었던 第8次會談을 위하여 84名の 北韓代表, 자문위원, 수행원 및 기자들이 서울에 왔다. 이때 韓國側은 의제 5개항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했으며 8.15 까지 이미 합의한 南北赤十字共同委와 板門店共同事業所를 발족하자고 했다. 동시에 해방 40주년을 記念하기 위하여 이산가족고향방문단을 상호 교환할 것도 제의했다. 北側은 5개항을 一括討議하여 「自由來往」문제를 우선 토의할 것과 100명정도의 가무단을 교환하자고 했다. 韓國側은 만약 「自由來往」이 종래 그들이 주장했던 「條件環境論」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原則적으로 그것을 5개항 실현의 한 방도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一括討議도 許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아가서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단교환을 하나의 행사로 하여 兩側의 利益을 함께 묶어서 실현하는데 과감한 동의를 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행사의 절차를 論議하기 위하여 3차에 걸쳐 실무자접촉이 있었다. 1985年 7月 15日에 있었던 第1次接觸에서 韓國側은 고향방문단 300명, 예술공연단 100명, 기자 및 수행원을 포함한 150여명으로 구성하되 그들이 직접 고향까지 방문할 것을 제안했다. 北韓은 고향방문단 300명, 예술단 300명, 기타인원 100명으로 구성할 것과 오로지 서울과 평양만 방

문할 것을 제안했다. 第2次接觸이 7月19日에 열렸는데 이때 北側은 방문지는 서울과 평양에 限할 것을 완강히 고집했고 韓國側이 방문단의 規模에 신축성을 보였으나 자기측의 안에 동의하면 連絡을 하라고 한 뒤 회의를 마쳤다. 마침내 韓國側이 방문지에 대해서는 北側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여 第3次接觸이 8월에 실현되어 책임자 1명, 고향방문단 50명, 예술단 50명, 기자 30명, 지원인원 20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9월에 3泊4日을 서울과 평양에서 지내기로 합의했다. 第9次赤十字會談이 8월에 평양에서 열린뒤 兩側은 각각 151명으로 구성된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이 상호방문을 실시했고 그중 65명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가족들을 상봉했다. 동시에 예술단이 양 수도에서 공연을 했으니 이 두 행사야말로 가장 두드러진 성과가 아닐 수 없었다.

한편 第9次赤十字本會談이 열렸을 때 韓國側 代表들이 12年만에 평양을 방문하게 되었다. 第1日會議에서 韓國側은 「議題5個項事業實施에 관한 基本合意書」, 「赤十字共同委員會 및 板門店共同事業所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 및 「自由往來節次에 관한 合意書」를 제시했고 조속한 시일내에 회담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北側은 「自由往來」를 의제 실현의 「中核的」이며 「包括的」인 방도라고 하면서 이것이 우선적으로 실현될 것을 주장했다. 여기서 흥미있는 사실은 서신거래를 規定한 第3項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며 「自由來往」문제는 1986年9月 以前에 토의를 종결하고자 北側이 제안했던 것이다.

1985年8月27日 오후에 韓國側 代表團은 모란봉경기장에서 「빛나는 朝鮮」이라는 「무용체조」를 관람했는데 여기서는 10만 관중과 5만의 중고생들이 연출했다. 처음에는 抗日鬪爭을 묘사한 군사훈련을 보여 주다가

1945年以後의 묘사에는 金日成과 北韓體制를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이 나타났다. 이에 참다 못해 韓國側代表團은 퇴장하고 말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第2日 會議에서는 北側은 韓國側을 비난하는데 전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서도 第10次 會談日字를 결정짓는데는 동의를 했으니 회담의 실질적인 진전은 하지 않으나 회담 그 자체는 계속할 의사를 보였다.

第10次 會談이 서울에서 속개 되었을때 韓國側은 위에서 지적한 3개 합의서를 더욱 구체화하여 내놓았고 旧正을 기하여 고향방문단 교환을 재 추진할 것과 1차 고향방문단의 교환시 상봉했던 가족들이 서신을 교환할 것을 제안했다. 北側은 「북과 남으로 갈라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내왕에 관한 합의서」와 「자유내왕 이외의 기타방도에 대한 제안」을 내놓았고 적십자대표단의 서울·평양 왕래시 비행기 이용을 다시 요구했다. 여기서 北側은 연령상 및 신체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자유왕래를 못할 경우 그들은 「기타방도」에 의하여 서신거래 등을 통해서만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韓國側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에 상응하겠금 형식을 갖추려고 노력했다. 다만 5個項을 자유왕래속에 집어 넣었고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될수 있는 것을 동일한 사람이 사정에 따라 자유왕래도 할수 있고 기타방도도 사용할 수 있는 모순을 노정했다. 뿐만 아니라 기구설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그러면서 새롭게 「친우」도 기타방도의 적십자사업의 대상에 넣었던 것이 이채로웠다.

以上과 같이 北韓은 「자유내왕」을 일관성 있게 밀고 있다. 그 이유는 이것을 통하여 「분단과 대결」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

서이다. 그렇게 하여 그들이 韓國側보다 더욱 統一指向的이며 統一만이 진실로 인도주의적인 과업이라는 인상을 투영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고향방문단의 실시를 거부했고 심지어 방문단이 자기고향을 못 가게 한 것은 분명히 自由往來를 부정한 것이었다. 따라서 赤十字會談에서도 北韓은 정치적인 선전을 주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실질적인 이산가족재회는 가능한 限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3. 國會會談을 위한 예비접촉 : 「통일헌법」 對 불가침 선언

1985年4월에 北韓의 「최고인민회의」는 南北間에 국회회담을 열어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을 발표하는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韓國國會가 응하여 7月和 9월에 예비접촉이 두번 이루어졌는데 韓國側은 國會의 立法機能에 알맞게끔 統一憲法制定을 위한 기구구성문제를 토의하자고 응수했다. 이처럼 양자간에는 根本的인 견해차이가 있으므로 쉽게 본회담이 성립될 수 없는 실정이다.

제 1차 접촉에서 양쪽의 입장이 분명해졌다. 韓國側은 국회회담이 不可侵宣言과 같은 戰爭과 平和問題를 다루기 보다는 實權과 責任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당국이 그것을 토의하여 협정이나 조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뒤 國會가 그것을 비준동의해야 한다는 原則을 강조했다. 그대신 國會會談에서는 南北韓이 통일하는데 必要的인 統一憲法制定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에 따른 제반문제와 기타 통일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토의하자고 제안했다. 北側은 南北間에 不信과 對決을 해소하고 戰爭을 막기 위하여 국회회담에서는 雙方이 不可侵의 필요성과 의의를 인정하고 雙方當局間에 不可侵宣言의 採擇을 일임하고 이에 따라 雙方當局者 會談에서는 구체적으로 不可侵宣言을 採擇하는 문제를 토의하게 하자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측은 상이한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국회회담의 형식, 代表團의 數, 場所 및 보도절차등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를 보았다. 다만, 가장 합의하기 어려운 것이 의제의 결정이었다. 第1次會談에서 北側은 不可侵宣言을 우선적으로 토의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韓國側이 제안했던 統一憲法制定을 위한 협의기구구성문제도 의제의 하나로 할 것을 수락했다. 동시에 第2次 豫備接觸부터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하자고 제의하여 역시 정치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고 努力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第2次接觸에서도 의제에 대한 異見이 계속되었다. 韓國側은 「統一憲法을 起草하기 위한 機構를 構成하는 問題와 이에 따른 統一基盤造成에 必要한 事項」을 계속 주장했다. 北側은 「不可侵宣言의 共同發表와 統一憲法을 制定하기 위한 協議機構構成問題」를 고집하다가 나중에 그것을 약간 수정하여 「北과 南사이에 緊張狀態를 緩和하며 祖國統一을 促進시킬 데 대하여」로 하자고 수정제안을 했다. 이처럼 北側은 韓國側의 제안을 수용하는 듯 보이는 態度를 나타내서 일단 국회회담을 成事시킨 뒤 실제로는 不可侵宣言을 거론하겠으며 만약 회담이 실현되지 않을 때는 그 責任을 韓國側에 전가시키려는 的의를 보였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北側의 次席代表가 「不可侵問題를 다루어야 外勢를 배격할 수 있다」는 말을 하여 사실상 미군철수와 「三者會談」을 위한 선전을 기도하고 있음을 폭로해 주었다. 이 접촉에서 北側은 10월에 第3次接觸을 갖기를 원했으나 韓國側은 國會本會議를 치러야 하므로 추후에 전화로 협의하자고 했다.

이와같이 의제에 대하여 양측이 양보하지 않는 한 國會會談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다. 사실상 1980年代 初부터 韓國은 南北當局間에 不可侵協

定을 협상할 것을 계속 주장해 왔다. 이것을 외면하면서 갑자기 北韓이 國會會談을 열어 不可侵宣言을 토의하자고 한 것은 궁극적으로 美國으로 하여금 군대를 철수케하고 反美感情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다. 이 사실을 잘 把握하고 있는 韓國側이 그런 것을 許容할 수 없을 것이므로 國會會談이 조속히 실현될 可能性은 불투명하다고 하겠다.

4. 體育會談 : 「單一팀구성」 對 올림픽共同開催

1985年10月 「로잔느」에서 IOC 주최로 南北韓의 體育代表가 참가한 회의가 열렸다. 嚴密한 의미에서 이것은 南北體育會談이 아니라 IOC가 중재하는 국제 회의다. 왜냐하면 「사마란치」 IOC 위원장의 주재하에 南北代表가 기조발언을 한 뒤 그가 南北代表를 따로 만나서 협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韓國側은 서울올림픽의 개최를 計劃대로 진행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北韓은 韓國과 單一팀을 구성하여 여기에 參加할 것을 주장해 왔다. 北韓은 올림픽을 南北間에 半半씩 나누어 공동주최하자는 것을 고집하고 있다.

명분상 北韓은 서울올림픽은 민족분열을 조장한다는 論理를 전개하고 있으나 사실상 그것을 저지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제 蘇聯을 포함한 共產國家들도 參加할 준비를 하고 있으므로 名稱이라도 「서울·평양올림픽」이라 한다면 그렇지 못하다면 마라톤과 같은 중요 게임을 北韓에서 해결 것을 원하고 있는 듯 보인다. 韓國은 北韓이 서울올림픽을 결정한 IOC의 권위와 절차를 전적으로 인정한다면 몇개의 게임에 한하여 그

예선은 北韓에서 할 수 있다는 여유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第2次會談이 1986年 1月初에 열렸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승意도 이루지 못하고 IOC는 第3次會談을 6월에 재개하는데 합의했을 뿐이다.

이와같이 國會會談 및 體育會談에서 北韓側은 정치공세를 펴고 있지만 그들의 목적이 실현될 可能性은 적다. 이 때문에 그들은 非政治的인 經濟 및 赤十字會談도 政治的인 目的으로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4個의 대화통로가 열리고 있지만 이들은 사실상 政治的인 협상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거기서 승意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심오한 不信과 利益相衡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별로 큰 진전 없이 빈도와 종류에 있어서 南北對話는 多邊化하고 있는 실정이다.

三. 評 價

지금까지의 南北對話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對話自體는 계속 될 것이지만 크나큰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양자는 상대방을 不信하고 있으며 상이한 목적과 이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北韓은 아직도 對南基本目的과 戰略을 바꾸지 않았으며 다만 그것을 추구하는 戰術과 스타일을 신축성있게 바꾸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정도의 變化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래에 공격적이었던 統一戰線을 방어적인 형태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 전략마저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할 때는 北韓도 더욱 더 주어진 現實에 적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視角에서 北韓이 아직도 對話를 통하여 美軍撤收, 「三者會談」 및 韓國政府의 弱化등을 피하고 있다²⁾ 방어적이거나 그러한 統一戰線을 포기하고 韓國을 있는 그대로 受容할 수 있을 때 南北韓 內에 참된 和解와 상부상존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현 상태의 대화는 적어도 형식면에서 南北協商時代의 서막을 열었다고 하겠다. 이에 대하여 강대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반응도 지지를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對話에서 볼 수 있었던 긍정적인 양상은 國民들이 自信感을 발현했다는 것이다.

2) 로동신문, 1986년 1월 1일

1. 防禦的 統一戰線 對 受容的 抑止

北韓의 對話戰略을 防禦的 統一戰線이라 한다면 韓國의 전략은 受容的 抑止라고 表現할 수 있을 것이다. 北韓은 지금까지 戰爭과 革命을 통하여 그 戰略目的 卽, 미군철수, 韓國體制의 전복 또는 약화, 국제적인 승인, 경제적인 번영 및 정치적인 正統性 등을 추구해 왔다. 이 목적을 추구하는 政治戰略이 곧 統一戰線인데 반대세력을 고립시키고 지지세력을 규합하여 그들과 「合作」해서 共產革命을 완수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이 효과적으로 抑止되자, 北韓은 더 이상 공개적으로 전쟁이나 혁명을 고취하지 않으면서 對話를 통하여 자기체제를 옹호하고 반대세력을 무마내지 약화하려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防禦的 統一戰線」이라고 여기서 부르는 것이다.

韓國은 그동안 北韓이 기도했던 戰爭과 革命의 성공을 효과적으로 억지해 왔다. 최근의 對話에서 韓國은 北韓側의 제안을 과감하게 受容하는 자세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北韓이 기도하는 목적은 對話를 통해서도 제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우리는 여기서 「受容的 抑止」라고 부르는 것이다.

北韓이 종전과 다소 다른 戰術과 스타일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군철수 및 「三者會談」을 성취하고 韓國을 美國의 식민지로 매도하여 韓·美 防衛協力을 약화하며 한편 국제사회에서는 中共, 日本 및 第三世界國家들에게 향상된 영상을 투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자기체제의 安保와 더불어 西方으로부터 자본, 무역 및 기술도입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개방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것은 北韓內에서 여러

려워지고 있는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취해진 정책 전환이다. 對話를 자기측이 주도하며 거기서 어떤 성과를 내어서 金正日로 하여금 위신과 지지를 획득케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은 北韓의 예술단방문을 성사시킨 데 잘 나타났다.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는 戰略에 있어서는 역시 北韓이 統一을 더 원한다는 선전을 저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질적 결과 보다는 명분을 중시하고 있다. 실질적인 진전을 내었을 때 거기서 올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하여 北韓側은 자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예컨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개방과 개혁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수반할 여파는 現北韓體制의 허구성을 탄로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그들은 現體制를 방어하면서 對話에서 韓國側의 반응을 탐색하고 있다.

이와같이 기본전략은 고수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스타일에는 다소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그들은 아주 유연하고 융통성있는 태도로 임하는 微笑作戰을 취하고 있다. 이제는 對話에서 전제조건을 내세우면서 韓國體制를 공격했던 과거의 행동을 고의로 피하고 있다. 경제회담에서 쌍방의 次官級이 수석대표로 對坐한 것 자체가 큰 변화이며 공식적으로 당국자 회담 및 고위급회담을 할 용의를 보이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자기측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때는 합의를 이루어 그것을 실시했다는 사실이다.

韓國은 對話에서 實質적인 결과를 중시하면서 신뢰회복조치를 성취함으로써 전쟁을 억지하고 긴장을 완화하려고 노력해 왔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경제 및 적십자회담에서 내놓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논리적인 토의를 강조했다. 이결과 선제양보를 서슴치 않고 해서 北韓의 제안중

에서도 실현가능한 것은 자신있게 受容해 왔던 것이다. 다만 축적적인 대화와 일관된 원칙을 고수할 뿐 아니라 北韓側이 간접적으로 기도하는 정치적인 목적은 확고하게 억지해 왔던 것이다.

이와같이 北韓의 방어적인 태도와 韓國의 受容적인 태도가 현행대화를 그대로 지속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2. 相互學習

비록 극적인 성과는 없다하더라도 對話의 빈도와 형식에 있어서 南北韓協商時代가 서서히 전개되고 있는 징조는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비교적 많은 접촉이 있었고 대체로 그 분위기도 정중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會談을 통하여 양측은 상대방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배웠고 그 會談의 진행방법과 절차에도 조금씩 상대방의 주장을 수용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와같은 현상은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교환에서 잘 나타났다. 이것은 각기 다른 이익을 한 묶음으로 만들어 처음으로 南北間에 가족들이 오가게 만든데 큰 의의가 있다. 北韓이 이것을 반복하는데 거부반응을 보였으나 그 상징적인 의의는 길이 남을 것이다. 南北兩側이 이에 合意를 이루었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했기에 하나의 전례로서 이 사건은 歷史的인 전기를 마련한 셈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그 여파는 지속될 것이다. 이 극적인 교환을 통하여 南北兩側은 신문과 텔레비전으로나마 상대측 사회를 직접 목격했던 것이다. 비록 지나친 비방과 비난 및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났지만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양사회가 얼마나 異質化했으며 不信의 심도가 얼마나 깊으며 政治體制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한

산 교육을 체험했던 것이다.

對話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양측은 對立을 보이면서 한편 상호적응하는 면도 보였다. 의례적인 행사나 의전절차는 엄격한 상호주의에 근거했지만 제안의 정립과 표현, 논리의 전개에 있어서도 일방은 상대방의 태도와 반응을 기대하면서 일을 하는 습관을 배우게 되었다. 이결과 各對話는 그 自體의 타당성과 논리를 다소 발전시키고 있다. 예컨대 赤十字會談에서 韓國側이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3個 合意書를 第9次會談에 내놓은 뒤 北側은 그 내용과 방법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서 第10次會談에서 3個의 제안을 내놓았던 것이다. 經濟會談에서는 사실상 양측의 의견이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 다만 그들이 타결을 위한 정치적인 결정만 내린다면 실질적인 성과는 쉽게 이루어질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4個의 대화통로를 통하여 南北韓은 상대방의 政治體制와 社會뿐만 아니라 사고방법과 스타일등에 대해서도 理解를 증대하고 있다. 이처럼 접촉이 반복되고 축적되면 스타일의 變化가 政策의 內容에도 어떤 變化를 가져올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양측이 立場을 달리하지만 그것을 서로 존중할 수 있다. 이때문에 對話通路가 곧 신뢰구축의 효율적인 도구가 된다.

3. 國際的 支持

南北韓은 對話를 통하여 자기입장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추구해 왔다. 이번에 對話가 재개되고 적은 규모의 성과를 내고 있는데 대하여 국제적 지지가 고조되고 있으며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韓國의 우방은 현재의 대화를 환영하며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美·日은 中·蘇에게 이러한 입장을 개진해 왔다. 中共도 人民日報에서 현대 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³⁾ 美·蘇頂上會談이 이루어진 뒤 蘇聯도 韓半島問題는 當事者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南北對話를 반대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北韓의 우방중 中共은 1983年부터 南北對話를 적극 증용해 왔다. 때로는 北韓보다도 더욱 더 적극성을 보이면서 中共은 긴장완화와 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⁴⁾ 北韓과 蘇聯間의 관계가 급속도로 호전되고 있는 이때 中共은 南北對話가 소련세력의 견제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다만, 對話가 큰 진전을 보이면 中共이 韓國과 직접 교역도 할 것이므로 北韓은 이것을 우려하고 있다. 日·蘇關係가 개선되면 蘇聯도 對話에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4. 國民의 自信感

이번 對話에서 國民들은 산 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라 北韓代表들과 예술단의 방문시 의연하고 자신감있는 태도를 보였다. 국민들의 대부분은 현실주의적인 자세로 對話에 대하여 지나친 기대를 갖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 北韓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인식이 적중했다고 보고 있다. 1970年代의 對話와 그뒤의 南北關係에서 얻은 교훈을 거울삼아 국민들은 그동안 많은 경험을 쌓아왔으므로 자신있는 태도로 임

3) 朝鮮日報, 1985年 12月 22日字

4) Tao Bingwei, "Observations in the Korean Situation," Beijing Review, September 23, 1985. p.18.

하고 있다.

과거 20년동안 韓國社會는 産業化를 경험했다. 이결과 이제 중산층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다. 적십자대표들의 방문과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교환시에 국민들은 스스로 비판할 것은 하고 또 긍정할 것은 하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일부 소수의 극한 인사들이 높은 소리로 감상적인 통일관을 개진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北韓과 경쟁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이고도 균형있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극소수의 이산가족들이 상봉했음에도 불구하고 즉흥적이거나 과민한 기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北韓의 實相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이해를 갖게 되었다. 이것이 아마도 1970年代初와 다른면이며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와같은 성격을 띄고 있는 이번 對話는 1980年代의 南北協商時代에 있어서 第一段階에 해당된다. 이 단계에서 양측은 탐색적인 자세로 다소 工作的이며 戰術的이며 弘報的인면을 중시했다. 그러면서 보다 政治的이며 戰略的인 선택이나 협상은 회피하면서 각자의 입장을 고수해 왔던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 정치적인 협상을 내포할지의 전환점에 처해 있는 것이다.

四. 問題와 展望

韓國의 입장에서 볼 때 南北協商時代에 당면한 도전은 對話와 戰爭抑止를 어떻게 조화하면서 國內政治를 安定, 制度化하느냐 하는 것이다. 北韓은 南韓內의 전쟁억지력과 정치안정이 확고부동하다고 인정할 때 파괴 및 분열기도를 버리고 성실성있게 對話에 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

어진 여건속에서 현실적으로 체계적인 戰略과 대응방법을 짜고 國內에서 정치적인 안정과 국민적인 승의를 성취해야 할 것이다.

첫째, 北韓은 韓國內에 統一戰線戰略에 도움될 요소가 상존한다고 인정할 때 그 體制의 성격상 계속 그것을 추구하려고 기도할 것이다. 따라서 韓國은 이러한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北韓과 일관성있는 대화를 수행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전쟁억지와 정치제도화를 동시에 실현하면서 北韓과도 긴장완화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南北韓關係는 군사대결과 정치대결을 겸한 갈등을 나타내어 왔다. 만약 전쟁만 억지할 수 있다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 관계는 어느 쪽이 正統性을 확보하느냐 하는 정치적인 경쟁으로 전환될 것이다.⁵⁾

지금의 대화는 이 전환의 와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쟁억지를 위해서는 韓國은 美國과의 안보협력과 전략조정을 원만히 유지해 나가야 한다. 정치경쟁을 위해서는 南北韓關係에 관한 한 초당적이고 거국적인 공동보조가 韓國內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외교적으로 對話를 하면서 北韓의 외교적 고립을 추구하는데는 무리가 있는 것도 문제이다. 예컨대 美·日 등이 北韓과 非公式적인 접촉과 交流를 해서 北韓을 文明社會로 끌어 들일려고 할 때 韓國은 그것을 저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때문에 韓國은 對話와 其他 北韓問題에 對하여 기탄없는 협의와 조정을 이루어 외교적인 유대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두가지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때 앞으로의 對話展望은

5) Byung-joon Ahn, "Prospects for North-South Korean Rel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2, no.2, (June 1983), pp.67-69.

그렇게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현상태의 대화가 본격적인 협상으로 전환하는 데는 양측간에 정치적인 타결이 필요할 것이다. 현존하는 4개의 통로가 지속하면 거기서도 점차 실질적인 합의와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지만 당분간은 교착상태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 상태를 넘어서 보다 대담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양측이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南北對話는 객관적인 국제 환경과 국내 상황의 영향도 받지만 주관적인 정치체제나 지도자의 개성 및 정책도 반영한다. 그러나 현단계에 있어서 대화가 진전하느냐는 역시 北韓의 태도여하에 달렸다고 하겠다. 北韓이 실제로 對話에서 얻는 것이 있다고 판단할 때 언제든지 합의에 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 경우 韓國도 줄 것이 있고 또 주는 선택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할 때 北韓의 요구를 受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장래의 南北對話에는 양측이 추구하는 이익이 일치할 때 비록 政治的인 對決속에서도 제한된 협상과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1985年度에 재개된 對話는 이러한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 선택과 대화태도 여하에 따라 南北協商時代는 점진적으로 制度化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목표를 지향하여 온갖 지혜와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對話에서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이해와 사고가 필요하다. 우리의 목적의식이 뚜렷해질 때 그것을 실현하는데 동원될 수단과 방법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결부시키는 전술적인 고려도 명확해진다. 우리는 第一段階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거울로 삼아서 장차의 대화에서는 더욱 알차고 실효있는 성과를 거두도록 많은 바 소임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司會：李相禹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렇게 가지가 많고 복잡한 會談을 要約해서 進行狀況도 整理를 잘 해주셨고 그에 대한 評價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이제 安教授님의 發表를 토대로 해서 다른 분들의 討論을 進行하려고 합니다.

進行順序에 따라서 우선 東國大學校에 계시는 姜在倫教授님부터 부탁드립니다. 討論者 한분에게 약 10분정도 配定해 드리겠습니다.

姜教授님을 紹介해 드립니다.

討論：姜在倫

저는 南北會談에 대해서 局外者로서 관찰해 온 것 밖에 없고 또 최근에는 新聞社에 있다가 大學에 옮기는 바람에 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大學에 있으면서 젊은 世代들에게 南北統一에 관한 教育을 시키면서 궁금했던 것, 느꼈던 것을 한데 모아가지고 몇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南北對話 第1期時代에는 新聞社에 있었지만 그때에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게도 7.4 共同聲明에 包含된 3大原則 自主, 平和統一, 民族大團結이라는 이러한 어휘를 南北이 어떻게 理解하느냐는 쟁점으로 時間을 보내다가 아무런 결실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南北對話에 있어서 좀더 研究가 필요하겠다... 저쪽에서 말하는 自主, 平和統一, 民族大團結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를 먼저 알고 對話를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은 第3期가 되겠습니까?

요새 가끔 新聞에 發表되는 것을 보니까 不可侵宣言이다, 3者會談이다 그밖에 高位會談 등등 우리가 過去에 힘을 주어 主張했던 이런 것들을 요즘 北韓側에서 매우 힘을 주어 主張하고 있는 것을 發見했습니다.

이러한 一連의 南北關係의 움직임을 보고 느낀 것은 雙方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쪽에서 말하는 不可侵宣言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며 우리가 過去에 不可侵協定을 提議했는데, 또 그후 카터大統領이 왔을 때 3者會談을 우리가 提議했는데 저쪽에서는 즉각 拒否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무엇이 다른가를 語彙論적으로 正確히 알아야 하겠고 저쪽의 提議에 나타난 여러가지 意圖들을 좀더 整理해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赤十字會談의 경우 自由來往이 最大의 爭點으로 되어 있는데 저쪽에는 自由來往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들의 自由來往은 우리하고는 意味가 다릅니다. 語彙에도 이렇게 큰 差異가 있습니다.

또 安教授께서 指摘하신대로 北側에서는 自己들에게 利益이 있을 때만이 對話에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國會會談에서 爭點이 되고 있는 問題에 대해서 한가지 言及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쪽에서는 不可侵宣言을 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여기에서는 統一憲法 制定을 위한 機構를 構成하자 이렇게 맞서 나가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에는 統一憲法 制定은 本段階고 그 豫備段階로서 南北韓基本關係를 設定하기 위한 暫定協定 같은 것이 前提되고 있다고 저는 記憶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正確하게 名稱을 記憶하고 있지 못하지만 南北韓基本關

係를 平和的인 關係, 共存關係로 確立하는 그러한 暫定的인 協定이 필요하다는 소위 豫備段階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統一憲法을 직통으로 저는 그 南北對話에서 너무 統一을 앞세우는 것을 저는 反對합니다. 당장 分斷을 安定시키는 것이 되고 있지 않는데 당장에 어떻게 統一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抽象論은 回避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統一憲法 制定을 위한 機構設置問題가 아니고 우리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에 분명히 明示되어 있는 問題들을 提示해서 國會會談에서 論하는 것이 좀 一貫性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司會

고맙습니다. 다음은 順序에 따라서 鄭洪鎮 先生님에게 부탁드립니다.

討論：鄭洪鎮

安先生님께서 전부 整理를 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添加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會談, 여러가지 會談이 現在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할 基本的인 問題들은 대개 어떤 것이겠는가를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0年代初에 72년에 共同聲明을 發表하고 調節委員會와 赤十字會談이 進行이 되었으나 1년이 지나서 73년에 와서 會談이 다 中斷이... 實質적으로 本會談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때에 北韓赤十字 代表團들이 서울에 오지 않겠다, 서울에서 會談을 못하겠다고 내세운 것이 이른바 「條件環境論」입니다. 말

하자면 『反共法이 있고 反共團體들이 反共 캠페인을 벌이는 서울은 會談雰
 圍氣가 좋지 않으니 못오겠다』 이러던 사람들이 작년에는 會談을 우리가
 提議하니 우리는 언제라도 會談을 하자는 立場이었고 北韓이 내내 會談을
 拒否해 오다가 작년에는 會談을 하자고 그러니 會談을 하자 그래서 會談
 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야기하던 「條件環境論」이 달라진 게 있느냐?
 역시 反共關係法은 73年 그때나 지금이나 꼭 같고 反共 캠페인을 벌이고 있
 는 것도 事實인데 그때에는 그것 때문에 못오겠다고 했다가 그래놓고 작
 년에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會談을 하자고 한 것을 보면 자기네들에
 게 어떤 變化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살펴 보아야 할 問題點으
 로 擡頭하였습니다. 그러던 北韓 사람들이 작년에 會談을 하자고 나왔으니
 까 그러면 대개 北韓을 研究하는 專門家들의 意見도 會談을 해보고 會談
 의 討議場에 들어가서 그네들이 내놓는 여러가지 主張을 보면 이들이 어
 떠한 變化를 73年보다는 10年이 지난 80年代에 와서 어떤 北韓의 變
 化가 있느냐 하는 것을 찾아 볼려고 무척 1年동안 注視를 해온 셈입니
 다. 지금 會談을 中間評價하는 立場에서 보면 그들의 主張에는 그때나 지
 금이나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것 같다, 단지 그네들의 옷을 입고 다니
 는 매너라든가 기타 여러가지는 많은 變化를 했더라, 또 平壤을 자기네들
 생각에는 많이 建設을 했는데 實際로 72年보다는 比較할 수 없을 정도
 로 建設이 된 셈입니다. 이러한 理由에서 보면 이제는 「條件環境論」을
 말도 하지 않고 實際로 서울에 와서 行動을 보여주고 우리代表團들이 平
 壤에 와서 보며는 「條件環境論」의 骨子が 反共法 廢止하고 反共캠페인 하
 지 말라는 건데 그것은 말로 할 問題가 아니고 오가면서 결국 우리나라
 안에 反共法을 타이트하게 適用하기가 어렵게 되고 우리 反共教育이 약간

은 잘못되어있다,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北韓觀을 어떻게든 실질적으로 변형을 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會談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요, 態度가 왜 變化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측은 지금은 훨씬 통이 커졌습니다.

70年代 初期는 처음으로 우리가 會談을 始作하면서 꼭 漸進적으로 段階적으로 후시 北韓에 속을 세라 조심 조심해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꼭 짜짜해 보일 정도로 조심스럽게 하나 하나 했는데요, 10년이 지난 80年代 와서는 예를 들면 그 당시는 頂上會談을 어느 水準에 있어서나 當局間의 會談으로 하자 이정도로 밖에 表現을 못하던 것을 80年代 와서는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을 과감히 提示함으로써 이제 頂上會談도 하자 이렇게 우리가 積極적으로 나오게 되니까 會談에 임하는 代表團의 姿勢는 통도 크고 積極적으로 나갈 수 있는 國內外的인 與件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赤十字 豫備會談 때 제가 그 당시 豫備會談 代表로 있었으나 다만 本會談의 議題 다섯가지를 만드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말하자면 自由往來는 안된다 우리가 家族을 찾는거지 저들은 親友까지 넣어와서 親友는 뽑아야 되는데 이런 걸로 옥신각신하다가 간신히 틀에 모아 넣은 것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부터 確認하고 차근차근 가자고 다섯가지를 몰아 넣어 왔던 건데 그것이 7.4 共同聲明 때문에 그때는 合意가 됐습니다. 이렇게 저놈들이 反對를 하다가 하루아침에 聲明이 나오니 그렇다면 자기들이 받겠다 해서 本會談이 成立이 됐으나 다만 그것을 지금와서 本會談 때 보면 自由往來만 계속 주장하고 다섯가지 議題의 틀을 지금 이제 벗겨져 버렸습니다. 이런 것은 그 당시 우리는 꼭 實務적으로 接近을 하려고 했던 우리의 與件이었고 이제는 北韓이 要求하는 것도 과감히 受容을 하면서 그

래도 못하겠느냐 이런 정도로 우리가 과감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펍 여러가지 與件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때 會談이나 지금 會談이나 주장에서 쭉 보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하나 實質的으로 할 수 있는 것을 提案을 하고 하나하나 만들어 보자고 하는 立場이고 結果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立場이고 저네들은 會談 自體의 具體的인 實行 할 수 있는 成果보다는 이런 이런 것을 한다고 떠들기만 함으로써 오는 附隨的인 效果를 노리는데 아직도 精神이 팔려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이야기는 항상 統一優先, 政治優位이고 自由往來를 하자 이러한 주장을 함으로써 오는 附隨的인 效果 그것이 결국 우리 內部로 말하자면 우리의 反共 態勢가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겠느냐 하는 結果를 가져오도록 애를 쓰고 對內的으로는 언젠가는 지금 이네들도 金日成으로부터 金正日로 權力을 옮기면서 對內的으로는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해서 언젠가는 會談을 해야 하겠다는 것을 내다 보는데 金日成이가 金正日이 困難해질 때의 어려움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 주어갔고 對內的인 衝擊을 줄여가면서 하겠다는 이러한 計算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態度는 아까도 말씀드릴지 마는 會談을 진실로 하나하나 合意를 해서 成功시키겠다는 北韓 內部的 準備는 안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70年代보다 態度나 매너는 펍 부드러워졌지만 그네들의 주장은 오히려 會談初期와 똑같은 政治的인 發言優先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會談을 中斷을 시켰는데요. 會談을 하고 안하고의 問題가 아니고 中斷되고 있는 사이에도 南北間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會談에 대한 態度는 계속 研究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中斷된 동안 이

사람들이 어떤 研究를 해서 다음 會談을 할 때에는 조금 우리의 主張에 자기네들의 內部的인 力量을 줄인다면… 內部的인 力量이라 함은 金日成이 權力基盤을 確立한 것은 이른바 南쪽을 統一한다, 統一政府를 만든다, 赤化 統一을 한다고 하는 명분하에 金日成의 權力構造가 形成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南朝鮮民族解放이죠. 解放鬪爭을 위해서 하는 政治的 슬로건을 갖고 자기의 權力構造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을 때 오는 자기 內部的 衝擊을 줄여야 하는 問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變化를 못할텐데요. 그러나 또 이제 몇달 中斷되었다가 中斷된 동안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속 研究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의 會談에 나와서 어떤 態度變化가 있느냐 우리의 原則은 始終一貫 똑같이 때문에 저들의 態度變化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條件環境論」을 내밀지 않으면서 사실상 그러한 效果가 나오도록 이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는 것 같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일은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는 통크게 自由往來도 반자 하는 정도로 과감하게 나갔는데 會談을 成立시키고 하나하나 南北間의 對話는 양쪽이 합해서 좋든 싫든 하나 創造를 해 나가는 歷史입니다. 이러한 歷史에서 우리가 과감히 나갈 경우에 國內 反共態勢와 어떤 矛盾이 있느냐, 會談을 하자 그러면서 反共教育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北韓하고는 저들이 아무리 敵이지만 民族統一이라고 하는 당장 統一이 아닙니다만 統一로 가는 과정에 하나하나 歷史를 創造해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代表團의 任務일텐데 이것을 創造하겠다고 해서 조금 양보를 많이 하는 것 같고… 反共教育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反論이 반드시 提起가 될텐데요. 이 問題

를 우리들이 하나 하나 創造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不可避하게 理解하고 넘어가야 할 점이다 하는 것을 조금 깊이 생각하시면 會談을 해 나가는 代表團이 本來 우리의 對北政策을 하나 하나 實現을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司會

고맙습니다. 세 번째 討論은 우리 宋榮大 代表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討論：宋榮大

먼저 오늘 主題發表해준 安秉俊 教授님은 學校에 계시는 立場임에도不拘하고 예리한 現實感覺을 가지시고 狀況을 分析해 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저 역시 南北韓關係나 對話를 中間評價하는데 있어서 基本認識을 安教授님과 거의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發表된 主題에 포함되지 않은 몇가지 內容을 追加하는 意味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赤十字會談 進行狀況을 보며는 基本爭點이 일곱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일곱가지는 赤十字會談 議題 5個項에 대한 그 一括討議 方式問題, 둘째는 自由往來에 대한 解釋上的 問題, 세째는 合意書 採擇問題, 그리고 네째는 우리가 提起한 第2의 故鄉訪問團을 實現시킬 것인가의 與否問題, 다섯째는 작년 9月 故鄉訪問團事業 때 家族을 만난 사람들 사이에 서신을 거래할 것인가의 與否問題, 그리고 여섯째는 雙方 代表團이 서울과 平壤을 往來할 때에 비행기를 利用할 것인가의 與否問題, 일곱째는 赤十字會

談에 親友를 포함시킬 것인가의 與否問題, 大略 이와같은 7個項의 爭點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基本 高리를 이루는 核心的인 爭點은 自由往來에 대한 解釋上的의 問題입니다.

우리는 작년 5月 서울에서 열렸던 8次會談 때에 自由往來問題를 두가지 觀點에서 受諾을 했습니다. 첫째는 北韓이 내놓은 自由往來問題는 우리나라의 反共態勢와는 關係가 없는 걸로 前提를 하고 받겠다. 둘째는 離散家族問題를 解決하는 여러가지 方法 가운데 하나다. 예컨대 議題 5個項을 解決하는 方法으로서는 文件交換方式 또는 書信去來方式 또는 板門店에서 상봉하는 方式 또는 自由往來方式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手段과 方法가운데 하나로써 우리가 自由往來를 受諾한다 라는 立場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北側은 自由往來가 離散家族問題 5個項을 解決하는데 있어서 基本的이고 中核的인 方途이기 때문에 선결적으로 解決해야 한다는 主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놓고 있는 自由往來의 內容 主張을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南北으로 往來하는 自由往來의 主體, 사람들은 離散家族 뿐만 아니라 거기에 親友를 포함시키자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南北韓에 離散家族이 千萬名이 있는데 千萬名 親友를 포함시킨다고 한다면 事實上 南北韓 全地域에 居住하고 있는 6千萬 겨레가 오고가는 結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6千萬 겨레가 오고가는데 自由往來의 方法에 있어서 陸路, 海路, 空路를 利用하자는 것입니다. 예컨대 陸路로는 板門店, 鐵原, 海路로는 元山, 釜山港 또 南浦港, 仁川港을 통해서 또 空路로는 順安비행장과 김포비행장을 통해서 하자 이런 主張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離散家族들이나 親友들이 自由往來 하는데 있어서 하

나의 原則이 있다, 그 原則은 뭐냐 하면 自由原則, 民主原則에 의해서 하자 좀 具體적으로 말씀드리자면 往來者들에 대한 人格을 尊重하자 또 往來者들에 대한 統制를 禁止하자, 또 往來者들에 대한 拘束을 禁止하자, 이런 세가지 原則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 말씀드린 北韓의 自由往來 主張은 우리가 外形적으로 볼 때에는 상당히 積極적인 主張 같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消極적인 面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第2의 故鄉訪問團을 하자고 主張한데 대해서 北韓이 拒否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離散家族 當事者가 자기의 故鄉까지 직접 가자고 한데 대해서 北韓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第2의 故鄉訪問團이나 故鄉까지 직접 가자고 하는 問題도 拒否하면서 自由往來를 하자고 하는 것은 앞뒤 矛盾입니다.

다음에 體育會談關係를 말씀드리자면 이 자리에 우리측 體育會談 首席代表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매우 송구스럽습니다만 그저 傳達하는 意味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대로 작년 10月 8日날 로잔느에서 第1次 體育會談이 열렸습니다. 第1次 로잔느會談때 雙方이 내놓은 提案을 보면 우리側은 대충 이러한 提案을 했습니다. 北韓으로 하여금 88서울올림픽에 參加하게 하기 위해서

첫째, 올림픽豫選競技의 세계 種目を 北韓 쪽에 配定할 用意가 있다. 예컨대 핸드볼, 排球, 蹴球를 配定할 用意가 있다.

두번째, 싸이클 道路競技에 있어서 北쪽 地域의 通過를 考慮할 用意가 있다. 가령 서울·開城間의 싸이클 道路競技도 할 수 있다.

세번째, 開會式과 閉會式에 雙方이 各其 自己 깃발아래 入場하자.

네째, 文化行事に 北韓側이 參與하는 것을 許容해 줄 수 있다.

이렇게까지 提案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北韓側은 어떤 主張을 했는가 하면 올림픽을 南北이 共同으로 主催하는 이름을 「朝鮮 平壤·서울올림픽」으로 하고 모든 競技는 서울과 平壤에서 50:50으로 分散 開催하자, 開會式과 閉會式은 서울과 平壤에서 각각 進行하자, 放映權 利益金도 나눠 갖자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이것은 北韓이 88올림픽에 여러가지 問題가 있는것 같이 國際社會에 이미지를 줌으로 해서 蘇聯을 비롯한 共產國家들로 하여금 不參하도록 하겠다는데 底意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지난 1月8日에 역시 로잔느에서 2次 體育會談이 열렸습니다. 이때도 우리측은 1次때와 同一한 主張과 提案을 했습니다. 그러나 北韓側은 1次때와는 조금 다른 態度를 보인 것 같습니다.

北韓側은 共同主催案 또는 50:50의 分散開催問題는 主張을 조금 덜하면서 그 대신에 南北이 單一팀을 構成하자, 文化行事を 서울·平壤에서 分散 開催하자는 등의 主張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北韓側代表가 IOC 사마란치 委員長을 個別面談하는 자리에서 올림픽의 豫選競技뿐만 아니라 決勝競技도 하나 둘 주면 좋겠다 하는 의향을 밝힌 듯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實現 不可能한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왜냐하면 IOC憲章 規定에 의하면 決勝競技는 開催地의 主競技場에서 開催한다는 規定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거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南北 體育會談에 관한 IOC의 立場은 어떤가 하면 IOC는 北韓이 主張하는 共同主催는 不可能하다, 있을 수 없다, 그리고 北韓이 내놓은 單一팀 構成問題는 南北韓 直接當事者間에 解決할 問題지 IOC가 개입할 問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安博士님 主題發表 末尾에 가서 우리側 對話目標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問題를 잠시 말씀드리고 끝내고자 합니다.

우리가 對話를 하는데는 基本目標가 3가지, 附隨目標가 한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南北韓間에 緊張을 緩和하고 戰爭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지금까지와 같은 非正常的인 南北韓關係를 正常化시켜서 正常軌道에 올려놓고 平和共存의 關係와 같이 制度化시킨다.

세번째는 마지막으로 民族의 再結合입니다.

이상의 基本目標外에 附隨目標가 하나 있는데 88 올림픽의 成功的 開催를 위해서는 南北對話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北韓이 政治的 不安 緊張狀態를 구실로 해서 88 올림픽을 妨害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側으로서는 對話를 통해서 그들의 妨害名分을 除去하는 것이 올림픽開催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司會

저도 司會지만 討論者로 되어있기 때문에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安教授님 論文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느끼셨겠지만 잘 정리되었음니다만 評價欄에 安教授께서 만드신 두가지 새로운 用語가 있는데 좀더 부연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北韓의 姿勢를 「防禦的 統一戰線」이라고 했는데 統一戰線과 防禦는 서로 연결이 잘 안되는 概念입니다. 그리고 우리측도 受容과 抑止를 써서 「受容的 抑止」라는 用語를 썼는데 이 점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제 見解를 한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中間評價이기 때문에 評價를 할려면 基準이 있어야 합니다. 그 基準을 잡기 위해서는 北韓의 會談目的을 推定해 보아야 하고 北韓이 어떤 條件下에서 會談할 것인가, 그 條件이 現在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면 展望이 나올 것입니다.

北韓이 會談을 추진해 오고 있는 目的은 명백합니다. 北韓 內部問題, 韓國內 問題, 國際的 問題의 세가지 次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北韓의 對南戰略은 그들이 옛날부터 말하는 「3大革命力量」이라고 해서 北韓의 社會主義 革命力量을 높이고 韓國內에서 革命同調勢力을 규합하고 國際社會에서 諸 社會主義 勢力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그래서 統一을 획득하겠다는 것이 北韓의 戰略입니다. 이걸로 풀어본다면 會談을 왜 하느냐? 北韓 人民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韓國內에서 北韓 同調勢力을 회유하는 目的이 아마 제일 큰 것이 아니겠느냐... 이른바

北韓의 統一戰線戰略의 核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되도록이면 韓國國民들에 대해서 北韓 사람들은 머리에 빨간 도깨비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愛國的이고 民族主體性을 살리는 同族이라는 것을 強調하는 機會를 가지기 위해서 會談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國際的 次元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國際社會에서 平和 이미지를 부각해 가지고 北韓과 다른 나라와의 關係 改善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서는 大韓民國과 다른나라와의 關係를 善치고… 이런것이 目的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대개 이런 目的이라고 하면 北韓의 경우는 會談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北韓과 民族主體性을 強調하고 그리고 韓國內에 反外勢 勢力을 회유할 수 있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會談에서는 아주 진지하고 성의있는 것처럼 보이고 實質的으로는 進展시키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저도 이번 赤十字 會談에 末席으로 참여했음니다만 會談하는 立場은 저희가 아주 편합니다. 저희는 하자는 立場이니까 아무런 制約이 없습니다. 相對方은 해서는 안되고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나와있는 代表들은 아주 곤욕스러운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측의 會談目標은 宋榮大 代表께서 이미 소상히 말씀드렸음니다만 아주 명백합니다. 현재 우리의 統一政策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南北韓間에 信賴를 回復하고 過去 戰爭을 해서 서로 믿지를 못하는데 믿음을 회복해야만 統一이든 共存이든 할 게 아닌가 그리고 交流를 增大해 가지고 서로간에 理解를 높이고 異質感을 좀 더 解消를 하고 그리고 戰爭을 한다고 서로 버르는 사이에는 統一이 惹起가 안되니까 平和를 定着시키고, 이 세가지가 우리가 追求하는 目標인데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會談은 되도록 많이 가지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 조그만 것이라도 실질적으로 進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는 것이 우리 立場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이룩하려고 하고 北韓은 이룩해서는 안되고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 것이 目標이고... 지금 이런 狀況에서 會談이 進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제할 때 北韓은 어떤 環境에서 對話를 할 것인가? 그 答은 이렇습니다. 北韓 內部情勢가 安定이 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때만 會談을 할 수 있습니다. 北韓 內部情勢가 불안해지고 北韓政權 자체가 危機를 느낄 때는 會談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나라나 마찬가지로입니다. 어느 集團도 마찬가지입니다. 對話라는 것은 자기가 自信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두번째 韓國內 事情에 있어서는 혼란이 많을 때 北韓은 會談을 할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쪽에서 동조세력을 회유하려고 하는데 남쪽에서의 동조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反體制勢力을 회유할 수 있을 때 할려고 할 겁니다.

國際的으로는 國際社會가 流動的일 때 會談이 價値가 있는 것입니다. 가령 美國과 韓國과의 關係가 아주 밀착되어 있고 蘇聯과 北韓이 아주 밀착되어 있고 蘇聯과 韓國이 아주 원수간이 되어있고 하던 옛날의 冷戰時代에는 이미 國際社會에 變化가 없습니다. 敵과 同志가 完全히 區分되어 있는 狀態이기 때문에 北韓이 무슨 努力을 해도 그것을 깰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會談이 별 가치가 없는데 流動的일 때는 다르지요. 그래서 70年代 初에 美·蘇間의 冷戰體制가 崩壞되고 이른바 데탕트 體制로 들어가려고 하는 轉移期에는 그때는 北韓이 한번 해 보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狀況에서 새로운 친구를 구할 수 있는 狀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80年代에 들어와서 또한번 韓半島를 둘러싼 國際關係가 構造가 조금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北韓이 이번에 와서 會談을 재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展望은 간단해 집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세가지 條件을 본다면 현재의 모든 狀況은 平壤에서 내다 볼 때는 다 條件이 충족되어 있습니다. 北韓은 자기네가 안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大韓民國이 混亂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國際環境은 變化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北韓은 앞으로도 會談은 계속 持續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展望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여기서 구체적인 進展은 해서는 안되니까 實質的인 進展은 期待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저의 見解입니다.

이것은 엇그제 大統領의 年頭記者會見 內容에서도 명확하게 나와있고 따라서 大韓民國 政府도 이렇게 보고 있는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朴東鎭 長官께서도 인사말씀에서 말씀했지만 우리가 예측은 했읍니다만 왜 「팀 스피리트」를 지금 할 거 알면서 날짜를 잡으라고 하니까 요 먼저 赤十字會談을 2月25日로 잡은 것은 우리가 잡은 게 아닙니다, 北韓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요때 「팀 스피리트」訓練을 한다는 것은 北韓이 훨씬 전부터 알고있던 事實입니다. 그런데 고매를 일부러 잡아놓고 역시 「팀 스피리트」通報를 하니까 그것을 핑계로 또 안한다고 했거든요.

北韓은 大韓民國內에서 일단 이 會談을 갈구하는 사람들을 회유하기 위해서는 會談을 쪽 끌어가다가 사람들의 期待와 希望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중단시켜 버리면 사람들을 허무와 좌절에 빠지게 합니다. 이 時期에 자기들이 제일 원하는 內容을 예컨대 『팀 스피리트 그만둬라』를 내

세우면 이 사실이 부각이 되어서 사람들을 자극하게 됩니다. 즉 第2次 故鄉訪問團이 또 성사될 것인가 하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北韓이 중단시켰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부에서 「팀 스피리트」 그만둬라 하고 나올 勢力이 있기를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몇차례 더 이런 試圖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약속을 한 바 있으니까 좌중에서 質問하실 분 하십시오.

質問：林德圭（11代國會議員，國民黨）

安教授님 말씀 중에 28페이지에 南北問題에 超黨的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要旨의 內容이 있는데 과연 現政府가 南北對話問題를 超黨的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의 이름이 너무 길고 어렵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떨까요. 내가 11代國會 外務委員으로 있을 때 外務部 局長級 이상에게 물어보니 아무도 우리의 統一方案 名稱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司會

또 다른 質問이 없으시면 우선 安教授께서 약1分동안 지금 舉論된 內容을 정리해 주세요.

答辯 : 安秉俊

우선 討論者들께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셔서 배운 바가 많습니다.

우선 姜在倫 教授께서 統一憲法보다는 暫定協定을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것 事實은 國會會談에서 舉論했습니다. 問題는 이 暫定協定이라는 것을 國會會談에서 論할 것이냐 이것은 역시 當局者會談에서 論해야 할 것이라고 했고 또 議題가 問題인데 우리는 統一憲法協議機構 構成問題와 統一基盤 造成問題를 提示했습니다. 그 속에 暫定協定問題 등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李相禹 教授께서 지적하신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戰略이란 目的과 手段을 결부시킨 것인데 目的에는 統一戰線이란 目的에는 變함이 없지요. 그러나 統一戰線을 추구하는 手段에는 變化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手段이 防禦的이라는 것입니다. 레닌도 한걸음 앞서기 위해서 두걸음 後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北韓도 마찬가지입니다. 뒷걸음하면서 자기네가 추구하는 方法을 계속한다. 우리도 戰爭抑止를 위해서 어느정도 受容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논리적 모순이 없습니다.

林議員 말씀에 초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다만 저쪽에서는 우리의 國內政治問題를 상당히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 新民黨에서도 南北問題는 초당적으로 支援해야 한다고 했지만 앞으로 이런 초당적 活動을 더욱 活性化하고 더욱 具體化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統一方案 名稱에 대해서는 李相禹 教授께서 말씀하실 것 같고, 다음에 國會會談을 우리측에서 얘기했는데 底意가 뭐냐 그것은 좋지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底意보다도 우리측은 國會會談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

나라 問題는 議題인 것입니다. 國會會談을 열어서 國會議員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얼마든지 하자 그러나 不可侵宣言 問題는 國會에서 다른 問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측은 當局者間에 不可侵問題를 논하고 그 다음에 國會가 비준동의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어 단지 議題가 問題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補充答辯：李相禹

林議員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統一方案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統一方案의 이름이 너무 길고 어렵다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은 지금까지 南과 北에서 統一方案이라는 것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들과 區別하기 위해 統一方案의 內容을 題目에 壓縮시켜 보자는 생각에서 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統一이 어느 특정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國內外에 있는 모든 우리 民族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民族和合이란 말을 썼고 나아가서 統一의 方法은 暴力革命이나 戰爭이 아닌 반드시 平和적이고 民主적인 手段으로 해야 한다는 뜻에서 民主統一이란 用語를 採擇한 것입니다. 따라서 좀 어렵고 길지만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統一方案 名稱에 대해서 政府高位官吏나 國會議員이 몰랐다는 事實이 저에게는 충격적입니다. 國民學校 兒童들도 다 알고 있는 事實입니다. 그분들께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會議를 마치겠습니다.

4. 第2主題：南北對話의 環境

- 主 題 發 表 : 申 正 鉉 (慶熙大 教授)
- 司 會 및 討 論 : 李 洪 九 (서울大 教授)
- 討 論 : 金 惠 (外 大 教授)
- 鄭 千 九 (仁川大 教授)
- 金 達 述 (前 赤十字會談 代 表)

4. 第2主題：南北對話의 環境

一. 序 論

지난 한 해 동안 南北韓關係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變化를 시현하였다. 무엇보다도 分斷된 이래 처음으로 쌍방간에 집단적인 人的交流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南北韓關係史에 새로운 章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돌이켜보면 같은 單一民族으로 오랜 文化와 歷史를 유지 발전시켜 온 韓民族이 分斷을 계기로 그렇게 철저하게 단절된 상황에서 40여년을 지내왔다는 것은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었다. 戰後에 몇몇 지역들에서 分斷國家의 상황들이 나타났지만 한반도의 경우처럼 쌍방이 서로 차단된 채 對峙와 갈등만을 노정해 온 곳은 결코 쉽게 발견될 수 없다.

비록 1970年代 초에 直接對話의 方式을 통해 쌍방관계를 새로운 次元으로 변모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러나 처음에 기대했던 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중도에서 끝나 버리고 말았다. 그 후 南北韓關係는 쌍방이 각기 자신의 內部體制를 재조정함과 더불어 월남戰의 종결이나 아프가니스탄 사태 등과 같은 外的 狀況의 出現으로 다시 상당한 정도의 긴장을 내포한 채 敵對적인 對峙狀態로 전개되어 나갔다.

그러나 1980年代에 들어서 南北韓關係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주로 韓國側이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會談」開催나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등을 제시하면서 統一問題에 대해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접근해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인 데서 비롯되었다. 北韓側은 이미 주지된 바와 같이 韓國側의 새로운 움직임을 거부하면서 그 대신

「고려민주연방제안」의 적용과 더불어 美國과의 平和協定締結, 그리고 州한미군의 철수 등을 주장하였다.

그러던 중 1983년 10월에 「버마사태」가 발생함으로써 南北韓 關係는 극도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반도에는 전례없이 고도의 긴장상태가 나타났으며 따라서 美國·中共·日本등과 같은 주변 강대국들은 한반도문제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한편 北韓은 「버마사건」을 계기로 對外的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과 연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외교공세를 전개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1984년 1월에 北韓은 美國 및 韓國과 더불어 三者會談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것은 北韓이 1974년 3월에 美國과의 직접 협상을 제의했던 것을 수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韓國側은 南北韓關係는 쌍방간의 직접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北韓의 제안을 거부하였고 나아가 「버마사태」에 대해 北韓이 어떠한 형태로든 責任을 져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쌍방의 입장이 서로 맞선 가운데 南北接觸과 對話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1984년 9월 北韓赤十字會의 수재물자제공제에 대한 韓國側의 수락에서 마련되었다. 北韓으로 부터 수재물자를 인도·인수한 후 韓國側은 그동안 중단되어온 赤十字會談의 재개와 함께 南北韓 經濟會談의 개최 등 쌍방간의 對話를 제의하였고, 이에 北韓側이 과거와는 달리 비교적 호의적으로 반응해옴으로써 南北韓關係는 다시 對話의 時代를 맞게 되었다.

여기서 제기되는 중요한 問題는 그동안 實現이 불가능했던 南北韓 간의 접촉과 對話 및 交流가 어떻게 해서 가능해질 수 있는가 하는데 집중된다. 이와 관련해서 비록 한정되고 그 결과에 대한 기대가 불투명하지만

南北韓對話를 가능케 하는데 영향을 미친 요소들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문제에 대한 접근은 앞으로 南北韓關係를 이해하고 관리해 나가며 또한 앞으로의 관계를 전망해 보는데 유용한 準據 資料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對話를 포함한 남북한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요소는 우선 환경이란 관점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사실 南北韓關係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 對內外的 環境과 밀접히 연관되어 전개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分析의 편의상 예비적인 개념규정을 해보면 환경이란 南北韓이 각각 對話의 전개와 관련한 政策들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政策決定分析 모델에서 중요한 변수로서 취급되는 환경 (Environment)의 개념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¹⁾

그리고 南北韓關係에서 對話가 갖는 의미는 포괄적으로 쌍방관계에 관련된 제반문제를 論議하기 위해 雙方代表들이 접촉하고 협상하는 것으로 규정해 볼 수 있다. 그러한 對話의 범위는 赤十字會談, 經濟會談, 體育會談과 같은 非政治的인 것에서 부터 國會會談 및 앞으로 실현될 경우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會談」등과 같은 政治的인 것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형태의 회담들을 포함한다.

南北韓對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은 크게 두가지 범주로 나누어

1) 政策決定과 환경에 관한 分析모델들의 理解를 위해서는 申正鉉, “國際政治와 外交政策分析: 比較方法의 適用과 問題點” 「국제정치논총」 1980年, No.2, pp. 15-26 참조

볼 수 있다.²⁾ 첫째는 對內的環境으로 이것은 南北韓이 각기 内部的으로 갖고 있는 心理的 要素들(Psychological factors)과 操作的 要素들(Operational factors)을 포함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심리적요소들로서는 南北韓의 政策決定者들의 상황인식이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理念 및 價値體系, 과거의 經驗 및 「엘리트이미지」등이 포함된다. 한편 조작적 요소들은 南北韓이 현재 가지고 있는 政治構造, 經濟能力 및 軍事力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둘째는 對外的 環境으로 이것은 南北韓의 영토범위를 넘어서서 존재하는 조건들과 관계들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東北亞地域의 國際關係와 南北韓과 4大強國들간의 쌍무적관계 등이다. 특히 南北韓關係와 연관된 對外的 環境으로 한반도에 대해 다각적으로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4大強國들의 基本政策 目標들이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들의 한반도에 대한 政策目標나 戰略的 利害關係는 보다 높은 수준에서의 그들의 對外的 政策目標들과 연계되어 있고 또한 그러한 연계성은 바로 南北韓對話의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이상에서 열거된 다양한 요소들이 각기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개략적으로 檢討해 보고 그에 따라 이들이 南北韓 對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추론해 보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2) 환경의 범주와 構成要素들의 區分은 주로 Michael Bretcher, The Foreign Policy System of Israel : Setting, Images, Process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72), pp. 1-20. 을 참조한 것임.

二. 對 內 的 環 境

1. 心理的 要素들

南北韓은 우선 理念이나 量值體系에 있어 서로 상반된 立場을 견지하고 있다. 이미 分斷에서부터 쌍방은 양립하기 힘든 이데올로기를 채택하였으며 그에 따라 각기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나 목표도 對立的인 것이었다. 韓國은 自由民主主義를 채택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政治的・經濟的・社會的 諸價値를 實現하고자 했다. 비록 아직 완전한 형태로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미흡한 상태에 있지만 韓國은 第1共和國에서부터 民主主義의 土着化를 실현하려고 하였고 그에 따라 個人의 政治的 自由와 平等의 原則을 준수하는 방향에서 社會變化를 추구하였다. 그에 따라 韓國 社會는 어느정도 開放的이고 多元的인 構造를 조성시킬 수 있었으며, 이는 産業化過程을 거치면서 더욱 촉진되었다.

또한 韓國은 反共을 政策의 第一目標로 내세우면서 개인이나 集團生活에서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社會化過程을 전개하였다. 그에 따라 韓國社會에서의 反共意識은 상대적인 의미에서 볼 때 다른 어떤 社會에 비해서도 철저하게 內面化될 수 있었다. 비록 非敵性 共產國家들과의 관계를 추구하고 또한 北韓과 接觸하고 있다 할지라도 韓國國民들은 대체로 共產主義 이데올로기를 강하게 반대하는 태도와 가치를 견지하고 있다.

한편 北韓은 그의 政權樹立에서부터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공식적인 이데올로기로 채택하고, 北韓住民들을 그러한 이데올로기에 몰입될 수 있도록 일종의 教化과정を 전개하였다. 또한 北韓은 個人의 自由와 權利尊重보다는 集團生活의 原則을 強調하였고, 철저히 주민들을 動員體制속에 함유시켜 개인의 私的生活을 통제하였다. 특히 北韓에서는 프롤레타리아 獨裁體制의 형성을 金日成個人의 支配體制確立으로 변형시

켜 고도의 個人獨裁體制를 확립시켰고 이를 위해 소위 主體思想이 주요한 이데올로기적 機能을 담당하였다. 이미 勞動黨 第6次 黨大會에서 표출된 바와같이 主體思想은 北韓社會에서 최고의 地位를 차지하는 이데올로기로 강조되고 있다. 北韓에서 主體思想이 갖는 의미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創造的 適用」이라는 측면 이외에 金日成一人支配에 대한 正統性을 부여함과 더불어 北韓의 對外的 行態를 正當化시킬 수 있는 이념적 공식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北韓은 分斷된 이래 韓國을 「外勢로부터 해방시켜 결국 공산주의하에 統一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이를 위한 對南戰略을 계속 전개해 왔다. 따라서 北韓 共產當局은 韓國과의 共存을 거부하면서 赤化統一에 대한 목표실현에 관심을 두어왔다. 결국 南北韓간에는 反共과 赤化의 두가지 목표들이 서로 대치된 상태가 유지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分斷이래 계속되어온 쌍방관계의 經驗은 오히려 서로의 關係를 分離시키고 對峙케 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미 3년간의 戰爭을 통해 쌍방은 고도의 敵對性을 견지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 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있었던 잦은 도발과 충돌은 不信의 벽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南北韓간에 앞으로 그러한 도발과 충돌이 일어날 위험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戰爭危險性도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로부터 쌍방간의 접촉이나 對話에 임하는 기본목표에 대한 상호이해가 增進되기 힘들며 그 결과 南北韓關係의 개선은 심리적 측면에서 좀처럼 쉽게 수용되기 어렵게 되었다.

南北韓 쌍방에 대한 「엘리트 이미지」문제에 있어서도 對話의 관점에서 볼 때 여전히 否定的인 측면들이 內在해 왔다. 北韓의 정치리더쉽은 韓國에서

혁명의 잠재력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만약 南韓人民들이 자각하고 南北韓全體人民들이 단결해서 투쟁한다면 朝鮮은 獨自的으로 재통일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³⁾

예를 들면 北韓支配層은 1979년 10월 사태를 「南韓에서 정치적위기와 사회적 무질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반영한 것」으로 인식하였다.⁴⁾

한편 韓國엘리트의 對北韓이미지는 여전히 「민지 못할 위험스러운 상대」로 나타나고 있다. 1970년대 初에 南北韓간에 直接對話가 열린 상황에서 당시의 한국지도층은 오히려 反共意識을 강화하고 北韓의 침략의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결국 한국정치리더쉽에 있어 北韓은 「전체 한반도를 共產化시키려는 무모한 계획을 갖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고 非合理的 行動을 취할 수 있는 존재」로서 간주되고 있다.

대체로 심리적 측면에서 對內的 環境要素들을 고찰해 볼 때 그것들이 南北韓對話에 유리하게 기능했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그러한 요소들은 南北韓對話에 어떤 限界性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들이라고 간주된다.

그러나 이 요소들은 적어도 두가지 측면들에서 變化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결과 南北韓對話의 진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첫째로, 南北韓體系가 각기 점차 새로운 世代들에 의해 주도될 수 있으

3) 이에 관해서는 金日成이 1977年 4월에 일본 讀賣新聞特派員과의 회견에서 잘 나타냈음. Kim Il-Sung, Talks with Executive Managing Editor of Japanese Yomiuri Shimbun and His Party (Pyongyang :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77), pp. 9-10, 참조

4) 「로동신문」 1979년 10월 28일자 참조

며 이 세 世代들은 과거世代와는 다른 목표와 가치 및 行態등을 추구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世代가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특징들은 ① 戰爭經驗이 없다는 것과 ② 문제를 보다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變化는 北韓에 대해서도 기대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산체계의 變化過程을 보더라도 어떠한 사회든 革命의 第1世代 보다는 第2世代가 덜 教條적이고 덜 전투적인 반면에 구체적이고 實用主義的 路線에 따라 對內外的 問題들을 처리해 나가는 경향을 보여 왔다. 따라서 새로운 世代들이 점차 南北韓關係를 접근해 나간다고 전제할 때 보다 현실적이고 合理的인 方面에서 해결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각기 個別的인 利益을 극대화 시키는데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變化의 가능성은 南北韓간에 민족감정의 증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사실상 南北韓간에 가로놓여 있는 異質化 現象을 克服하고 쌍방간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民族에 대한 공통적인 감정이다. 우리민족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언어나 文化 및 전통 등은 비록 南北韓이 그에 대한 해석이나 수용에 있어 커다란 차이성을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 쌍방관계를 접근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南北韓은 주장하는 내용은 서로 다를지라도 다 같이 外部勢力의 간섭이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反外勢的 傾向을 보여 왔다. 韓國은 이미 1960年과 70年代를 통해 「獨立, 自主 및 自立」과 같은 용어들로 표현되는 민족적일체감형성을 강조해 왔으며 또한 北韓도 소위 주체사상속에서 自主路線을 내걸면서 對外關係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유지하는데 관심을 보였다.

또한 주변국제관계가 점차 多元化現象을 보이므로써 韓國民族主義로 表現될 수 있는 우리민족의 一體性和 自主性的 고취에 대한 요구는 더 용이하게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南北韓對話를 위한 心理的 環境은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操作的 要素들

南北韓對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操作的 要素로서 먼저 고려될 수 있는 것은 南北韓이 각각 유지하고 있는 政治的 狀況들이다. 韓國의 경우 최소한 두가지 課題들이 특별히 고려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南北韓對話가 진전됨에 따라 이에 대한 國民的 合意를 형성시킬 수 있는 動態的인 政治的 過程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1988 년도로 예정된 「平和的 政權交替」를 위한 제반 政治적 여건을 安定된 바탕위에서 설치있게 조성해 나가는 것이다.

韓國社會에서 통일에 대한 일방이나 分斷狀態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점차 커지고 있음은 再論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열망이나 시도를 구체화시키는 데 있어 다양한 見解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따라서 政策 決定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그러한 다양한 견해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合意的인 (Consensual) 過程을 여하히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韓國社會 자체가 北韓과 달리 多元化過程을 지향해 나가고 있음에 비추어 南北韓對話의 方法이나 節次 및 내용에 대해 각기 상이한 입장들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世代간에, 지역간에 或은 社會勢力들간에 상이한 利益과 견해들이 제기되고 또 그것들을 자기들 입장에서 이용하려는 傾向들이 일방적으로 억제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따라서 南北韓對話에 관한 한 韓國政治體系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그러

한 다양성을 어떻게 수용하여 일관성있는 對話政策을 決定, 執行해 나가느냐에 있다.

또한 韓國은 새로운 方向에서 政治的 變化를 경험해야 할 입장에 있다. 그것은 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平和的으로 政權을 교체하는 것이다. 이것은 民主的 政治秩序의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극히 바람직하고 당연한 일이지만 복잡한 國內政治狀況에서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南北韓對話의 환경으로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문제이다. 원칙적으로 南北韓對話는 國內정치의 安定에서 보다 더 유리한 환경을 맞이할 수 있으며 사실상 그 반대의 경우 對話의 지속은 어렵게 될 것이다.

北韓의 政治構造는 고도로 中央集中化된 一人獨裁支配體制라는 점에서 그 특징을 갖고 있다. 韓國의 경우 수차례 걸친 政權의 교체가 있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民主的 理想과 가치들의 실현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北韓에 있어서는 그러한 정치변화의 경험이 없었고 그대신 지난 40여년간 一人支配體制의 강화만이 있어 왔다. 金日成을 中心으로 한 一人支配體制는 초기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프롤레타리아獨裁體制의 형성으로 합리화 되었지만 점차 主體思想을 비롯한 金日成唯一思想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그리고 北韓政治體制는 勞動黨과 같은 一黨體制에 의해서 그리고 고도의 暴力使用을 통해 명실공히 全體主義體制로 변모해 나갔다.

그러한 北韓共產體制도 근래에 들어서 적어도 새로운 두가지 局面들에 직면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權力承繼問題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미 이 問題는 1970年代 중반부터 金日成-金正日 부자 세습체제로 전개되어 왔으나 아직도 그러한 체제전환이 완전히 매듭 지어졌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 主要한 政策決定分野에 있어서나 또는 勢力構成面에 있어서 金正日의 위치가 뚜렷이 부각되었지만(이미 1980년에 열린 第6次 黨大會에서 나타났음) 그러나 金正日의 세습체제에 대한 반발이나 저항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볼 때 앞으로 北韓政治體制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그러한 권력승계문제를 여하히 해결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北韓共產體制가 政治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政治리더십의 老化現象을 극복하는 것과 연관되어 나타난다. 이는 體制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政策決定者들의 世代交替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한 분석에 의하면 北韓權力序列 10위까지 金正日을 제외한 평균 연령은 약 70세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⁵⁾ 이것은 北韓體制가 權力構造에 있어 어떤 변화를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北韓權力體制에서는 勞動黨이나 군부내에서 새로운 젊은 세대의 간부들이나 기술관료들이 점차 주요한 직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勞動黨內的 金正日이 이끄는 10인의 중앙위 비서국은 해외에서 유학을 했거나 여행을 한 50代 중반의 당관료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군부내에서도 老幹部들이 제거되고 비교적 젊은 世代들인 만경대혁명학원 출신들이 주요한 직책을 점유하였다.

이미 北韓內部에서 시작된 金正日中心의 권력승계작업과 그에 따른 새로운 世代들의 등장(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님)은 분명히 對話를 포함한 南北韓關係의 진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요인

5) 柳錫烈, 「남북한 관계론」(서울:정음사), p.19.

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金正日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신진 세력들이 南北韓對話를 그들의 支配體制를 강화시키는 正統性的 근거로 이용하려고 할 경우 南北韓關係는 분명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될지도 모른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對南革命路線이나 武力統一의 시도를 버리고 그대신 平和共存의 원칙에 따라 南北韓關係를 점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려는 政策目標를 설정하는 일이다.

한편 조작적 환경으로 중요시 될 수 있는 것은 南北韓의 경제능력이다. 여기서 경제능력이란 南北韓이 對話와 관련된 政策들을 결정하는 데 관련될 수 있는 모든 物的·人的資源들을 말한다. 南北韓은 分斷時부터 각기 별개의 경제체제와 목표를 지향해 나갔다. 즉 韓國은 기본적으로 資本主義 經濟體制를 채택하고 개인들의 私的動機와 私有財產制를 經濟活動에서 중요한 원칙들로 추구하였다. 비록 發展政策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韓國經濟가 어느 정도는 국가의 간섭과 계획을 수반하였지만 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목표는 자본주의 경제원칙에 기반을 두었다.

반면 北韓은 共產主義體制下에서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계획경제를 추진하였으며, 私有財產制가 금지되고 그대신 집단적인 경제 활동을 강요하였다. 모든 경제 활동들(발전이나 분배를 포함해서)은 勞動黨이나 국가기관에 의해 통제되었고 집단적인 단위들로 조직화 되었다. 특히 北韓에서의 경제 활동은 「천리마운동」이나 「3大革命運動」등과 같은 전체주의적 동원체제의 형성과 연관되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南北韓 社會는 경제력 면에서 상당한 정도의 차이를 노정함으로써 評價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1984년 末 基準, 한국의 GNP는 811億弗인데 반하여 北韓은 147億弗로 韓國이 북한보다 약 5.5 배가 많은 것

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南北韓의 GNP의 격차는 점차 확대되어 왔다. 예를 들면 1971년에는 韓國과 北韓의 GNP 比率이 2.6:1이었던 것이 1980년에는 4.2:1로 각각 늘어났다. 그리고 1人當 國民所得도 1984年 末 基準 韓國의 경우 1999弗인 반면 北韓의 경우는 762弗로 집계되었다.⁶⁾

문제는 경제능력의 면에서 北韓이 韓國보다 뒤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며 동시에 北韓經濟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韓國의 경제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周知되고 있는 바와 같이 상당한 량의 外債로 韓國經濟는 많은 부담을 안고 있으며 또한 世界市場의 변동으로 무역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北韓經濟는 이미 1960년대부터 곤란한 상태에 접어들었던 것이다. 이것은 7개년 계획 기간중(1961년 - 1970년)의 공업성장율(12.8%)이 그 이전의 5개년 계획기간중(1957-1961)의 성장율(36.6%)보다 크게 둔화된 것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北韓經濟의 어려움은 내부적으로 소비재 생산의 정체와 제 산업간의 不均衡 그리고 늘어나는 外債와 지불능력의 결여 등에서 잘 나타났다.

그에 따라 北韓은 1980年代에 들어서 경제관리부문에 대한 커다란 개혁을 단행했다. 중앙의 경제기구들이 대폭 축소되었고 30여개에 달했던 北韓政務院의 경제부서들도 20개로 통폐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北韓은 道單位에 「經濟指導委員會」를 신설하여 종래의 中央集中化된 생산지도 및 감독책임기능을 어느 정도 하부구조로 이양시키는 조치를 취했다.⁷⁾

6) 「북한실태와 남북한 관계」(國土統一院, 1985.12)와 「南北韓比較」(外務部, 1984.10)참조.

7) 柳錫烈, 前揭書, p.74.

특히 北韓이 당면한 경제적 곤란성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서 주목할 만한 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고찰될 수 있다. 하나는 對西方國家들을 상대로 한 소위 開放化 政策이고 다른 하나는 점진적인 經濟・技術官僚들의 등장이다. 전자의 경우는 1984년 9월 8일 北韓의 소위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에서 제정된 「合營法」에서 잘 나타났다. 이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北韓이 현재 처해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西方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유치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라고 풀이된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1984년 1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7기 3次會議에서 政務院總理에 운수전문가인 第1 副總理 姜成山을 승진, 임명한 것을 비롯해서 北韓의 권력구조에서 주요 간부들을 大幅 교체한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開放化에 바탕을 둔 北韓의 경제발전 시도는 아직 그 진전상황이나 成果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南北韓關係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北韓이 開放化 政策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면 한반도 內外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그러한 視角에서 본다면 北韓의 開放化 政策은 南北韓對話(적어도 한반도 내에서 긴장을 완화 시키고 北韓의 對外的 이미지를 改善시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와 어떤 연계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조작적 환경의 마지막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軍事力이다. 일반적으로 군사력이란 한 국가가 戰爭을 감행할 수 있거나 或은 다른 국가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南北韓關係는 세가지 점에서 특별한 관심을 끌게 된다. 첫째로 중요한 점은 南北韓간에 군사력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는 평가이다. 즉 계속 지금까지 분석된 바에 의하면 주한미군을 제외할 경우 韓國의 군사력이 北韓의 그것에 비해 뒤떨어지는 불균형이 존재해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까지 北韓은 數的으로나 조직력·군장비 및 군사교육이나 훈련등에 있어 韓國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北韓의 병력수는 한국이 약 60 만명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에 약 82 만명으로 증가되었으며, 특히 북한은 근래에 들어서 攻擊能力을 크게 증강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北韓이 탱크나 장거리포 및 수송장비, 그리고 전투기 등을 증감시킨 데에도 기인되지만 상당수의 兵力을 휴전선 근방으로 전진배치시켰다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났다.

둘째로 南北韓간에 계속되고 있는 軍備競爭이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비록 對話가 진행되고 交流가 어느정도 행해지고 있다 할지라도 南北韓간의 군사력 증강을 위한 努力은 결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과거 20 여년 동안 北韓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의 國民總生産의 20%~25%를 군비증강에 지출하였다. 한편 韓國은 1975년도까지는 국민총생산의 약 4%정도를 국방비로 충당했으나 그후 부터는 약 6%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스러운 「화약고」로 변모했으며 이것은 기본적으로 민족전체의 생존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셋째로 南北韓간의 군사적 균형에 관한 문제는 남북한이 각각 유지하고 있는 군사적 동맹체제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되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 戰略的 觀點에서 남북한 관계는 독립된 상황으로 인식될 수 없으며 그것은 오히려 미·소간의 戰略的 競爭体系와 밀접히 연계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南北韓간의 군사적 관계는 東北亞 地域의

군사적 균형유지의 문제와 별개의 것으로 생각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南北韓간의 군사적 관계는 한층 더 복잡하고 불확실한 요소들을 내포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對話나 교류를 포함한 南北韓關係의 진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요인으로 쌍방의 군사력을 고려해 볼 때 적어도 두가지 측면에서 어떤 변화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戰爭에 대한 공포의 증대이다. 이것은 南北韓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戰力을 전부 동원하는 全面戰을 일으킬 경우 상당한 정도의 상호파멸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에 기인된다. 南北韓은 각기 놀라울 만큼 큰 파괴력을 가진 現代武器體系를 갖추고 있으며 따라서 비록 軍事的 均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全面戰이 일어날 경우 그로부터 결과되는 파괴효과는 엄청나게 클 것이다. 따라서 南北韓간에 심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戰爭抑制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점차 고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 다른 변화는 軍備競爭의 한계성과 관련해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사실상 南北韓은 다 같이 상호불신과 安保에 대한 불안정성 때문에 계속 국방력을 증강시키는 데 최대의 관심을 두어왔다. 그러나 쌍방은 현재 각기 보유하고 있는 경제력이나 기술개발능력에 비추어 계속 새로운 武器體制를 개발하고 또 외부로부터 구매해 오는데 큰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로 부터 쌍방의 군비경쟁의 노력은 어떤 限界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北韓이 한국에 비해 계속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고 할 경우 이것은 北韓 자체의 경제능력이나 韓國의 戰力開發 潛在力 등을 고려해 볼때 北韓에게 보다 많은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南北韓關係는 비군사적인 분야에서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三. 對 外 的 環 境

1. 東北亞 國際關係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南北亞 地域의 국제관계는 주로 美國·蘇聯·中共 및 日本 등의 4 대강국들간의 관계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간의 관계는 언제나 東北亞 地域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地理的으로나 戰略的으로 東北亞 地域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그들의 이 지역에서 의 관계는 한반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東北亞 地域에 있어 4 대강국들은 다양한 목표와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복잡한 戰略的 手段들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간의 관계는 여전히 고도의 流動性과 不確實性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 대강국들간의 관계양상을 추출해보면 다음과 같이 지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4 대강국들간의 관계는 아직도 美·蘇關係를 中心으로 二元的 集中化 現象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전세계적 수준에서 미국과 소련이 초강대국가들로서 견지하고 있는 競爭的 關係가 동북아 지역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뜻한다. 미국과 소련은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和解關係를 유지해 왔으나 1970년대 말부터는 서로 상당한 정도의 긴장을 내포한 대립 관계를 지속해 왔다. 특히 1979년 말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그후 새로이 들어선 美國 레이건行政府의 「힘의 우위에 입각한 對蘇外交」로 두나라간의 관계는 일종의 「新冷戰」關係를 형성하고 있다고 까지 표현될 정도로 대치상태를 유지하였다.

東北亞 地域에서 이러한 미·소관계는 두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소련의 아시아·太平洋 地域에로의 진출이었고 또다른 하나는 美國을 中心으로 한 反蘇提携의 구축 및 강화였다. 소련은 外交的 노력보다는 군사 전략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위치를 강화시키려는 데 관심을 가졌다. 그에 따라 「크레믈린」은 中共과의 국경 지역에 상당수의 地上軍을 배치시킴과 동시에 태평양함대의 戰力을 크게 증강시켰다. 소련의 태평양함대는 약 30척에 달하는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포함한 최신장비로써 무장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우기 소련은 최근에 들어서 극동지역에 중거리핵미사일 SS-20을 다수 배치하므로써 극동군사력을 크게 강화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⁸⁾

소련이 군사적으로 東北亞 地域에 대한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반해 美國도 이 지역에 대한 군사능력을 규모면에 있어서나 또는 질적인 면에서 증강시키는 반면 외교적으로 反蘇協力體制를 형성하는데 관심을 두었다. 기존의 美·日安保體制 이외에 中共과 경제적·전략적인 협력관계를 擴大해 나감으로써 美國은 동북아에서 日本과 中共을 포함한 反蘇三角協力關係를 구축해 나가는데 중요한 관심을 갖고 있다.

한편 소련은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의 새로운 리더쉽하에서 對極東戰略에 있어 어떤 융통성있는 對外的 行態를 추구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미 고르바초프는 과거와는 달리 對西方外交에서 비교적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레이건大統領의 대소관계개선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더불어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함께 지난 11월에 열린 美·蘇頂上會談은 미

8) 소련의 極東 軍事力에 대한 자료는 The Military Balance 1985-1986 (London: I I S S), 1985에 기초한 것임.

소관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東西關係에 어떤 개선의 가능성을 증대시킨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더우기 고르바초프는 日本이나 中共과의 관계개선에도 중요한 정책적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그는 1960년대 말에 「브레즈네프」가 제안한 아시아集團安全保障體제의 구성을 다시 강조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양상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對極東政策을 포함한 對外政策이 실질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앞으로 소련은 종래와는 달리 외교적·군사적으로 좀 더 융통성있는 양면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즉 소련은 계속 태평양함대를 포함한 극동군사력의 강화를 추구하는 반면 東北亞 地域에서 美國의 지위나 이익을 약화시키기 위한 外交的 攻勢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소련은 기본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한 反蘇三角協力關係를 약화내지는 붕괴시키는데 관심을 가질 것이며 따라서 日本이나 中共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미국과 소련은 기본적으로 超強大國家로서 세계전략상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위와 역할을 유지하면서 한편에서는 군사적·외교적으로 쌍방간의 경쟁관계를 첨예화시켜 나갈 것이다. 그러한 관계양상은 한반도주변의 東北亞 地域에서도 점차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러한 미·소간의 경쟁관계가 동북아 지역에서 급격한 勢力均衡의 변화나 현상타파를 초래 할 것으로는 기대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목표를 추구할 경우 미국과 소련은 불가피하게 새로운 모험이나 위기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東北亞 地域의 국제관계는 비록 美·蘇中心의 경쟁적 二元體制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한편에서 보면 불안정하지만 多元的 體

제의 윤곽이 점차 부각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 위치해 있고 또한 지역문제에 대해 점차 發言權을 확대하려는 두개의 亞細亞 國家들인 中共과 日本이 존재한 데서 비롯된다. 이들은 아직도 美國이나 소련에 비해 국력이나 영향력 행사에 있어 뒤지고 있지만 東北亞 地域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위치와 역할을 增大시키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비록 中共이나 日本이 反蘇戰略의 범주에서 美國과 긴밀한 戰略的 協力關係를 유지하려 하고 있지만 그러나 對內外的 政策路線에 있어서는 상당한 정도의 독자성과 융통성을 추구하고 있다.

中共은 1970년대 초에 美國과의 관계를 개선시킨 후 계속 西方國家들과의 외교적·경제적 관계를 擴大해 나갔다. 中共의 對西方外交는 國內에서 추진하고있는 4大現代化計劃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려는 목적 이외에 소련으로부터의 안보위협에 대한 일종의 견제효과를 확보하는 데도 목적이 있었다. 中共은 1970년대 중반부터 開放化에 의거한 國內發展政策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對外的으로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美國을 포함한 西方國家들 뿐만 아니라 소련과도 점차 관계를 개선시켜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美國과 中共간의 관계는 1984년 4월 레이건大統領의 中共訪問으로 일층 더 긴밀한 協力關係로 진전되었다. 레이건大統領의 訪問으로 핵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경제 및 技術分野에서 두나라는 協力關係를 증진시켜 나갈 것에 합의를 보았다. 美國은 이미 1983년 5월에 中共에 고도기술의 利權을 제한했던 조치들을 완화했으며 결국 두나라간의 頂上會談을 통해 이들 분야에서 양국간의 협력이 재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中共은 對美關係에서 美國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등에 불만을 표시하였으며 아직도 대만문제는 양국

간의 관계에서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있다.

한편 中共은 對蘇關係에 있어서도 과거와는 달리 외교적 접촉을 통해 국경문제 등 현안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또한 인적 및 물적교류를 증진시키려 하고 있다. 中共은 지난 7월에 소련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약 18억弗에 달하는 양국간의 무역액을 1990년까지 약 35億弗로 증대시키는데 두나라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⁹⁾ 현재 중공은 소련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세가지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국경지대에서의 소련군의 철수와 베트남에 대한 소련의 지원금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의 철수 등이다. 소련이 이러한 조건들을 들어줄지는 의문이지만 그러나 점차 증대해 가는 美國과 中共간의 외교적·군사적 협력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소련으로서도 中共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어떤 措置들을 취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中共도 어느정도 소련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이 國內開發政策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對美外交를 전개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유할 수 있을 것이다.

日本도 中共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獨自的인 外交行態를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安保面에 있어서는 아직도 美·日安保體制의 테두리안에 머물러있고 또 對蘇戰略面에서 美國 및 中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自國의 경제적이익을 추구하고 外交的 活動範圍를 擴大하는데 점차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日本은 對美關係에서 자체의 방위비 증가와 미국의 日本內 基地使用許可와 같은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미국과의 안보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있지

9)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ly 25, 1985), pp. 12-13.

만 한편 무역면에서 심한 갈등현상을 일으키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같다.

한편 日本은 自國의 安保에 가장 큰 위협을 주고있는 소련과도 外交的・經濟的 關係를 개선해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日本은 1월에 소련과 外相會談을 개최하였으며 이 회담에서는 두나라간의 무역증진과 더불어 전반적으로 쌍무적 關係를 증대해 나가는 문제들이 論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日・蘇關係는 고르바초프體制下的 소련이 두나라간의 政治的 交流는 물론 무역 및 경제교류를 擴大해 나가는데 관심을 보이므로써 과거보다 신축성 있게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두나라關係를 제약시킬 수 있는 要因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우선 두나라간에는 日本의 北方領土問題가 미해결된 채로 남아있으며 또한 美・日安保體制의 강화가 日・蘇關係의 증진을 가로막는 不安한 要素로 되고있다. 소련은 日本이 北方地域에 美軍의 F-16機를 배치하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日本의 「나토化」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東北亞 地域의 국제관계에서 점차 주목을 끌 수 있는 것은 日・中共關係이다. 두나라는 미국이나 소련과 같이 超強大國의 立場에 있지는 않지만 東北亞 地域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처리하거나 이지역의 安定과 平和를 유지하는데 있어 다른 두 초강대국들 못지않게 主導的인 地位와 役割을 확보하는데 관심을 두고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1983년 11월의 中共黨總書記 胡耀邦의 日本訪問과 1984년 3월의 日本 나카소네首相의 中共訪問등을 통해 가진 두나라 지도자들간의 접촉에서 잘 나타났다. 특히 「나카소네」首相一行이 中共을 訪問했을 때 두나라 지도자들은 소련의 極東軍事力 增強에 따른 우려와 더불어 두나라간에 군사정보의 교환을 위해 協力할 것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그들은 두나라가 근접해 있는 東北亞

地域에서 어떤 紛爭이나 갈등이 일어날 경우 이들의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努力할 것도 아울러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반적으로 東北亞 地域의 국제관계 즉 4大強國들간의 관계는 비록 어떤 급격한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는 예상해 볼 수 없지만 어느정도로 不確實성을 내포하고 있음은 분명한 것 같다. 그것은 4大強國들이 어떤分野에 있어서는 견해를 같이하고 協力體制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다른分野에 있어서는 서로 갈등적인 측면들을 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原則적으로 4大強國들은 外交戰略적인 면에서 고도의 獨自성을 保有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그들간의 利害關係는 비교적 쉽게 변화 될 수 있다. 또한 그들간에 제기되고 있는 爭點들(Issues)이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一律적으로 그들간의 관계를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4大強國들간의 상호관계가 冷戰時처럼 대결적이고 갈등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비록 그들간의 관계에서 경쟁적이고 독자적인 성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基本行動樣式은 外交的인 協商과 妥協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는 경향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4大強國과 韓半島

4大強國들의 한반도에 대한 利害關係는 그들간의 세계적 혹은 地域的 水準에서 추구되는 戰略目標들과 밀접한 연계성 속에서 형성되고 또 變化하고 있다.

근래에 들어서 美國은 東北亞地域에서 자신의 지위와 役割을 強化시키려는 목적과 관련해서 기존의 對韓關係를 外交的・戰略的으로 강화시키는데

관심을 보였다. 그결과 美國과 韓國과의 安保關係는 과거보다 강화되는 傾向을 보였다.

레이건行政府下에서 美國은 韓國과의 頂上會談등을 통해 外交的・ 軍事的 協力關係를 증진시켜 나가는 한편 南北韓關係의 해결을 위한 韓國政府의 立場을 적극 支持하는 方向으로 나아갔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北韓으로 부터의 戰爭威脅을 억제하는 동시에 南北韓 直接接觸이나 對話를 통한 統一에의 접근을 주장한 韓國政府의 立場을 支持한데서 잘 나타났다.

앞으로도 美國의 그와같은 對韓政策의 기초에는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美・蘇頂上會談이 계기가 되어 동서관계가 더욱 해빙관계로 진전될 경우 美國의 對韓政策도 그와같은 맥락에서 南北韓간의 접촉이나 교류를 지원하는 方向에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두가지 사항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南北韓對話의 진전과정이나 내용에 대한 미국의 관심의 증대이고 또 다른 하나는 美國의 對北韓關係의 변화가능성이다. 美國은 다른 어떤 강대국들에 비해서도 南北韓問題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국가이다. 이는 韓美간에 깊은 동맹관계가 현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美國이 休戰協定の 당사자이고 또한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美國은 南北韓간의 직접대화를 환영하고 있지만 對話의 진전에 따라 그에 대한 새로운 關心과 정책적 조정의 필요성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

또한 美國은 세계 정세 또는 東北亞地域의 국제관계가 解氷霧圍氣로 나아가는 것과 상응해서 北韓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는데 관심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 이미 美國은 非政治的인 영역에서 北韓과의 비공식적 접촉이나 교류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특히 美國의 이와

같은 對北韓關係는 北韓 자체가 對美接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것과 상응해서 어느정도 진전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미국의 對韓半島政策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역시 소련의 對韓半島政策 특히 그의 對北韓政策이다. 소련과 北韓과의 관계는 1984년 5월 金日成一行의 「모스크바」訪問을 계기로 점차 긴밀해 지기 시작했으며 같은 해 연말에 2주일간에 걸친 소련 外務次官인 「카피차」의 평양방문 그리고 지난해 4월의 北韓 外交部長 김영남의 「모스크바」방문과 그에 따른 「소련·北韓코뮤니케」發表등으로 양자간의 관계는 더욱 급속히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 소련은 北韓에 대해 MIG 23機를 포함한 주요한 군사원조를 제공하였으며 이에 대해 北韓은 소련의 항공기들의 북한영공의 비행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모스크바 - 평양간의 긴밀화는 지난해 8월 8.15 解放 40주년을 맞아 소련의 第1 副首相 알리에프 (Geydar Aliev) 일행의 평양방문에서 잘 입증되었다. 알리에프의 평양방문은 전례없이 대규모 정부대표들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지만 그의 방문과 함께 세척의 소련 함정들이 북한의 원산에 기항하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알리에프는 韓·美·日協力體制를 「三角군사블럭」이라고 비난하고 北韓을 소련편에 끌어들이려 했다. 외교적으로도 北韓은 고르바초프가 제안한 「亞細亞集團 安全保障案」을 支持한 것으로 알려졌다.¹⁰⁾ 더욱이 최근 보도에 의하면 소련은 北韓의 政務院 總理 姜成山の 「모스크바」訪問을 계기로 양국간에 체결된 經濟協定 및 科學技術協定에 따라 北韓에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지

10) 「로동신문」, 1985년 11월 5일자 참조

원할 것으로 알려졌다.¹¹⁾

모스크바와 평양간의 군사적·외교적·경제적 관계의 긴밀화는 한반도문제 뿐만 아니라 東北亞地域 情勢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소련의 立場에서 對北韓接近은 극동에서 형성되고 있는 워싱턴 - 北京 - 東京간의 反蘇三角協力關係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전략적 布石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한편 北韓의 立場에서 보면 그와같은 쌍방관계는 北韓의 군사적·경제적 지위를 강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對西方世界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도 오히려 유리한 입장을 견지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인식 될 수 있다. 즉 北韓은 소련과의 관계개선을 美·日·中共으로부터 보다 더 적극적인 對北韓接近을 유도하고 三者會談등의 추진에 있어서 협상조건을 강화시키는 외교적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련의 對北韓接近은 고르바초프體제의 등장과 더불어 소련이 추진하고 있는 外交的·戰略的 攻勢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 있어 새로운 不安要因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련이 美國을 포함한 다른 강대국들과의 접촉이나 協力を 擴大해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에 비추어 北韓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지원이 한반도에서 새로운 紛爭이나 갈등을 야기시킬 정도로 擴大될 것으로 예상하기는 힘들 것 같다. 여하튼 소련이 과거보다는 더 많이 한반도문제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 특히 美國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관심은 일층 더 크게 표면화 될 것으로 보인다.

11) 朝鮮日報, 1985년 12월 27일자 참조

中共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또한 北韓이 지나치게 소련에 편향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을 기본정책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中共은 1983년 10월 「버마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南北韓關係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가능한 限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대해 많은 정책적 비중을 두어 왔다. 지난 수년동안 北京과 평양간에는 잦은 수뇌들간의 접촉과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이들을 통해 中共側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北韓側에 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서 安全과 平和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中共의 입장은 1983년 11월에 日本을 방문한 胡耀邦 一行과 日本側 지도층과의 회담에서 잘 나타났다. 이어 1984년 7월에 北京을 방문한 前 日本 外相 「기이찌 미야자와」와의 회담에서 中共指導層은 南北韓간의 직접대화가 한반도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기도 했다. 특히 이 회담에서 胡耀邦은 『北韓은 분단된 한반도를 平和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¹²⁾

中共은 공식적으로 한반도문제에 관한 限 北韓의 입장을 支持하고 있다. 예를들면 中共은 北韓이 제안한 「三者會談」이나 「高麗民主聯邦制案」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中共은 자신의 政策目標上 한반도와 그 주변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北韓으로 하여금 對外開放化政策을 채택, 추구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對話등을 포함한 南北韓關係의 개선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 FBIS, Japan (Daily Report), July 5, 1984, p. c4.

특히 中共은 北韓과 소련간의 관계개선에 관심을 두고 北韓에 대해 계속 政治的·外交的 支援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日本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한반도문제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增大하려고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소련과 中共의 對北韓關係를 평가해 볼 때 비록 최근에 들어서 모스크바-평양관계가 긴밀해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北韓의 이들 공산세력들에 대한 「等距離外交」의 기초가 붕괴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오히려 『형제적 隣邦인 소련·中共과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심화, 발전되었다』는 金日成의 86년도 신년사에서 말 처럼 北韓은 두 공산국가들과의 긴밀한 관계유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中共은 보다 더 현실적인 立場에서 한국과의 경제적·문화적 교류를 擴大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그러한 中共의 對韓關係가 中共-北韓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지 않는 한 中共은 점차 한국과의 비공식적인 關係를 증진시키는데 관심을 가질 것이다.

끝으로 한반도문제에 있어 특별한 위치에 있는 국가가 바로 日本이다. 日本은 한국과 공식적으로 外交關係를 갖고 있으면서 경제적·문화적 교류를 擴大해 나가고 있지만 반면 北韓과도 상당한 정도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미 日本은 오래전 부터 「두개의 한국정책」(對等한 기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을 추구해 왔으며 그 결과 北韓과의 정치적 접촉을 포함한 쌍방간의 교류를 증진시켜 왔다.

日本이 추구하고 있는 對韓半島 政策은 南北韓關係에서 쌍방간에 對話를 통해 긴장을 완화시키고 현상을 유지하는데 기본목표를 두고있다. 이와관련해서 日本은 頂上會談등을 통해 韓國과의 외교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南北韓關係에 관한 한 공식적으로 韓國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문제에 관한 한 自國의 利害關係가 다각적으로 관련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日本은 점차 北韓과의 관계도 개선시켜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日本은 다른 강대국들과의 접촉을 통해서도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위한 居中調停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미 中共 指導層과의 접촉을 통해서도 그러한 의도가 크게 나타났으며 또한 「세바르드나제」 소련外相의 日本訪問時에도 한반도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정학적으로나 실제 이해관계면에 있어서도 日本은 中共과 함께 韓半島安定에 깊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어느 정도 南北韓對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四. 結 論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環境은 두가지 측면에서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하나는 환경은 언제나 변화한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환경이란 問題解決의 主體에 의해 언제나 認識되는 결과에 따라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南北韓對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요소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것은 항상 변화하고 있으며 또한 변화하는 실체(Reality)는 언제나 對話主體에 의한 인식과 평가에 따라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까지 南北韓對話의 政策決定과 추진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요소가 개략적으로 검토되었다. 심리적 측면에서부터 국내 조작적 측면에 이르기 까지 그리고 국제적 상황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南北韓對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한 요소들이 검토되었다.

비록 어떤 측면에서는 여전히 南北韓對話에 부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요소들이 發見되고 있지만 상당한 경우 對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쌍방간에는 태도, 가치 및 信念 등에 있어서 여전히 否定的 側面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分斷 40여년의 역사를 克服하려는 민족적 자각의 增大는 南北韓對話를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주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南北韓간에 理念的·體制的 葛藤과 對立이 강하게 남아있고 또한 軍事的 對峙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의 克服이 對話를 통해서 점차 가능해 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南北韓對話에 유리한 조건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南北韓간에 不信의 벽이 여전히 남아있고 민족적 이질화 현상이 점차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만 동시에 그러한

것들이 쌍방간의 긴장완화와 궁극적으로 민족의 再統一을 지향하는 南北韓 對話를 저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國際的 環境에 있어서도 국가들간의 상호관계가 비교적 對話와 協力の 분위기속에서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짐으로써 南北韓對話는 어느정도 유리한 환경을 맞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國際經濟面에서 先進國들간의 무역마찰이나 開發途上國家들의 外債負擔이 심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국제관계가 고도의 긴장을 수반할 것 같지는 않다. 東北亞地域에 있어 強大國家들간의 關係도 소련의 外交的 戰略的 側面에서의 극동진출이 現狀維持를 위협할 수 있는 要因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소련 자신이 美國이나 日本, 나아가 中共과의 對外的 利害關係를 근본적으로 위태롭게 할 정도로 對極東進出을 시도할 것으로는 보기 힘들 것 같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北韓의 기본태도와 戰略이다. 현재까지 北韓이 과거와는 달리 南北韓對話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자신이 對南戰略이나 統一政策에 있어 지금까지 추구해온 基本路線을 수정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變化는 北韓이 對外的으로 어느정도 開放化政策을 추구하면서 南北韓對話에 상당한 정도의 關心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 그 의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金日成 자신이 1986년도 신년사에서 남북한간의 「최고위급 회담도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 것은 北韓이 南北韓對話에 보다 많은 意味를 부여한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어떠한 環境下에서든 對話를 계속 추진해 나가려는 민족적 의지를 여하히 결집해 나갈 것인가에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環境은 항상 변화하게 마련이며 비록 현시점에서 對內外的 環境

이 對話에 유리하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환경이 언제 不利한 것으로 변화할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따라서 對話를 이끌어 나가는 主體가 환경을 항상 對話에 유리하도록 조정,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力量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같은 환경이나 조건이라 할지라도 對話를 이끌어 나가는 主體의 의지나 인식여하에 따라 그러한 對話에 미치는 效果는 각기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必要한 것은 주어진 환경을 最大限 活用하여 南北韓對話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 다가오는 88년도 올림픽게임과 같은 국제적 행사는 적절히 活用될 수 있을 경우 南北韓對話를 추진시켜 分斷問題의 해결을 위한 어떤 역사적인 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環境의 變化와 함께 南北韓對話를 지혜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對話主體의 形成과 그의 적극적인 行動戰略의 適用이 절실히 要求된다고 볼 수 있다.

司會：李洪九

申正鉉教授께서 南北對話의 환경에 대한 主題를 發表해 주셨습니다. 結論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對內的인 狀況도 그렇고 우리를 둘러싼 國際環境도 그렇고 계속 變하고 있습니다. 問題는 그런 變化를 對話의 主體인 우리와 北韓이 어떻게 認識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런 認識에 따라서 行動할것 같으면 行動이 다시 狀況이나 環境을 變化시키는 結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런 狀況環境과 對話主體 사이에서 일어나는 循環關係, 이것을 우리가 理解하는 習慣을 기른다는 것은 이야기하기 쉽지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매일 듣고 있는 國際環境의 變化라든가 또는 對內的인 變化가 對話主體인 우리와 北韓의 認識을 어떻게 바꾸어 놓고 있는 것인가 그 바꾸어 놓은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行動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습관을 기르는 좋은 계기가 될텐데 오늘 申教授께서 그런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發表를 해주셨습니다.

여기 지금 發表해주신 主題를 中心으로 討論해주실 先生님이 세분 나와 계신데 우선 韓國外國語大學의 金愔教授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討論：金 愔

방금 申教授께서 좋은 論文을 發表해 주셨고 저도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申教授님의 평소의 성격대로 誠實하고 均衡있는 論文을 써 주셨기 때문에 별로 是非거리가 없습니다. 論文에서 是非거리가 없다는 것은 재미가 없다는 얘기와도 통합니다. 그런데 이제 점심도 잡수셨고 오후에 討論의

雰圍氣를 좀더 감흥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비가 없는 곳에서 시비를 찾아내는 討論者의 才能이 굉장히 重要的 時點에 다달았습니다. 제가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했다고만 코멘트를 하며는 그것도 과찬이 되겠습니다. 너무 지나치면 모자란 것만 같지 못합니다. 그래서 申教授한테 失禮가 될 것 같고 그저 잘했다 이라고 말아 버리면 申教授의 論文에 대해서 좀더 진지한 關心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좀 失禮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理由에서 한 두어가지 質問이라면 質問이고 코멘트라면 코멘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內容構成에서 對內的인 環境과 對外的인 環境 그리고 주로 本論에서 얘기한 客觀的인 環境問題를 結論에서 또 主觀的인 認識의 問題로 받아가지고 잘 均衡있게 써 주셨습니다. 어떤 點에서는 굉장히 좋은 論文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보기에 對外的인 環境에서는 狀況의 進展이 굉장히 樂觀的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는데, 申教授의 경우는 對外的인 環境에 관한 記述의 部分에 있어서는 너무 均衡을 강조하다 보니까 樂觀的인 要因과 危險한 要因을 바란싱 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樂觀的인지 危險한지 잘 분간할 수 없는 그런데가 있었던데 반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對內的인 環境의 要因에서는 오히려 어렵고 危險한데가 많은데 또 여기서는 너무 樂觀的으로 써 주셨습니다.

가령 한가지 예만 든다면 새 世代의 進出 南北韓에 있어서 각기 새세대가 進出, 戰爭을 모르는 세대, 戰爭을 經驗하지 않은 세대가 자라난다는 것이 南北韓 關係에 和解指向的인 전환을 위해서 반드시 樂觀的인 要因이 될 수 있느냐 하는 問題인데요. 美·蘇關係에 있어서도 이런 論議가 있습니다. 비슷한 論議가 소위 美·蘇關係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世代

交替現象이라는 것이 소위 蘇聯 政治局 內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70~80代의 老人들이 물러나고 50代 고르바초프가 登場하고 세대가 交替되는 現象이 반드시 美·蘇關係의 改善을 위해서 樂觀적인 것이냐 하는데 관해서 두가지 論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새로이 등장하는 世代라는 것은 美國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지 않아도 좋았던 소위 名實相符한 世界的 超強勢力으로서의 蘇聯의 位置가 굳어지고 난 다음에 本格的인 黨生活을 始作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對美關係에 있어 오히려 조심성이 없고 더 당돌할 수도 있다. 더 自信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점에서는 그게 반드시 좋은 영향을 줄 수만은 없다는 論議가 있다는데 그런 論議를 끌어서 여기에 투영시켜 본다면 以北에서 새로운 世代가 登場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南北韓間에 平和를 가져오는데 반드시 좋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蘇聯에서 새로이 登場하는 指導層의 世代라는 것은 이미 1960年代부터 蘇聯은 열려진 社會라고 表現해도 過言이 아닙니다. 열려진 社會속에서 자라난 새로운 世代이기 때문에 그건 樂觀할 수 있을지라도 철저히 닫혀진 閉鎖的인 社會에서 자라난 새로운 世代交替, 더구나 戰爭을 經驗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戰爭의 공포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새로운 世代가 리더쉽을 掌握하였을 때 그것이 반드시 南北韓關係에 좋은 영향으로 투영이 되겠느냐 하는 점도 論文의 均衡上 한번쯤은 생각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質問을 드립니다.

아마 그런 점도 申教授께서 미리 계산해보고 쓰셨겠지만 그래도 이런점을 한번 들춰 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國際的 側面에서 二元的 集中化 現象이라고 表現하셨는데, 勿論 아직도 엄격히 말하면 軍事的 側面에서는

兩極體制입니다. 世界는 美·蘇中心의 體制지, 多極體制라고 表現하기는 힘들
니다만 적어도 東北亞라는 地域에 초점을 맞춰서 볼 적에 이것을 二元的 集
中化 現象이라는 말로 東北亞 強大勢力關係의 特徵적인 樣相을 表現한 것이 과연
정확하겠는가, 그리고 그점과 關聯해서 1970年代의 第1期 南北對話 時期
와 1980年代 後半으로 접어드는 지금의 狀況에서는 強大勢力 均衡構造의
安定性에 많은 變化가 있었읍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위 四強의 多元的 均
衡構造에 確實性和 安定性이 그만큼 增大되고 있다 하는 점을 보고 있는
데, 여기서 申教授께서 구태여 二元的 集中化 現象이라고 못박아서 오늘의 狀況을
特徵지우는 것은 어떤 뜻에서인지 그건 잘 모르기 때문에 質問을 드립니다.
간단하나마 이걸로 코멘트를 마칩니다.

司會

감사합니다.

다음은 仁川大學의 鄭千九教授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鄭教授는 仁川大學
의 統一問題研究所長職도 맡고 계십니다.

討論：鄭千九

감사합니다. 重複되는 點을 피해가지고 저도 討論者 役割을 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申教授님 發表에 全部 同感을 하면서 討論을 위해서 몇가지 質
問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內容은 먼저 發表 內容上의 質問을 드리고 그 다음에 發
表하신 거 하고 關聯된 見解,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對處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午前會議나 午後會議에 조금 덜言及이 된것 같은데 午後에 綜合討論에서 그런 問題에 대해서 혹시 異議가 있을까 해서 그것을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發表하신 內容中에서 다 수공을 하면서도 몇가지 좀 明白하게 말씀해 주시면 하는 그런 面이 있습니다.

아까 金憲教授님 質問하신 그 問題도 제가 여쭙어 보고싶은 말씀이었습니다. 世代가 달라진다고 해서 勿論 敵對感은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6.25 經驗世代가 사라지고 새世代가 오면 敵對感은 緩和될 것인데 대신에 전혀 다른 教育시스템, 文化시스템 속에서 자란 사람들간에 對話나 그런 것이 과연 現在보다 더 좋은 條件으로 變한다고 할 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 다음에 對內要素에서 두번째로 民族感情에 조금 희망적인 見解를 表示하시기를 民族感情의 增大로 對話에 상당한 좋은 雰圍氣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점에 共感을 하면서 또 한 側面으로 民族感情의 增大가 共感帶가 이루어져서 增大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統一에 대한 또한 民族에 대한 熱望을 고취시킴으로써 보통 다른나라의 경우에 보면 外部勢力이 물러나고 가만 놔두면 內部鬭爭이 훨씬 더 격렬합니다. 國際적인 鬭爭보다는 內部的 競爭者間에 鬭爭이라는 것이 宗教團體 內部에 있어서나 國際社會에 있어서나 內部鬭爭이 훨씬 더 격렬한데 그렇게 樂觀적으로 民族感情의 增大가 곧바로 화해와 對話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樂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조금 疑問을 提起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內容중에 質問드릴 것은 조금 덜 重要的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軍備가 增大되고 해서 戰爭恐怖가 상당히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軍縮의 또는 그런 필요성이 增大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同感

입니다. 다만 長期的으로는 그렇지만 短期的으로 볼 때는 지금 美·蘇 間에 軍縮會談을 쪽 보면 美·蘇가 지난번에 제네바에서 頂上會談에서 만나서 다시 軍縮會談이 되고 있지만 그러기 이전에는 레이건大統領의 戰略防衛構成 소위 「별들의 戰爭」計劃을 強力히 밀어붙였기 때문에 蘇聯이 軍縮會談에 應하지 않았느냐 하는 分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協商을 앞두고는 보통 世界軍縮史를 보면 協商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期待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自己立場을 強化하기 위해서 자기쪽의 軍備를 굉장히 強化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長期的으로는 軍備縮小나 軍備協商에 대한 展望이 조금 밝겠지만 短期的으로는 그걸 위해서 南北韓에 軍備競爭이 오히려 일어날 可能性이 있다. 지금 北韓쪽은 對話와 同時에 지금 그쪽 方向으로 앞으로 協商이나 그런걸 對備해서 軍備를 오히려 強化하는 거라고 저는 조금 그런 側面에서 關聯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內容말씀에 대한 質問입니다.

그다음에 이와 關聯해서 全體적으로 申教授님께서서는 뒤에 그냥 對內外的 環境要素가 南北韓 對話에 상당한 肯定的인 要素로 作用할 것이다 하는 全體적인 판단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부연 안하신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見解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對話自體에 國際環境이나 國內環境이 全般的으로 有利하다는 것은 저도 同感인데 다만 對話의 환경에 어떤 方向으로 影響을 미치겠느냐 하는 것을 조금 부연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四強이 全般的으로 和解雰圍氣나 對話雰圍氣에 促進的인 것으로 政策이 變化해 간다는 것은 同意합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우리한테 實際적으로 어떤 意味가 있느냐? 간단히만 말씀드려서 저는 中共하고 蘇聯에 지금

특히 蘇聯은 軍事的인· 影響力에서 政治的인 影響力 強化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中共과 蘇聯에 過去에 없었던 政治的인 影響力이 점점 增大되는 趨勢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對話自體는 鼓舞化됐지만 對話를 고무하는 方向이 오히려 北韓의 對話立場을 強化해 주는 方向으로 政治的 影響力이 미치지 않겠느냐? 거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對備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全般的으로 南北韓의 대내적, 대외적 환경에 影響을 미치는 것을 몇가지 말씀만 드리면 우선 全體的으로 中·蘇 影響이 強化됨으로써 北韓의 論理를 強化시켜주는 國際적으로 그런 效果가 있을것 같은 염려가 있다 하는 말씀을드릴 수 있고, 또 그 韓半島問題의 韓半島化가 점점 追求됨으로써 對話에는 有利하지만 그것이 國際的인 影響力을 弱화시킴으로써 國際的 影響力에 戰爭抑止力을 좀 弱화시킬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軍備競爭을 強化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많이 指摘을 합나다만 對話가 進展됨에 따라서 南北韓間에 正統性 競爭이 훨씬 더 치열해지고 과거에 軍事的인 對決을 中心으로 되었던 南北對決이 政治的 心理的인 對決形態로 바뀔 것이다 하는, 對話에는 有利하나 그 方向이 어떤 것인지 하는 그 問題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떠한 姿勢로 여기에 對應해야 될 것인가, 간단히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午前會議에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對話의 全般的인 南北韓의 趨勢가 韓國은 對話自體를 굉장히 重視하고 소중하게 여겨서 그것 自體를 發展시키려고 하는 反面에 北韓은 對話를 하나의 手段으로 利用하고 있는 것이 全般的인 評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對話 이외에 다른데 目的을 두고 있는데 1973年度 70年代에 對話에 있어서 北韓

이 얻은 것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것은 특히 外交分野에서 統計를 보면 72年 7.4 南北共同聲明 때 外交修交國이 84 : 55 였는데 그후 2년만에 北韓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勿論 꼭 그것만 理由가 아닙니다만, 90 : 88 로 압도적으로 굉장한 숫적 차이를 줄여가지고 外交에서 굉장히 有利한 고지를 얻었습니다. 그 때 우리가 얻은 統一, 7.4 南北聲明 그런 것을 해가지고 國內體制를 좀 다졌다는 그런게 있습니다만 對外的으로 相當한 外交的인 그런걸 감수했다, 그럼 지금 北韓이 노리는 것도 對外的인 것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重點的으로 특히 美國과 日本에 대한 北韓의 추파, 거기에 대한 接近을 우리 對話를 통해서 實際的으로는 추구를 하지 않으면서 그걸 통해서 굉장히 추구를 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對應할 것은 그걸 막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代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따라서 北韓이 미래 接近하는 것 이상으로 地方政策, 蘇聯과 中共에 대한 接近努力을 굉장히 우리가 지금 認識하는 것 이상으로 努力을 해야 그 사람들의 未來接近에 對抗할 수 있다 하는 外交分野에 굉장히 關心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對內에서 統一準備體制確立 같은 것이 상당히 重要하고 그중에서 특히 우리 社會가 多變하게 多元的으로 發展해가서 共通的인 것은 상당히 喪失해 가고 있고 異質的인 것은 점점 發展시켜가고 있는데 이제는 北韓이 노리는 것하고 反對로 우리는 統一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자각을 해가지고 統一, 南北關係 그것을 國民的인 자각으로 發展시켜서 서로 이렇게 多元化된것 중에서 우리가 共通性을 確認하고 우리의 價値觀을 再確認해서 國民的 合意基盤을 다지는 方向으로 상당히 努力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이 듭니다.

그 다음에 對話政策에 있어서 제가 이견 상당히 한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인상은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에서 두가지 側面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統一憲法을 制定한다는 側面은 굉장히 統一指向的이고 어떻게 보면 北韓이 過去 專有物처럼 여겼던 一括妥結方式을 우리가 統一憲法만 制定해 가지고 總選舉하면 바로 統一이 되는거니까 그걸 強調한거고 그전에 段階的・機能的 接近論은 이제 南北韓 關係 基本關係에 관한 暫定協定으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對話政策에서 강조하는 쪽은 統一, 包括的인 意味의 統一憲法이라든가 南北韓 民族統一協議會議 構成같은 問題는 상당히 強調를 덜하고 있고 이쪽 機能的인 部分을 쪽 우리가 하고 있는데 北韓의 政治的인 공세를 封鎖하고 조금 그걸 牽制하는 意味에서 또 國民의 統一意識을 結集하는 意味에서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中에서 앞부분 包括的인 妥結方法쪽을 우리가 상당히 기교를 가지고 그쪽에 關心을 많이두어 양쪽을 均衡있게 實質的인 것은 實質的인 것으로 追求를 하면서 國民속이나 또는 對北關係에 있어서 統一指向的인 面도 굉장히 부각시키는 그런 方向을 統一, 對話政策에서 技術的으로 收斂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司會

다음은 金達述委員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討論：金達述

두분 教授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事實上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다만 討論者로 앉은 자리값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한두마디만 드릴까 생각합니다.

지난 1月 23日날 北韓하고 蘇聯하고 서로 外相이 만나서 共同聲明을 發表를 했습니다. 그런데 共同聲明의 內容을 보며는 상당히 北韓쪽에서 蘇聯쪽에 애걸을 하는 部分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는 무엇이냐 하면 交叉承認을 絶대로 해서는 안된다, 또 다시 同時加入도 絶대로 안되겠다, 또 요즘 北韓이 主張하고 있는 올림픽의 南北韓共同主催를 蘇聯이 支持한다, 이런 것을 蘇聯側으로부터 얻어낸 것 같습니다.

北韓이 蘇聯쪽에 손을 비벼대가지고 이렇게 얻어낸 反面에 아마 北韓은 나름대로 蘇聯側에게 뭔가 주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중의 한가지를 보면 아프가니스탄 現政府를 支持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中共이 대단히 싫어하는 問題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中共의 對蘇正常化의 3個條件 가운데 하나가 소위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蘇聯軍의 撤收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北韓이 蘇聯側에 동조를 해서 蘇聯側 立場을 支持했다 이런걸로 봐서 北韓이 상당히 蘇聯側에게 뭔가 내주었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느냐 하는점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北韓이 蘇聯에게 아부를 하면서 까지 교차승인을 反對하고 '유엔 同時加入을 反對하고 아울러 올림픽 共同主催를 蘇聯에게 빌어가면서 부탁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申正鉉教授께서 環境問題에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总的으로 저도 同感이고 특히 그중에서도 結論部分에 環

境보다는 對話主體의 意志가 대체적으로 重要하다. 環境이 어떻다 하더라도 對話主體가 그것을 環境을 어떻게 認識을 하고 어떻게 活用을 하느냐 하는 것이 보다 더 重要하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全적으로 同感을 表示하면서 제가 이런 事例를 든 것은 그만큼 環境이 적어도 지난 70年代하고 80年代하고 比較해 볼 때 상당한 變化가 있었다. 그 變化가 있었는데 그 變化自體를 어떻게 보면 우리 自身은 잘 모르는 部分을 오히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環境部分에서 더 많은 것을 더 많이 알고있지 않느냐 하는 部分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論文에도 나와있읍니다마는 韓半島 問題에서 美國이나 蘇聯이 最近에 상당히 關心이 높아졌다. 특히 南北對話에 대해서 美國이나 蘇聯이 關心이 높아졌다 하는 部分 이진 뭘 意味하느냐, 이것은 곧 韓半島의 重要性이 그만큼 커졌고 韓國 스스로가 지난 70年代보다는 지금 現在 80年代 그만큼 커졌다. 이 커졌다는 事實이 적어도 國際적으로 影響力을 미치는 이런 要素로도 되고 있지 않느냐, 예를들면 韓半島를 둘러싸고 있는 蘇聯이나 中共이나 日本이나 이런 環境도 변하지만 그 環境自體도 韓國 스스로가 작은 것으로부터 상당히 큰 걸로 바뀌어졌다. 이것 自體가 또 環境을 바꾸는 이런 部分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點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事例로 오전 討論中에서 70年代에 우리가 南北對話에서 北韓側에게 양보할 수 있는 것 또 얻어낼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대단히 조심스럽게 接近했다. 특히 機能主義적으로 漸進적으로 이렇게 段階적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가는 部分이 80年代에 와서 自由來往도 받아들였다, 또 政治會談을 하는 國會會談도 받아들였다, 또 北韓이 共同主催하자고 하는 體育會談도 우리가 받아들였다, 또 어떻게 보면 水災物資를 주겠다고 하는 過去에 전혀 받지 못했던 것을 받아 들였다. 이러한 것은 결국 우리 스스

로가 그만큼 커졌다고 하는 側面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論文에 한가지 보충하고 싶은 것은 環境部分도 결국 우리 자신의 主體意識이 대단히 重要한데 또한 우리 스스로가 우리 내 自體가 얼마만큼 커졌느냐, 國際的으로 얼마만한 比重을 가졌느냐 하는 部分도 우리 스스로가 좀 認識할 必要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點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司會

위에 세분 先生님께서 다 대단히 肯定的인 論評들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申教授의 論文에 가장 아마 두드러지게 뛰어난 點은 南北關係를 決定하는 가장 重要的 要素로서 心理的要素를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무엇을 目的으로 해서 會談에 參與하는가, 또 무엇을 會談에서 얻어 내려고 그러느냐 하는 雙方의 姿勢는 窮極的으로 양쪽이 가지고 있는 心理的 要素로서 說明될 수 있는 部分이 대단히 많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強調하고 對內的인 여러가지 與件이라든가 國際環境을 그런 心理的 要素에 어떻게 影響을 주는 것이며 어떻게 影響을 받는 것인가, 그런 아까 말씀드린 循環關係를 說明하려고 그런 것이 이 論文에 대단히 優秀한 點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보며는 北韓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南北關係에 대해서는 어떤 상당히 葛藤되는, 한마디로 整理하기 어려운 그런 心理的 姿勢를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北韓은 자기들 體制가 대단히 잘 組織되어 있고, 革命的이고 월등한 자

신을 한편으로는 가지면서도, 사실상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經濟的部分을 위시해서 여러 局面에서 우리에게 뒤떨어지고 있다 하는 두가지 肯定的이면서도 否定的인 側面을 同時に 心理적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葛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美國에 대한 생각은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越南戰의 例를 생각해 볼 때 美國한테도 戰爭을 해서 이길 경우도 있다. 하는 그런 自信이 한편에 있는가 하면 韓國戰爭의 經驗談을 통해서 美國과 戰爭하는 것은 대단히 危險하다 하는 또 그런 생각이 다른 한편에는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北韓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心理的인 姿勢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國力도 커지고, 뭐 올림픽도 하고, 北韓사람들이 이야기 하자면 하는거지 못할 것 뭐 있냐 하는 상당한 自信있는 이야기를 하는 反面에, 좌우간 共産黨하고 이야기해서 뭐 잘될것 없다, 대체로 손해보는 것이 過去의 例가 아닌가 해서 가급적 또 어떻게 보면 會談을 좀 기피하고 싶은 이런 心理的 葛藤이 있습니다.

특히 北韓에서 8.15 後에 남쪽으로 내려오신 분에게서 더 역력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마는 한쪽으로는 빨리 故郷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가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共産黨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안전하다는 이런 葛藤的인 要素가 작용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葛藤的인 要素가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대체로 지금 申教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雙方이 다 그런 葛藤的인 要素를 比較的 잘 管理할 수 있을 때, 다시 말하면 心理的인 安定을 가져올 수 있을 때는 對話에 臨하는 姿勢가 대단히 肯定的일 것이고 어딘지 모르게 心理的인 不安定 속에 싸여 있을 때는 對話에 임 할때 대단히 消極的이고 또는 否定的일 수 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學者가 어떻게 自體를 평가하느냐 또 어떻게 環境을 평가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心理的 安定에 기여하게 되고 그것이 同時에 對話에 連續性이나 성공에 직결되는 게 아닌가 이런 圖式을 보여주는 可能性을 提示했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論文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쪽에 그 操作的 要素 이것은 政治學에서는 자주쓰는 표현입니다만 一般的으로는 조금 생소한 표현이라 아마 들으시기에는 그렇게 편하지 않는 표현인 줄 압니다.

좌우간 政治·經濟·軍事力 이런걸 比較해 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는 있습니다.

예컨대 남쪽이나 북쪽이 다 어떻게 政權交替나 權力에 交替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똑같은 과제를 다른 성격을 가진 體制가 당면하고 있는데 이점에 있어서 대체로 북쪽은 金正日體制로의 전환이 비교적 成功的으로 일단 끝나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評價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다하는 評價도 可能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 더 듣고 싶은 게 있다면 이런 操作的 要素를 갖다가 相對評價할때, 政治·經濟·軍事 이렇게 나누는 것은 우리의 分析의 편의상 可能하지만 窮極的으로 보아서는 결국 한덩어리와 한덩어리가 맞부딪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합쳤을 때 어떤 總體的 評價가 나오느냐 하는것이 아마 좀 言及이 되어야만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國際環境에 대한 分析은 대단히 명쾌한 分析을 해주셨는데 단지 歷史的인 脈絡에서 본다면 우리 地政學的인 立場도 있고해서 19세기 以後로, 이른바 列強이 대체로 韓國問題, 韓半島 問題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기네

利益을 維持하려고 그러한 姿勢가 크고, 구체적으로는 혹시라도 자기가 빠질까봐 걱정하는 경향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마 近來에 일어난 일련의 事態를 본다면는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中共이 마치 北京을 중심으로 해서 뭐 美國하고 北韓의 關係도 자기네가 알선할 수 있는 可能性이 있다 뭐 등등 여러가지 얘기를 하는 것은, 3者會談도 그 좋은 예입니다마는, 이 北京을 이런 問題의 討議에 말하자면 中心地로 만들고 싶다는 이런 욕심이 다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9世紀나 또 그 前後로부터의 歷史적인 과거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본다면 中共의 本土에 자리잡은 政府로서는 當然한 자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日本도 점차 자기네 國力에 특히 經濟力이 저렇게 막강해지니까 바로 자기나라 옆에 있는 韓半島 問題에 있어서는 東京도 빠지면 안되겠다. 상당히 자기네들도 한마디 하는 위치에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특히 나카소네 首相이 취임 이래 대단히 중요한 외교목표로 삼았고 금년에 있어서는 지난 2~3年 동안에 상당한 성과를 올려서 이제는 한마디 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까지 도달하지 않았나 하는 評價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추세를 보고 역시 19世紀 以後로 間接적으로 韓半島 問題를 包含해서 戰爭까지 한 蘇聯이 그냥 있을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蘇聯도 다시 적어도 韓半島 問題를 論議하는데 있어서는 누가 가장 중요한 強大國인가 하는면에 있어서 美國과 蘇聯 이외에는 누가 있겠느냐 하는것을 재확인시키는 그런 作業이 進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分析을 해주셨는데 단지 이것을 우리가 처해있는 地

政學的인 位置, 그리고 적어도 19世紀 以後로 지난 100여년 동안에 내려오는 우리의 環境的 與件이라 할까 이런 것에 연결시켜 볼 것 같으면 대단히 연속성있는 民族의 과제로 부각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우리 對內·對外環境을 동시에 分析하셔서 이런 主體的 認識의 問題로 統一시키는 대단히 좋은 論文을 써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읍니다만 우선 申教授께 좀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아주 간단히 지금 討論者께서 말씀하신 몇가지 問題에 대해서, 대부분은 問題가 아니고 잘 쓰셨다는 칭찬인데, 한두 말씀 해주시고 한 10여分 동안이라도 여기 지금 參席하신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質問을 받아서 討論하는 그런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申教授께서 말씀하시지요.

討論：申正鉉

우선 네분 教授님들께서 質問도 해주시고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여러가지 참 다 맞는 말씀들이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우기 質問에 均衡性 같은 問題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쓰다보니까 頭緒없이 왔다갔다 쓰게 됐읍니다. 또 環境이라고 하는 問題가 아까도 序頭에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國內外 사람 마음 속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디다 重點을 두어야 할지 쓰는 立場에서 참 여러가지 어려운 點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質問하신 內容이라든가 여러가지 볼 때 제 論文에 一般的인 흐름이 두가지가 있다고 指摘을 해주셨고 또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냐하면 하나는 相當히 樂觀的인 見解를 끌고 갈려고 努力했다고 하는 點 이것은 제 자신이 솔직히 認定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心理的인 側面에서 아까 李洪九 教授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서로 南北韓間에 葛藤이 있고 도저히 心理的인 次元에서 보며는 對話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對話가 不可能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바람직한 方向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느냐, 앞으로 方法이 뭐 없겠느냐 하는 그런 問題에서 제가 꼬집어 낸 이야기가 소위 世代交替問題, 새로운 世代는 좀더 期待를 걸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希望的인 생각에서 사실은 제가 그 이야기를 쓴겁니다.

勿論 戰爭을 經驗하지 않은 새로운 世代가 또 잔인하고 공격적이고 뭐 그럴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나 새로운 世代가 通念上 보며는 革命의 第1 世代보다는 덜 教條的이고 덜 戰鬪的인 이런 傾向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一般論的인 觀點을 제가 여기다 한번 導入을 시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事實 論理的으로 볼 때 서로 어느정도 矛盾이 좀 있지만 사실은 그 心理的인 狀態를 데드록(deadlock)에 걸려있는 心理的인 狀態를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끌고 나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 결국 南北韓關係라고 하는것은 繼續 이런 狀態로 밖에 지속될 수 밖에 없는거냐 하는 그러한 觀點에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그래도 같이 民族이고 같이 오랫동안 共同體生活을 한 民族의 어떤 새로운 世代의 등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希望을 좀 걸어볼 必要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쓴겁니다.

그래서 世代論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저도 그건 충분히 認定을 합니다. 새로운 世代가 반드시 舊世代보다 더 나은 어떤 그런 統一의 對話에 임하려고 하는 그런 概念을 가질 수가 없지만 絶對的으로, 그러나 여하튼 金正日世代를 包畵을 해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金日成이 보다는

金正日이가 좀 나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이런 것에서 그런 내용을 插入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國內・對外的인 環境問題 같은 것도 사실 여러가지 危險性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鄭教授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強關係 같은것이 오히려 對話에 逆效果를 미칠 수 있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제가 또 여기서 생각한 것은 뭔가 하려는 그러한 要素가 있지마는 그렇기 때문에 對話主體의 認識과 評價能力이 重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可能性이 있지만 그런 可能性속에서 우리가 對話를 갖다가 끝나갈려는 것보다는 그런 可能性을 克服하려고 하는 意志에서 對話에 대한 戰略이라든지 目標를 設定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속에서 좀더 對話에 좀더 有利한 立場에서 對外的인 環境을 解釋하려고 하는 努力이, 解釋하려고 하는 제 主觀的인 興趣가 事實 여기에 內包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려는 저는 뭐 第三者立場에서 南北韓 交流라든가 接觸이라든가 對話, 이런 것을 꼭 지켜보았지만 이제까지 우리 주변에서 論議된 많은 얘기가 너무나 안되겠다고 하는 생각만 자꾸 強調된 면이 많았지 않았느냐. 좀 되겠다고 하는 立場에서 모든걸 보고 생각을 하려는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가지 方法이나 手段도 講究될수가 있을지 모르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사실 이 論文을 整理를 했습니다.

좀더 선생님들의 質問內容 한두가지를 答辯드린다면은 金應教授님께서 二元化 現象, 東北亞細亞 내지는 이런 側面에서 美・蘇關係를 二元化라고 보는것이 너무 좀 概念上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물론 bipolarity,

英語로 하면 bipolarity 를 意味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근자에 어느책을 보니까 bipolarity 보다는 bipolycentrism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境遇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兩極體制라고 하는 美·蘇中心의 體制 bloc 化에서, 그 bloc 이 깨지면서도 여전히 美·蘇가 主導的인 어떠한 軍事力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이런 狀況, 影響力 面에서는 그래도 좀더 많이 影響을 미치는 다른 나라보다 相對的으로, 이런 것을 表現하다 보니까 二元化라고 이런 表現을 썼는데 그것이 兩極化 또는 bipolarity 라는 의미는 저는 아닙니다. 그 概念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제가 이런 美·蘇關係를 다시 中·蘇關係로 분리시켜서 이 東北亞細亞關係를 說明하려고 했던 것은, 다시 레이건이라든지 고르바초프의 會談을 중심으로 해서 形成되는 美·蘇間에 어떠한 關係라고 하는 것이 世界 모든 問題를 處理하는데 美·蘇가 좀더 主導的인 影響力 回復이라고 하는 이런 側面에도 우리가 解釋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單純히 어떤 強大國들과 對等한 立場에서 世界的인 問題를 解決해 나간다고 보다는 美·蘇가 그래도 다른 어떤 強大國들보다는 좀더 많은 影響力을 行使하려고 하는 그런 努力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點에서 美·蘇關係를 特別히 떼어서 한번 생각해 볼려고 努力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論文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美·蘇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도 韓半島問題에 다른나라 못지 않게 關心을 가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次元에서 提起를 시켜 봤습니다.

世代交替問題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民族感情問題에 너무 樂觀的이지 않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世代交替論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40年동안 分斷된 狀況에서 서로 相異한 어떤 理念이라든지 體制라

든지 生活樣式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共通的인 民族意識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어려우냐 하는 것은 두말할 必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또 여기서 樂觀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周邊關係가 冷戰처럼 그렇게 아주 족쇄에 이렇게 매이는 것처럼 딱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좀더 多樣性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對外的인 側面에서 民族의 自主性이라든지 反外勢的인 어떤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과거보다는 좀 커질 수 있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反外勢論이라고 하는 側面에서 그렇다고 보며는 冷戰下에서 보다는 좀더 民族의 共通性이라고 하는 것, 民族의 共通的인 要素에 대한 認識이 좀 늘어날 수 그런 環境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側面에서 共通的인 民族感情이라고 하는 말을 써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軍備競爭 또는 軍備問題는 제가 이것이 뭐 軍備競爭이 可能하다고 해서 쓴 것이 아니라 軍備競爭에 대한 限界性 때문에 對話에 대한 어떤 間接的인 效果를 미칠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要素가 南北韓間에 軍備가 縮小될 수 있다든가 軍備競爭이 中止된다는가 또는 그것이 縮小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次元의 問題가 아니라 이러한 競爭의 限界性 때문에 오히려 對話에 대한 必要性이 相對的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써 보았습니다.

제가 이 論文을 쓰기 前에 하나 事例말씀을 드리면 얼마전에 저희 學校에서 西獨大使로 계신 분이 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學生들 相對로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을 듣는 중에 아주 두가지를 빠져리게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개를 드리면 강연을 한 다음에 한 학생이 質問을 했습니다. 東西獨關係와 南北韓關係의 差異點이 무엇입니까? 大使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 大使 말이 다른 건 뭐 다 알고 있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하나는 뭐냐, 가장 重要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며는 사고방식이 다르다, way of thinking이 다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고 『야 이거 참 큰 문제구나』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가지로 생각해 보았고,

두번째 質問이 뭔가 學生들로부터 나왔느냐 하며는 紙上에서 보니까 東獨에서 西獨으로 間諜을 많이 보내가지고 스파이 (spy) 짓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나쁜 相對하고 왜 對話를 합니까? 왜 交流를 합니까? 하니까 大使말 얘기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며는 間諜을 보내고 하는것은 政治的인 政策的인 次元의 問題고, 民族을 論하는 問題는 더 큰 問題다. 그러니까 政治的으로 分離된 두 實體가 相對方을 克服, 이기기 위해서 間諜을 보내고 術數를 쓰는 것은 우리가 다 認定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問題로 인해서 民族問題를 論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無責任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獨逸民族은 그럼에도 不拘하고 交流도 하고 接觸도 하고 對話도 한다. 그 얘기는 물론 南北韓 狀況하고는 同一하지 않습니다만 저한테 와 닿는 意味는 상당히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司會

時間이 얼마 안남았습시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質問하실 분이 있으면 한두분 質問을 받아서 마지막으로 申教授께서 對答하는 그런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質問：李益興（平統諮問委員）

申教授 발표에는 南北關係의 展望을 너무 樂觀的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6.25의 經驗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當時에도 北의 威脅에 대하여 별로 심각하게 대처하지 않다가 慘劇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北의 體制가 老化되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재고되어야 합니다. 既存의 支配層은 고령화 되었어도 새로운 世代들은 더 지독한 빨갱이 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北韓에 새 世代가 등장한다고 해서 南北關係를 너무 낙관적으로만 봐서는 안되고 한편으로는 더욱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申教授님 意見은 어떻습니까?

答辯：申正鉉

先生님의 意見에 同感입니다. 北韓共產主義者들과의 對話는 결코 간단한 問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研究에 많이 參考하겠습니다.

司會

豫定된 時間이 조금 超過되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으로부터 한 십분가량 休憩할 시간이 있고 그 후에 綜合討論이 있습니다. 綜合討論은 물론 오늘 아침과 오후에 參與하신 發表者나 討論者께서 全體的인 脈絡에서 말씀하실 機會를 부여하는 동시에 오늘 종일 傾聽해주신 여러 선생님들이 意見을 말씀하실 機會를 드리기 위해 準備된 時間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10分동안 休憩하신 後에 다시 綜合討論을 위해서 續開하기로 하고 일단 午後의 發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綜 合 討 論

- 司 會 : 金 應 (外 大 教 授)
- 發 表 者 及 討 論 者 全 員

5. 綜 合 討 論

司會：金 惠

그동안 第1主題 및 第2主題 발표와 그에 잇따른 討論을 통해서 이야기 될 것들이 자상하게 충분히 論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綜合討論의 重要的 目的은 午前 會議와 午後 會議에서 미처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主題 發表者와 討論者가 그것을 짚막짚막하게 보충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첫째 目的이 될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되도록 많은 時間을 남겨가지고 오늘 主題發表者와 討論者만의 會議가 되지 않고 參加하신 여러분의 會議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 綜合討論의 重要的 目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오늘 綜合討論을 위한 司會를 맡은 사람의 特權으로서 되도록 여러분에게 많은 時間을 돌려드리므로써 質問할 機會를 많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午前 會議와 午後 會議에서 많은 것이 얘기되고 많은 質問이 提起됐습니다. 역시 核心的인 問題는 3가지로 요약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綜合討論에서 이 3가지 問題를 中心으로 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간략하게 3가지 問題를 要約해 드린다면 첫째로는 1970年代의 第1期 對話와 1980年代 第2期 對話, 물론 그것을 第3期 對話라고 表現하셨습니다. 가운데 것은 對話같지도 않은 것이기 때문에 빼버리고 第2期 對話로 가면 1기와 2기 對話사이에 對內外的 環境의 變化가 과연 얼마만큼 있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고, 둘째로 그러한 對內外的인 客觀的 環境變化가 南北韓 關係의 變化로 연결될만한 어떤 南北韓 關係의 主觀的 認識의 變化가 거기 뒤따랐느냐

하는 문제가 또하나 생각되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문제로서는 앞으로 南北韓 關係에서 轉換은 과연 不可避한 것인가 하는 문제와 關聯해서 南北韓 關係를 展望해보고 과연 그런 轉換이 不可避하다고 하며는 그 轉換을 앞당기기 위한 우리들의 課業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으로 大體 要約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中心으로 해서 또는 이것 外에 생각하고 계시는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主題를 發表하신 두분과 討論에 參加하신 분들이 먼저 잘막 잘막하게 얘기 안된 부분을 보충해 주시고 나머지 時間을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은 順序에 따라서 鄭洪鎭先生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討論：鄭洪鎭

時間도 없고 해서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司會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時間을 더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質問에나 答辯해 주십시오.

그 다음 李相禹教授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討論：李相禹

機會를 주셨으니까 아침시간에 시간이 모자라서 答辯 못했던 것만 한 1,2 분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鄭洪鎭先生께서 말씀하셨던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北韓과 會談을 하고 있는데 會談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妥協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妥協을 하다면서 한쪽에서 反共教育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이 두가지를 어떻게 調和하느냐 하는 것을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問題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거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우리가 北韓하고 對話할때는 타협이라고 합시다마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타협이 아닙니다.

특히 思想的 次元에서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北韓하고는 ...

그런데 그럼 타협을 안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에 가끔 실제로 會談을 하면서도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北韓하고 하는 것은 會議가 아니라 會談입니다. 會談에서는 서로가 討論을 해가지고 서로 양보해가지고 하나를 중간에 만들어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쪽 主張을 正確하게 傳達을 하고 서로가 傳達한 內容을 가지고 돌아가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네 자세를 취하는 것이 會談이지 會議場에 우리가 學校에서 하는 것처럼 세미나식으로 해가지고 네가 옳고 그르고 따져가지고 거기서 第3의 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分明히 말씀드립니다.

이와 關聯해 가지고 소위 外交的 中立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날 우리 學生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이것은 다른 분한테 전해 들

은 얘기입니다마는 外交的 中立은 언제 可能하느냐 하면 思想的으로 우리의 姿勢가 분명할 때만 外交的 中立이 可能하다고 하는 말을 할려고 합니다.

우리 姿勢가 분명해야 그것을 전제로해서 우리와 思想과 理念을 달리는 나라가 우리를 수용해 주는데서 中立이 可能한 것이지 우리가 思想的인 姿勢를 흔들어 놓고 거기에서 中立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時間이 있으면 제가 좀더 길게 풀고 싶습니다마는 時間이 짧기 때문에 結論만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精神的 姿勢를 분명히 하는 것이 오히려 南北 會談을 進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일른 들으면 역설적이지만 그런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機會를 가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司會

감사합니다. 평소에 제가 알기로는 李相禹教授께서는 南北韓 關係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하면 지금 對話하는 自體가 北쪽이 상황에 밀려서 끌려다닌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뭔가 노리는 게 있지 않느냐고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되풀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점을 다른 말로 表現해 주신 걸로 理解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主題發表를 해주신 安秉俊教授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討論：安秉俊

감사합니다. 南北對話의 性格과 쟁점에 대해서는 아침에 제가 發表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司會하신 분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70年代 對話와 80年代 對話가 어떤 差異가 있느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問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거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쪽이 다 追求하는 目的에서는 變化가 없습니다. 다만 追求하는 方法에 있어서 다소 變化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南北韓關係는 基本的으로는 4가지 側面이 있는데 하나는 軍事的인 對決, 다른 하나는 外交的인 對決, 그리고 經濟的인 競爭, 政治的 對決 이렇게 있는데 外交的인 競爭과 經濟的 競爭에서는 우리 韓國이 이미 北韓을 앞지르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事實입니다.

지금 南北韓關係 基本性格은 軍事的인 것과 政治的인 것, 이것을 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長期的으로 볼 때 우리가 戰爭을 抑制할 수 있다면 南北韓關係는 좋든 싫든 政治的 競爭으로, 政治的 正統性을 確保하기 위한 政治的 競爭으로 나갈 것이다. 現在 南北韓關係는 그러한 轉換의 와중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옛날과 다른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에서 또 한가지 다른점이 있다면 비록 政治的 見解를 달리하지만 相對方 양쪽이 共同의 利益 영역을 찾을 때는 合意도 可能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작년 對話가 보여준 그런 새로운 면이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부담이 있는데, 그 부담은 무

엇이나?

會談을 하면 역시 戰爭抑止力 보다는 緊張緩和 데탕트, 무슨 화해 여기에 주안점이 있기때문에 우리쪽으로는 戰爭抑止와 緊張緩和 이것을 어떻게 調和함으로써 戰爭抑止力을 약화하지 않고 어떻게 北韓과 競爭하고 對話하고 緊張緩和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負擔이 하나 있고, 둘째로는 앞으로 國際環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南北韓關係 對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國內的 要素가 더욱 더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國內的인 要素로는 北韓의 경우 2가지가 중요하다. 하나는 金正日世襲體制로 넘어가는, 金正日體制로 確立하는 그런데 대한 어떤 중요한 條件들 이런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經濟問題입니다. 北韓이 經濟的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아마 다 認定하고 있는데, 이 두가지 要素가 어떻게 作用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추측으로는 이 두가지 면에서 도움이 된다면 북한 사람들은 아마 對話를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있는데 다만 또 70年代와 다른 것은 從前에 心理的인 萎縮感을 어느정도 克服하고 우리국민이나 政府나 우리쪽에는 經濟도 成長하고 產業社會化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大局的인 見地에서 어떤 분은 만형이라고 합시다만 우리가 강한 見地에서 우리가 會談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70年代와 다른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司會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申正鉉教授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討論：申正鉉

아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간단하게 한 3가지 問題만 提起를 하겠습니다. 이런 제 말씀도 너무 소박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自身이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南北對話라고 하는 것이 우리 政府의 政策 目標의 하나로 볼 때 이러한 政策目標의 優先順位 중 어디에 南北對話가 있는가 하는 문제, 우리가 흔히 統一이라고 하는 것은 民族의 至上課題라고 합나다마는 統一에 接近하는 어떤 方法으로서 對話가 갖는 어떤 政策的 意味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한테 重要的 意味를 주는 것인가 하는 問題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對話나 協商이라고 하는 것은 相互 利益이 있을 때 한다 라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北韓을 警戒를 해야 되고, 과거 經驗에 비추어 보아서 北韓에 대한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습니다. 또 北韓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對南戰略 戰術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一般的인 評價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對話나 協商을 끌어갈려고 할 때에는 相互利益이 있을 때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經濟的인 問題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姿勢 같은 것을 우리 스스로 가다듬고 國論을 統一을 하고 北韓에 대해서 어떤 공감대를 形成을 하고 하는 이런 것을 形成시키면서 同時에 北韓도 하나의 對話의 相對로서 利益을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여지가 뭐가 있겠느냐?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다시 말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도 利益을 보고 北韓도 利益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協商의 추이를 우리가 어떻게 開發해 나갈 것이냐? 서로 相對方을 헐뜯고 非難하고 또는 侮蔑시킬려고 하는 이런 立場보다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역시 우리가 이러한 상태를 克服해야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相互間의 利益을 얻을 수 있는 여지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積極적으로 찾아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면에서 協商의 이니셔티브를 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번째는 역시 南北韓 關係라고 하는 것은 南北韓 問題가 韓半島化 하는 問題가 있습니까라는 저는 南北韓關係의 解決에 있어서는 韓半島를 둘러싸고 있는 周邊 國際關係가 매우 중요하다고 역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民族 力量이 增大가 됐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條件이 달라졌기 때문에 民族內部的 힘의 對話를 끌어간다는가 統一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간과하는 것은 아닙니까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美國이나 소련이나 中共이나 日本이 韓半島에서 갖는 利益이 아주 여전히 複雜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對外的 關係하고 불가분의 關係를 갖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立場에서 과연 對話나 統一과 연관되는 韓半島 周邊 關係를 如何히 管理해 나갈 수 있는 能力이 있느냐 하는 問題, 또 管理해 나갈 用意이 있느냐 하는 問題, 주어진 상황만을 對外的으로 주어진 상황만을 우리가 受容을 해서 그것을 對話에 연결시킬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對話에 有利하도록 積極적으로 끌고갈 수 있는 對外關係에 政策的인 方向이 設定되어 있느냐 하는 問題, 이런 것과 關聯해서 제가 具體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南北韓의 協商이나 對話라고

하는 것이 南北韓 당사자간의 問題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對話를 積極的으로 끌고가기 위해서는 北韓과 역시 緊密한 關係를 갖는 蘇聯이라든가 中共과의 關係를 우리가 어떠한 形態로든지 이것을 變化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問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南北韓 關係가 우리들의 문제지마는 우리가 이러한 好條件을 만들기 위해서 對 蘇聯·中共과의 外交關係가 어떻게 設定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問題, 이것 어떻게 뚫고나가야 될 것인가? 만약 이것이 안된다고 가정해도 對話는 可能的 것인가? 또는 統一에의 接近이 얼마만큼 可能해질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이자리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司會

감사합니다. 다음은 李洪九教授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討論：李洪九

南北對話를 둘러싸고 무엇보다도 우리와 北韓 즉 南北의 國力 내지 힘의 比較를 많이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한두가지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하나는 바로 오늘 學術會議가「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발표 4주년을 記念하는 會議인데요, 그 統一方案을 우리가 내세울 게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언제 어디서 어느때나 會談을 하겠다는 대단히 肯定的인 姿勢를 우리가 보인 점을 우선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國力の 신장이라든가 우리 國民의 姿勢라든가 이런

것을 肯定的으로 나타냈다는 면에서는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동시에 우리가 理解해야 될 것은 南北會談이나 南北關係를 하나의 게임으로 본다면, 마치 바둑으로 본다면 북쪽에다 先手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북쪽이 원하는 時期에 될 하자고 자꾸 나서면 우리가 좀 안한다고 그러기에는 거북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先手를 양보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둑같이 先手를 양보했다고 무슨 控除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事實은 비슷한 힘보다는 우리가 상당한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만 先手를 주고도 바둑을 有利的한 쪽으로 우리가 둘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 이것을 理解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우리가 실력을 길러서 바람직하기는 우리가 원하는 方向으로 밖에 北韓에서 바둑을 둘 수 없게 만들 때만 우리가 상당히 自信과 여유를 가지고 對話를 進行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는 國力問題가 아까 오후 會議에서도 나왔읍니다마는 政治, 經濟 軍事等 各論的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全體的으로는 北韓쪽에서는 자기들의 組織力을 대단히 높이 評價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一絲不亂하게 될 組織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대단히 강하다 사실 그런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히 여러면에서 뛰어난 점도 있습니다만 組織이 잘 안되는 側面도 開放社會가 가지고 있는 特徵으로서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가 가지고 있는 強點이라는게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바로 國民들이 가지고 있는 基本的인 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基本的인 判斷力, 지난번 藝術團 交換 때라든가 赤十字會談 때도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상당한 성숙성, 각자가 가지고 있는 基本的 判斷이 대단히 賢

明하다는 것, 이런 국민이 가지고 있는 基本的인 힘 이것을 결코 가볍게 評價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또 政府가 아닌 우리의 各界各層의 團體들이 가지고 있는 힘 이런 것을 높이 評價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힘을 기르는데 있어서는 이런 국민들의 힘, 또 各團體들의 힘, 이런 것을 계속 중요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側面에서 이번 政治的인 與野關係에서 國會內的 南北問題에 대한 特別委員會도 設立하는 可能性도 論議되고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단순히 國會次元에서만 論議될 問題는 아니고 사실 제일 큰 課題는 어떻게 지금 말씀드린 국민, 대단히 潛在的으로 賢明한 국민들과 이런 團體들의 힘을 集結시킬 수 있나 그런 作業이 앞으로 가장 큰 課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 됐을 때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先手를 다 양보하고도 상당히 여유있는 바둑을 둘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마지막으로는 國力이라는 지표로 봤을 때 經濟力이 5:1이다, 軍事力이 어떻게 얘기합니 다만 힘이 많은 나라가 반드시 協商을 잘 하는 건 아닙니다.

協商이라는 건 事實 어떻게 보면 이 協商의 組織과 技術과 이런 것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하나 바란다면 政府가 물론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北韓 또는 共產國家와의 協商이 技術的으로 대단히 複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國力에 相應하는 적어도 그런 훌륭한 會談 組織과 一貫性있는 政策과 훌륭한 要員의 確保와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이 安心하고 이것을 政府에 맡길 수 있는 그런 組織을 強化하지 않으면 아무리 國家의 힘이 크다고 하더라도 막상 會談에서 그것이 反映이 잘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憂慮를 전혀 할 필요가 없도록 해 주는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期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司會

예, 감사합니다.

安秉俊教授나 申正鉉教授님 그리고 李洪九教授님 세분 말씀하신 게 어찌면 오늘 이 會議의 結論같은 말씀이 되겠습니까.

1970年代에 비해서 오늘의 狀況이라는 것은 南北의 協商할 수 있는 그 여건에서 많이 改善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安秉俊教授님이나 申正鉉教授님께서 南北韓間에 利益과 必要를 어떻게 절충시키느냐? 이 問題가 重要하다는 것을 제기하셨습니다. 인제 그에 대한 結論적인 이야기로 李洪九教授님께서 바둑의 先手는 양보하되 北쪽이 바둑을 자기 의도대로 두지 못하도록 우리가 바둑을 두어나가야 한다. 이런 좋은 結論적인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다음에 鄭千九教授님께서 補充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討論：鄭千九

아까 오후會議에서 말씀을 금방 드렸기 때문에 별다른 말씀을 드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充分치 못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事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李相禹教授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이제 問題가 南北對話에 있어서 많이들 問題意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과연 北韓과의 妥協이나 協商과 우리 內部的 反共教育을 과연 어떻게 調和할 것인가 하는 問題를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原則을 분명히 해야 우리 協商에도 有利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을 하고 싶은 것은 對話를 쭉 하면서 우리 여러사람간에 論議 中에서 反共教育이 이제는 때가 좀 時期가 지났지 않느냐? 다른 種類로 轉換해야 된다, 특히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이라든가 理念教育같은 것을 다른方向으로 轉換하자 하는 論議가 또 많이 있고 反共教育을 하면서 어떻게 또 對話를 하느냐 이런 論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제 생각에는 아무리 對話를 하더라도 다 必要하다, 예를 들어서 反共教育 理念教育 또는 이데올로기 批判教育 다 그것이 그때 그때 必要事項이 와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에 이제는 軍事的인 對決에서 政治的 心理的 對決로 南北韓 關係가 변해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軍事作戰에 있어서 陸·海·空軍이 다 必要합니다. 陸軍은 陸地로 오는 것을 막고 空軍은 위로 오는 것 막고 다 必要한데 어느하나가 強調된다고 해서 다른 걸 拋棄할 수가 없듯이 우리가 思想戰 政治的인 競爭에 있어서 反共教育은 절대로 必要하고 이데올로기 批判教育 다 必要합니다.

다만 그것이 한쪽만 強調하지를 말고 陸·海·空軍을 다 補強해야 하듯이 그것을 그때 맞춰서 優先順位 같은 걸 再調整하고 특히 反共教育에 있어서는 과거 우리가 直接 체험을 못하고 그냥 理論上으로 했으니까 앞으로는 實際 北韓의 實相을 重點으로 教育하는 方法 또 共產圈의 理念을 너무 強調하는 것보다는 現在 進行되고 있는 中共이면 中共, 共產圈問題 研究가 상당히 必要하다. 그래서 均衡있는 教育制度가 南北對話를 對備한 國內體制整備에서 重要하다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感謝합니다.

司會

여기 계시는 聽衆 中에서 質問하실 거나 코멘트하실 게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우선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質問：김성근 (民統 京畿道 協議會 運營委員)

70 年代初부터 80 年代의 오늘날까지 여러가지 우리가 그동안에 南北對
話を 많이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對話를 통해서 잃은 것은 무엇
이며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答辯：鄭洪鎭

꽤 어려운 質問을 해 주셨습니다. 70 年代 對話도 저희들이 參與를
했고 지금도 80 年代 對話를 뒤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말
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利益이나 損害나 長點이나 短點이나 하는
것은 그 어떤 基準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아까 오후에 發表하신 선
생님께서 東西獨關係를 말씀하시면서 東獨이 間諜을 보내는데도 왜 對話를 하느
냐 할 때에 民族問題이기 때문에 政策 次元의 間諜하고는 전혀 問題가
 다르다고 했다는 것은 평소에 會談을 하면서도 느끼고 있었던 問題
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南北間에 對話라고 하는 것은 分斷을 점
차 종식시켜 갈려고하는 그 過程에서 일단 分斷의 現實을 認定하자 하는
게 우리의 統一政策입니다. 認定해 놓고나면 그다음에 統一로 가자 하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새로운 歷史를 韓半島에서 하나하나 創造 내지 蓄積 해 갈려고 하는 행동이 南北對話다. 저는 이렇게 解釋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利益이나 損害, 長・短點이 뭐냐하는 이런 각도에서 南北對話가 論議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사실은 저의 뜻입니다.

굳이 이것을 나눌려고 하면 여러가지 있겠읍니다마는 저는 南北對話를 아까 李洪九教授가 말씀한 게임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도 점수를 따고 자기네들도 점수를 따는 그런 게임이지 내가 따는 것은 저쪽이 절대적인 損失이 되고 저쪽이 利益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損害가 되는 이런 게임은 아니다.

다시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南北間에 처하고 있는 이 狀況 속에서 南北對話라고 하는 것은 양날의 칼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럼 大韓民國式은 이쪽 날을 써서 뭔가 利益을 낼려고 그리고 北韓은 그반대 날을 써서 자기나름대로 지금 利益을 내고 있으니까 누가 利益을 더내느냐의 問題지, 저쪽도 利益을 낼려는 것 利益을 저들이 낸 것은 우리에게 損害다 이런 計算은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우리가 제일 큰 利益이라고 말한다면 戰爭을 抑止한다, 그것을 더 哲學的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民族의 破滅을 막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막았다고 하면 다른 것은 얼마의 損害를 보았다해도 그 問題는 利益과 그런 長・短點의 問題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立場에서 이 南北對話를 주시해야 합니다. 예컨대 싸움을 주먹질로 비유한다면, 그래도 말하고 있는 사이에는 주먹은 오지 않을 것 아니냐, 그게 戰爭抑制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되고 있다면 그 以上の 利益이 또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이 問題는 절대 長・短點, 利益이라고 하는 그런 次元에서 보아 주시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願입니다. 質問이 너무 막연해서 答이 오히려

막연하게 됐습니다.

質問：구인회（民統 議政府 協議會長）

이제 앞서 말씀하신 분과 같이 對話가 近 15年間 進行되는 동안 제가 볼 적에는 잃은 것 보다는 얻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80年代에 와서 그래도 南北赤十字가 直接 서울과 平壤을 往來한 것을 얻은 걸로 보았고, 그후에 단 한번 짧은 時間이나마 離散家族이 서로 往來했다는 것, 저희가 70年代初에 南北問題를 研究할 적에는 北의 1번부터 約 25번 序列 중에서 8名은 이세상을 떠나야지 對話가 순조롭게 이루어 진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 研究課題였습니다. 그 말은 왜 그러냐 하면, 1번이 金日成이라고 봤을 때 8번까지가 八路軍 出身이기 때문에 잔인한 者들과 우리와의 對話는 굉장히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근 15년이 지난 이 時點에 와서 새로 教授께서 發表하실 때는 新陳代謝, 世代交替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도 좋게 그걸 받아 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戰爭反亂者들이 결국은 序列이 8번까지가 年齡으로 봐서 이맘때 썸이면 75,80歲가 넘어서 갈 사람은 가고, 또 엘리트들이 歐羅巴에서 들어오는 젊은 층도 있으니까 對話環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53年 7月 27日 休戰 當時 세상에 난 사람도 지금 서른 서넛되고 6.25 나던 해 난 사람이 서른 다섯살 정도인데, 날이 가면 갈수록 新陳代謝로써 자라고 있는 젊은 이북의 세대는 더욱 더 빨개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하고 對話하는 過程이 文化交流라든가 혹은 여러가지 스포츠를 통해 多少 溫和하게 되기 전까지는 對話環境이 好轉되기

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양쪽의 젊은 세대를 지금 다시 한번 比較해 본다면, 저쪽은 가려진 狀態에서 빨갭게 물들었고 여기는 어딘지 모르게 開放을 하다 보니까..., 과연 저사람들이 지금 이 時點에서 過去사람 보다 나아졌나 하고 分析할 積에는 제 個人으로 봐서는 나아진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맑스-레닌主義 理論에서 보면 相對國이 강하면 于先 對話로 시작해가지고 弱點이 있을 積에 처라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가장 根本的인 主義입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教授님께서 世代交替가 됨으로써 南北間의 對話가 圓滑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根據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만 說明을 해주십시오.

司會

어느분이 答辯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을 안해주신 두분중에서 이 機會에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이제 상당이 悲觀論이 擡頭가 됐습니다. 共產主義者의 不可變性에 대한 確信이 披瀝이 되었는데 共產主義者도 변할 수가 있다는 論理가 있으면 좀 發言해 주십시오.

答辯：金達述

시선이 저한테 集中이 되는 바람에... 그건 事實 申正鉉 教授께서 提起한건데, 제 나름대로 한두마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新世代는 좀 좋아질 것이냐, 相當히 疑問스럽다. 저희들이 觀察하는 面에서도 그렇다고 이

렇게 느껴집니다. 아까 申教授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南北對話를 推進해야되는 그런 立場에서 相當한 어떤 期待를 걸어보자, 이런 希望이 우리에게 潛在해 있다고 하는 솔직한 고백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다만 그러한 可能性이 있느냐 하는 問題는 別途겠습니다만….

첫째 하나 꼽을 수 있는 것은 이제 蘇聯이나 中共이나 말이죠, 이 共產圈 國家에서 움직이는 모양을 보면 初期에 蘇聯에서 10月革命이다, 맑스-레닌主義革命이 일어나서 아까 李益興 先生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스탈린主義로 專權정치를 하고 또 中央集權制 經濟政策을 推進하고, 그래서 오늘날 蘇聯이라는 이런 나라가 형성이 되었습니까만 그것이 50,60年 차라오는 사이에 어떻게 보면 蘇聯의 그와같은 政治·經濟的 形態가 이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회의가, 이걸 自由陣營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共產圈內에서 그런 問題가 擡頭되고 있다… 그러한 徵候가 예를 들면 저쪽이 유고, 체코의 「프라하의 봄」이다. 또 폴란드의 勞動問題다, 또는 오늘날 우리가 많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中共에서의 4大現代化 路線이다, 이러한 것은 반드시 蘇聯의 共產主義的 體制 그러한 開發의 方式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는 회의가 共產圈內에서 相當히 크게 問題가 되고 있음을 立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學生들 間에 오늘의 中共이 蘇聯의 共產主義體制와는 어떤 점에서 다르냐, 中共도 물론 共產主義지만, 같은 共產主義이기는 하지만 蘇聯形態의 共產主義와는 뭔가 다르다… 이런 側面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側面에서 볼 때 北韓이라고 해서 影響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적으로 드러난다고 하면 지난 84年에 北韓에서도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合營法이라는 것을 새로 내 놓았습니다.

北韓이 소위 自力更生 路線이라고 해서 아우타르키 시스템 (Autarkie System)으로 극단적인 中央集權經濟를 취하고, 모든 社會를 閉鎖하고, 外部와의 交流를 될 수 있는대로 막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니 北韓自體內 도저히 發展이 안되고 자꾸 世界에 뒤떨어지는 結果가 되어 뭔가 外部의 技術도 받아들여야 되고 外國과의 文物도 交換해야 되겠다해서 이러한 問題가 擡頭된다는 얘지요.

그러니까 北韓에서는 자기네 生存을 위해서라도 金日成이가 종전에 죽 해 오던 이러한 政策에는 相當한 疑問이 있다고 하는 점이 여러가지로 自體內部에서도 論議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잘 안되니까 經濟閣僚등 많은 人事, 肅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肅清을 하고 내 보내고, 한 사람을 불러 올리고 또는 3大革命小組다 해가지고 자기네 自體內에서 또 새로운 革命運動을 벌이기도 하고, 이런 고통스러운 자기네 自體內部的인 變化가 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世代交替라고 해서 아까 상당한 問題가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歲月이 흐르다 보니까 그 自體가 갖는 상당한 內部 矛盾이 있다고 하는점이 새로운 世代들의 登場과 함께 지적이 되고 있다. 그러한 양상이 南北對話를 통해서도 조금씩은 나타나는 部分도 있습니다. 테크닉이 對話를 推進하는 이런 技術的인 部分에도 과거 70年代에 하던 스타일과 또 80年代 現在 하고있는 스타일과는 약간씩 다른 側面이 있습니다. 아까 南北對話하는 過程에서 利害得失이 뭐냐고 하는 部分도 있었으나, 예를 들어서 70年代에 北韓사람들이 서울을 구경하고 平壤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도 많은 것을 느꼈다고 하는 事實을 80年代 오늘날에 와서 저 自身은 실감을 합니다. 예를 들면 平壤

의 都市建設 모습을 보면 70年代 한창 漢江邊의 奇蹟이라고 해서 서울을 크게 開發을 하고 江南을 開發했읍니다만, 바로 그것을 縮小版으로 平壤으로 옮겨놓은 것 같은 현상이 오늘날 平壤市街地 建設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相當한 高層아파트가 들어선다... 70年代 저희들이 平壤에 갔을 때는 7,8層, 6層程度의 아파트였읍니다만, 지금은 32層짜리가 들어선다, 이런 變化가 있습니다. 이것은 世代의 바뀔과 더불어 자기네 自體內部에 管理시스템, 經濟的 效率性 이런 問題들을 생각할 때, 과거 金日成이를 中心으로 하는 소위 「빨치산」世代들이 推進했던 그런 政策과는 多분히 差異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새로운 世代가 當面하는 課題와 「빨치산」世代가 當面했던 課題들과 그 課題의 差異때문에 不得已 그들 스스로에 의해 무언가 어떤 形態든 變化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部門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하겠읍니다.

司會

感謝합니다.

이 問題는 굉장히 重要的 問題입니다. 「솔제니친」의 하바드大學 演說이 있고 난 다음에 그 演說의 內容을 둘러싸고 美國內에서도 많은 시비가 있었읍니다마는, 이걸 굉장히 重要的 問題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분중에 1~2분에 걸쳐서 약간 부연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討論：申正鉉

제가 論文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金達述 先生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외에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金先生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로서는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읍니다마는... 于先 70年代와 80年代 對話過程에서 差異點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가지가 있겠읍니다마는, 于先 北韓의 경우에 金正日이라는 存在가 여기에 70年代보다 80年代에 더 많이 관여되고 있는 것이 事實아니냐 하는 點입니다. 그러니까 金正日體制가 完全히 들어섰다고는 보지 않지만, 그러나 金正日 또는 그 周邊勢力들이 어떤 政策決定이나 執行過程에 많이 參與를 하고 있다면, 南北對話를 끌어가는 過程에서도 그들의 影響力이라는 것은 70年代보다 80年代에 훨씬 增加됐다고 우리가 認定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과 關聯해서 北韓에서의 金正日과 金正일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새로운 新進勢力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評價해야 될 것이냐 하는 問題가 있습니다. 저는 金正日이나 金正日 世代들이 들어섰다고 해서 이것이 韓國이 원하는대로 統一이 된다 對話가 된다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네들은 그네들대로의 北韓이라는 政治的 實體를 이끌어 나가는 公式이 있을 것이고, 어떤 方針이 있을 것이고 方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金日成世代와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다면 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金日成世代는 教條的이라든지 어떤 이데올로기성에 상당히 執着을 해서 冒險性같은 것을 金正日世代보다는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對內外的인 政策을 遂行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이데올로기성을 강조한다든지 또는 對外政策面에서 冒

險性을 실천에 옮긴다든지 이런 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金正日이나 또는 그의 世代들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目標를 追求하더라도 그런 冒險性이나 教條性보다는 現實主義에 입각해서 자기들의 利益을 追求할 것이라라고 하는 점에서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對話를 하는데 있어서도 于先 民族統一이라고 하는 問題, 그런 歷史的인 課題, 이런속에서 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北韓이 얻을 수 있는 어떤 政策的인 利益이 뭐냐 하는 것을 어느 基準에 두고 이것을 볼 것이냐 하는 問題입니다. 같은 政策을 追求한다 하더라도 어떤 점에서 생각하고 어떤 점에서 利得을 취하고 이런 觀點에서 金日成世代와 金正日世代가 다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같은 目標를 追求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같은 統一戰線을 追求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金日成과 같이 계속 教條的이고 韓國을 誹謗을 하고 韓國에서의 民主主義革命이 일어나기를, 자기들의 人民民主主義革命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이런 것 보다는 오히려 한바퀴 迂廻的인 方法을 써가지고 民族의 同質性을 強調한다든지, 平和的인 제스츄어를 쓴다든지, 이런 方法으로써 말하자면 자기들의 目標를 達成한다고 하는 것은, 後者の 方法은 前者 보다는 相當히 現實主義的이다. 相當히 合理的이다. 자기들 政策決定者들 立場에서 相當히 合理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어떤 差異點이 있다는 것이지 金正日 世代가 들어선다고 해서 그것은 곧 우리가 바라는 대로 統一目標라든지 對話가 進展될 것이라는 側面을 얘기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討論：鄭洪鎮

제가 지금 申教授님 말씀을 말이죠, 제가 經驗한 말하자면 이야기식으로 한 케이스를 紹介하겠습니다.

새로운 젊은 世代의 하는 樣式이 달라진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빨갱이다 하는 思想의 變動은 절대 없죠.

제가 南北會談時 저쪽의 김덕현이라는 사람하고 秘密接觸을 할 때 事實 여러가지로 싸우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의 그때 처음나왔던 隨行員이 50代였습니다. 그런데 論爭이 붙으면 그 사람은 自己側 代表를 擁護하느라고 더 열을 내면서 나를 攻擊하고, 忠誠을 誇示한다고 심지어 無禮하게까지 討論에 參席을 하고 대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側 隨行員이 不得已한 事情으로 젊은 사람으로 交替되었습니다. 서울大學을 나오고 正統 外交學을 공부한 30代 初半을 隨行員으로 交替를 했더니, 저사람들도 꼭 같이, 互相性이라고 그러는데, 네가 그러면 꼭 나도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30代 初半 사람으로 隨行員을 바꾸어 나왔습니다. 그게 이성철이라고 金日成大學 哲學科를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매너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또 어떤 問題로, 赤十字會談 問題로 들어서 옥신각신 싸우다가, 論爭을 하다가 그때에는 저쪽 김덕현이라는 代表가 화가 나서 門을 박차고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인사나 하고 가야지, 그렇게 박차고 나가기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30代 젊은 隨行員은 자기 대표의 立場에 서서 나를 攻擊하려고도 하지 않고 書類를 全部 챙겨 정중히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이건 單純히 한 예로서 全體 北韓의 젊은 世代가 이렇다고 一般化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디 哲學을 공부한 젊은 隨行員이 마스-레닌主義에 대해서 그 代表보다 모르겠습니까? 徹底하게 理念은 共產主義者이 되, 단지 行動하는 方式은 忠誠을 誇示하기 위해서 대놓고 짓는 놈 보다는 그래도 예의를 지키더라 하는 거지요. 지금 아마 申教授 말씀은 그런 예의지키는 사람하고는 뭔가 얘기를 해도 生産的인 뭐가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期待해보자, 이런 뜻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司會

아주 興味있는 補充說明 感謝합니다.

質問：배이현 (民統 加平郡 協議會長)

南北對話의 環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VTR을 봤습니다만, 한두차례 南北會談이 繼續된 後에 그 代表들이나 取材記者들이 저희 서울實情을 막바로 보고가서 對談討論을 하고 記者會見을 할 때에 우리가 참 웃지 않을 수 없는 事實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10年, 20年 우리가 이 會談을 繼續한다면, 戰爭은 어느정도 抑制할 수 있다고는 보겠습니다. 하지만 代表團 몇십명이 와서 보고 그것을 北에 가서 그런 식으로 다시 逆宣傳을 하니까 戰爭이 抑制된다고 가정하더라도 北韓住民에게 大韓民國에 대한 實相은 紹介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들의 主張대로 自由往來를 할 수 있게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事實상 大韓民國의 實相을 보고 물론 나쁜 점도 있겠지만 틀림없이 그네들보다 좋은 점이

많은 것을 認定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故鄉訪問團 自由往來를 한다면 저희가 꼭 안되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質問을 드리고... 조금전에 反共教育과 이데올로기教育 그리고 南北對活 이것이 均衡을 이루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約 50代 以上の 年齡에 이르신 분들은 反共教育이라면 하등의 必要가 없을 걸로 봅니다. 戰爭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戰後世代 특히 大學生들, 이 大學生들에게는 절대적으로 反共教育이 必要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故鄉訪問團이 自由往來하는 過程中서 저희 國民들 精神姿勢만 確固하다면 우리쪽은 開放을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司會

네, 感謝합니다.

이 問題에 대해서는 會談에 直接 代表로 參加하셨던 宋榮大 代表께서 答辯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答辯：宋榮大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같이 會談에 나가는 立場이기 때문에 北韓사람들 만난 이야기를 좀 해라 하면 할 수 있지만 政策問題에 관해서는 말하는 것 보다도 오히려 듣고 諮問을 받는 立場이라고 생각이 돼서 가급적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읍니다만 司會者께서 機會를 주셨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于先 지금 質問하신분의 質問에 答辯하기전에 조금전에 論議되었던 南北韓靑少年의 意識問題에 관해서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側靑少年의 意識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아시기때문에 말씀을 省略하고 다만 제가 그동안 北韓사람들을 만나고 또 平壤을 다녀오면서 보고 느낀 北韓靑少年들의 意識上的 特徵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一般的으로 봐서 北韓靑少年들의 意識性向은 非妥協的이고 攻撃的이고 挑戰的인 性向을 지니고 있는건 事實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北韓靑少年들이 外部世界와 接觸할 때는 너무나도 빨리 思考나 行動의 變化現象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北韓에서 그 동안에 蘇聯·中共·東歐羅巴 等地 共產國家에 그들의 留學生을 많이 보내가지고 공부를 하고 平壤에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平壤에 돌아온 靑年들이 이 東歐羅巴쪽에 가서 自由化의 물을 먹고 맛을 본 탓인지, 北韓의 既存政策에 반발하는 性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留學生들에 대해서는 特別한 場所에 넣어가지고 再教育을 시키는 그런 事例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 金正日이를 둘러싸고 있는 참모들의 面面을 보면 大部分 나이가 젊고, 패기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專門家集團을 많이 기용합니다. 經濟分野라든가, 科學技術分野라든가, 이런 專門家集團, 테크노크라트(Technocrat)들을 相當히 周邊에 많이 앉히는 徵候가 보입니다. 물론 金正日 周邊에 앉은 이 專門家集團의 속성을 보면 만경대 革命學院을 나오는 등의 엘리트코스를 밟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思想面에서는 머리가 빨강습니다. 머리가 빨가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專門性을 지닙니다. 그런데 이 專門性을 지니다 보니까 역시 일을하는 過程에서 合理主義라든가, 現實性을 찾게

되는거죠. 이런데서 자기도 모르는 變化現象을 일으키는 그런 걸 좀 느꼈
읍니다.

몇년전에 美國에 있는 우리 僑胞教授 한분이 平壤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모란봉을 구경시켜 주더랍니다. 勞動黨 幹部의 案内를 받아가지고 고급 벤츠를 타고서 모란봉을 구경하고 내려오는데, 그 길옆에 잔디밭에서 놀던 高等學生으로 보이는 青年 10餘名이 상의를 벗어가지고 뒤에다 턱 걸친채, 모자도 비뜰게 쓰고요, 길가로 슬슬나와 가지고 벤츠승용차 앞을 가로 막더래요. 그러면서 그중에 몇사람은 승용차 뒤로 가서 궁둥이를 올려서 걸터 앉으면서 시비조로 나오더랍니다. 그때 차안에 있던 勞動黨 幹部가 화를 내면서 비키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비키는 이러한 일을 목격한 事實이 있어요. 아울러서 지금 北韓 主要 港口都市 一部에는 강패가 있다는 事實은 北韓 放送에서도 이따금 비추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現象들을 綜合해보면 北韓이 아무리 幼兒教育부터 시작해서 靑少年들에게 思想敎化事業을 시킨다 할지라도 이러한 問題點이 많이 露出되고 있다, 더군다나 앞으로 南北이 交流를 해서 서로 往來하면서 그들이 우리 韓國 靑年들과 接觸하게 될 境遇에 그 變化의 速度는 상당히 빨라질 수도 있다, 오히려 促進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점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質問이 對話環境關係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는 이 對話環境에서 重要的인 것이 國際的인 要因이라든가 또 對內的인 要因 여러가지가 있겠읍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 報道問題가 重要합니다. 會談에 關聯된 雙方의 報道態度가 會談氛圍氣에 많은 影響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赤十字會談 代辯人을 맡고 있기때문에 北韓 代辯人을 만나게 되면 雙方의 報道問題를 가지고 항상 입씨름을 벌립니다.

제가 餘談입니다만 한두가지 말씀드리면 바로 작년 12月3日 第10次 赤十字會談이 서울에서 열렸을 때 우리側에서 北側 代表團들이 들어 있는 웨라톤 워커히 호텔방에다가 日刊新聞, 雜誌 등등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 저 마음껏 좀 보라구요.... 그런데 넣어진 雜誌 가운데에 月刊 少年中央 12月號 한권이 끼어 들었는데, 그 雜誌 중간부분 썸 가서 만화가 몇개 있습니다. 어떤 만화내용인가 하면, 가루를 만드는 粉碎機 속에다가 金日成·金正日이 둘을 집어넣고 갈아뭇개는 內容의 만화였어요. 이것 北韓 사람들이 봤습니다.

한번은 北韓사람들 방에 우리側에서 텔레비전 受像機를 장치해 놔는데 어떻게 그날 MBC-TV에서 밤 11시쯤 特別放送 프로그램을 하나 냈습니다. 그 內容이 어떤 거였는가 하면 司會者가 이렇게 스튜디오에 여러사람 앉혀놓고서 設問을 하나 던지고, 그 設問에 대해서 답하는 그런 內容이었어요. 그런데 設問을 던지기를 내가 만약 도깨비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하는 식의 設問을 던졌습니다. 여러사람이 答辯하는 가운데 한분이 “내가 만약 도깨비라고 한다면 金日成이를 먼저 혼내 주겠소” 하는 얘기를 했어요.

이런 放送內容 報道를 보고 저쪽 代辯人이 저를 만나서 항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大韓民國은 言論의 自由가 있는 나라입니다. 자기가 反對하거나 싫어하는 대상이 있으면 말로 글로 表現할 수 있는 自由를 가진 나라예요. 그것을 우리 赤十字人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합니까. 말 못합니다.

그리고 이 報道問題를 말하자면 당신들이 우리보다도 더 많이 헐뜯고 誹謗했지 않소?

하나 예를 들시다. 작년 9월에 당신들 서울 다녀간 다음에 代表團・隨行員・記者들을 텔레비에 動員해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많이 헐뜯었소? 이거 내가 말하기로 하면 限이 없는데 말 할까요? 하니까 저쪽에서 하는 얘기가 그렇다면 그만 들시다 해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報道가 중요한 것인데요. 지금 이 報道에 관해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좀 크게 말씀드리면 統一問題・外交問題・弘報問題 이 三者는 서로 密接히 연관되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統一・外交・弘報라고 하는 이 三位一體的인 시각에서 이 對話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하나 이 報道問題는 그렇습니다. 客觀적으로 말씀드리서 南北韓關係의 變化狀況과 맞추어서 報道態度가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예컨대 지금처럼 南北이 對決하는 關係에 있어서는 雙方의 弘報戰・心理戰이 敵對的인 성격을 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나 南北關係가 일단 어떤 和解關係로 발전이 되면 이 弘報나 心理戰이 友好的인 心理戰 쪽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弘報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南北韓關係의 發展程度에 따라서 變化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지금 우리側에서는 報道하는 姿勢, 弘報하는 姿勢에 있어서 좀더 어른스런 姿勢에서 한다, 또 事實을 事實대로 報道한다 하는 立場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對話初期에 昨年 5月쯤 對話再開되었을 때에는 우리 新聞에서 北韓사람들 食事하고 돌아가게 되면 뭐 갈비를 몇대 뜯었느니 어떤 음식을 많이 먹었느니 하는 등등의 報道가 나갔었어요.

그런데 그런 報道가 나간 뒤에 우리側 좀 뜻있는 분들이 말씀하기를 그

렇게 지엽적인 것 가지고 北韓사람들 不必要하게 刺戟할 必要는 없지 않겠
느냐? 이런 意見도 있고해서 지금은 言論界 스스로가 이 問題에 관해서
는 상당한 협조를 해주고 있고 좀 어른스러운 姿勢에서 報道를 하고있다
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司會

質問을 하시기 전에 會談에 參加하셨던 李相禹 教授님께서 잠깐 보
충설명 해주셨으면 합니다.

討論：李相禹

會談 參加한 건 關係없고 아까 중요한 質問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
까 못다드렸던 것 說明을 간단히 綜合的으로 드리려고 그러합니다.

南北韓間에 있어서 會談을 하고 對話를 한다고 하면 결국 南北韓間에
綜合的인 어떤 힘의 對決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힘 뿐이 아닙니다. 제가 그전
에 다른 어떤 機會에 제가 글로도 한번 썼읍니다만 이런 때 우리가 힘
이라고 그러면 간단히 제가 즐겨쓰는 公式이 하나 있습니다. 힘이라고 하
는 것은 客觀的인 能力에다가 곱하기를 戰略을 곱하고 거기에다가 意志,
소위 싸우려고 하는 意志 이 세가지를 곱한 것을 힘이라고 그러합니다.

아까 70年代와 80年代의 會談環境이 어떻게 바꿨느냐? 條件이 分明히
이 힘의 公式에 있어 보면 바뀐 것이 있습니다.

北韓의 인식에서 본다고 그러면 70年代初 會談할 때는 客觀的인 能力에서 北韓이 스스로 자기네가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優位를 어떻게 活用할까 하는 데서 會談이 시작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80年代 들어와서는 客觀的 能力에 있어서는 分明히 北韓 스스로도 우리보다 못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軍事力 이외에 客觀的 能力에 있어서는 모두가 모자랍니다. 經濟力量도 그렇고 기타 등등이...

그러나 뒤에 戰略과 意志라고 하는 쪽을 따져본다고 그러면 여기 狀況이 달라집니다. 아까 李洪九 先生님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만 우리는 個個를 하나하나 따지게 되면 모든 점에서 北韓보다 能力이 앞서는데, 果然 이것을 效果的으로 모아서 北韓과 對決할 때 힘으로 쓸 수 있는 그런 組織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부연해서 說明을 하겠습니다. 어떤 國際會議에 한번 나갔을 때 外國學者가 저희들한테 이런 質問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너희가 北韓보다 人口가 많는지? 그래서 그렇다 이랬읍니다. 너희가 經濟力量이 앞선다지? 그렇다 말야. 너희가 工業能力이 높다지? 그렇다말야. 修交國家數가 많는지? 그렇다... 이런 式으로 國力要素를 한 스무개를 내리 꼽는데 다 예스(Yes)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러면 너희들은 뭐때문에 北韓한테 떨고 있느냐? 美軍 갖다 얹혀 놓아야 된다고 그러고... 이 相當히 어려운 質問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客觀的 國力이라고 하는 點에 있어서는 그 國力要素 하나하나 比較하면 우리가 다 높습니다. 다만 어떻게 이 소위 구슬들을 꿰어가지고 하나의 목걸이를 만드느냐 하는 이 能力, 이 戰略에서 우리가 좀 그동안

등한하지 않았는가.

컴퓨터에 비유한다고 그러면 하드웨어 (hardware)는 우리가 좋은 것 가지고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software) 개발에 우리가 좀 등한해서 이 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게 아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또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意志問題가 있거든요. 싸우려고하는 意志問題인데, 이것은 政治力量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쪽에서 아까 安秉俊 先生도 말씀하셨읍니다만, 만일에 客觀的 能力으로 어느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 南北韓의 對決이라는 것은 政治對決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政治對決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하면 南北韓에 흠어져 살고있는 6千萬을 對象으로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政府와 平壤에 있는 政府가 누가 더 支持를 확보하는가 하는 싸움이 됩니다. 이거는 結果적으로... 이 싸움에서 이기는 쪽이 結局 이기는 겁니다.

제가 極端的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만일 우리 軍事力이 北韓의 2배가 된다고 하더라도 前方에 나가있는 우리 軍人들이 싸우지 않겠다고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 힘이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싸우게 하려는 意志는 어디서 생기느냐? 國民들 마음 속으로부터 우리체제를 支持하는 그런 마음이 形成될 때에만 생기는 힘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對應策이라는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支持 받을 수 있는 政治發展을 이룩해야만 됩니다. 이것은 긴 안목에서 앞으로 우리가 南北韓 對決에서 어떤 싸움을 해야되는가 하는 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데올로기 (ideology) 문제 한 마디만 더 보태고 끝내겠습니다. 결국 앞으로 아까 反共教育과 對話와의 不條理를 어떻게 調和시키는가 하는 문제를 제가 미진하게 대답을 잘 못했기 때문에 하나 더 보태려고 하는 것입니다.

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금 要求하는대로 될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結論부터 말씀드리면 客觀的 能力을 계속 높여서, 軍事力을 包含하는 겁니다. 北韓이 힘으로 우리를 자기네 뜻대로 解放할 수 없다는 것을 確信시키고, 두번째로는 우리 스스로가 政治發展을 잘 해가지고 이른바 그사람들이 말하는 人民民主主義로 여기서 革命할 수 있는 可能性이 전혀 없다는 것을 北韓이 인식하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건 正確하게 멧시지(message)를 전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가 反共教育도 계속해야 會談에 效果가 있다는 것이 그겁니다. 이와 아울러서 한가지 더 보태야 됩니다. 우리가 힘으론 너희들보다 앞서지만 戰爭할 뜻이 없고 너희들을 어떤 形態로든지 受容을 하겠다. 소위 어컴머데이트(accommodate)하겠다는 것을 明確하게 그러니까 힘으로 밀어오는 것을 막고... 抑止力입니다. 거기다가 보태기를 北韓쪽을 受容하겠다는 明確한 姿勢, 이 두가지를 正確하게 여러가지 會談을 통해서 北韓에게 전달해서 인식시키는것... 이래와야만 北韓이 자기가 韓國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하는데 대한 確信이 생깁니다.

아까 東西獨 比較도 나왔읍니다만 東獨은 西獨을 解放하겠다는 생각을 벌써 전에 버렸읍니다. 왜 거기는 平和共存이 可能하느냐 하면 東獨이 그런 생각을 버렸기 때문에 可能的 겁니다.

그럼 왜 버렸느냐 하면 正確하게 客觀的 與件이나 主觀的인 要件을 다 합쳐서 東獨에게 西獨이 그것을 立證을 해주고 認識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저는 會談의 目標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會談을 우리가 계속 하겠읍니다만 우리가 妥協을 한다고 해서 우리를 스스로 허물어뜨려 가지고

北韓을 受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덩어리가 되어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北韓보다 能力이 앞선다는 것도 보여주고 그리고 北韓을 平和的으로 受容하겠다는 아량도 보여주고, 이것을 明確하게 전달을 해서 北韓이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 그때만이 우리가 平和共存이 可能할 수 있는 與件이 아니겠는가? 會談의 目標은 이것이고 앞으로 會談 推進하는 方向도 이 方向에서 設定해야되지 않겠는가?

제 對答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司會

예, 感謝합니다.

대체로 會議를 지금 終結해야 될 때 입니다. 오늘 흥미진진했던 會議를 통해서 우리는 한가지 事實에 合意를 하게 되었습니다. 곧 南北韓關係에서 肯定的인 轉換이 어차피 不可避하게 되었다는 事實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希望的인 일로서 오늘 그러한 希望을 確認한 것은 큰 成果로 받아들여집니다.

오늘 長時間 참아주신 여러분의 忍耐에 대해서 그리고 積極的으로 參與해주신 여러분의 熱誠에 대해서 심심한 感謝를 드리면서 오늘 會議를 끝맺겠습니다.

感謝합니다.